

各司膳錄

# 각사등록 경상도편 역사기후 자료집

慶尚監營啓錄

統制營啓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公文編案 66책,	1897년(건양 2)



各司膳錄

# 각사등록 경상도편 역사기후 자료집

慶尙監營啓錄

統制營啓錄

公文編案



初曉三時  
安東面  
終曉三時

島山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西村驛直

去月廿五日



##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20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001-0027	1863년, 철종 14년	경상감영계록 1책	각사등록 11책	22
0028-0064	1872년, 고종 9년	경상감영계록 3책	각사등록 11책	57
0065-0068	1890년, 고종 27년	경상감영계록 5책	각사등록 11책	105
0069-0095	1902년, 광무 6년	경상감영계록 6책	각사등록 11책	111
0096-0122	1871년, 고종 8년	통제영계록 3책	각사등록 17책	157
0123-0151	1873년, 고종 10년	통제영계록 4책	각사등록 17책	184
0152-0158	1897년, 건양 2년	공문편안 66책		213
0159-0193	1898년, 광무 2년	공문편안 66책		221
0194-0213	1900년, 광무 4년	공문편안 66책		268
0214-0221	1898년, 광무 2년	공문편안 66책		289





---

해제

---

##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찬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경상감영계록(慶尙監營啓錄)』과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 『공문편안(公文編案)』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과의 관계는 물론, 전근대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경상도는 조선시대 충청, 전라도와 함께 중앙의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관리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사등록』에 포함된 경상감영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에는 『경상감영계록』의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의 우택, 측우, 농형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경상감영계록』은 경상감영에서 작성한 계문을 비변사가 베껴 써 모아 놓은 자료로서, 경상도 지역의 우택, 농형 기사는 물론 기근 시 기우제 설행이나 화재, 익사 사고로 인한 환곡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술농민항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863년(철종 14) 경상도 관찰사가 올린 우택 기사를 살펴보면, 4월 21일 군위현에 갑작스런 비와 함께 도토리 열매 혹은 총알만한 우박이 떨어져 보리 및 목면, 삼[麻稗] 등에 피해를 입었으며, 5월 28일에는 김해에 큰비가 내려 논두둑이 떨어지고 낙동강물이 들을 뒤덮는가 하면, 6월 초5일에는 하동, 초계뿐 아니라 순흥, 영천 등 12개 고을에 시내와 도랑에 물이 넘쳐 곡식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주, 대구 등 경북 내륙의 여러 고을에 큰비가 내려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는 일이 발생했으며, 7월 2일과 3일에도 경주에 바닷물이 넘쳐 곡식이 손상되고 109가구나 되는 집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감영에서는 수해를 입은 고을에 사망한 자는 장사지내주도록 하고, 무너진 집은 목재를 빌려주고 일꾼을 보내주는가 하면, 상진청에 요청해 진흙미를 분급해주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1863년(철종 14) 농형 보고를 통해 경상도의 주요 농작물과 경작 방식을 살펴보면, 논농사에서는 올벼와 늦벼를 심고 봄에 못자리에 모를 심어 기르다가 논에 옮겨 심는 이앙법을 행하거나 논에 바로 벼씨를 심고 김매기를 하는 부종법이 통용되었다. 밭농사에서는 봄보리와 가을보리를 심고 역시 여러 차례 김매기를 행하였으며, 목화와 여타 잡곡은 사이짓기를 하여 여러 작물을 동시 재배하였다. 경상도에서 재배된 밭작물은 올콩, 올팥, 늦콩, 늦팥, 올기장, 올조, 늦기장, 늦조, 메밀 등이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경상감영계록』에 대한제국기인 1902년(광무 6)의 우택, 농형 보고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보고 주체와 형식에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 데다가 이 해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6월 12일 계문에는 도내 각읍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횟수가 자세히 수록되었는데, 이 역시 조선시대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와 큰 차이가 없다.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은 통제영에서 중앙에 보고한 계문을 베껴 써 모아 놓은 등록 류로서,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두 해 기록에서 우택과 측우, 농형 기사가

확인된다. 통제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면서 본영으로 삼은 곳으로, 조선후기 서남해안 일대 군사방어의 중심기지로 역할했다. 『통제영계록』에는 통제영이 관할하는 고성부의 우택과 측우, 농형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고성부사가 통제영에 보고한 내용을 통제사가 정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형식을 띠었다. 통제사는 고성부사가 보고하는 우택, 농형 정보뿐 아니라 통제영에 소재한 측우기 수심 기록도 함께 보고하였다. 1870년(고종 7) 고성현이 부로 승격되면서 치소가 통제영 안으로 이전됐다가 1872년(고종 9) 다시 고성으로 복귀된 바 있는데, 치소 복귀 후에도 통제영과 고성부의 행정적 위계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문편안(公文編案)』의 1897년(광무 1),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에서도 우택, 측우, 농형 기사가 확인된다. 당시 경북관찰부의 관찰사로 재임한 인물은 엄세영(嚴世永), 조시영(曹始永), 이은용(李垠鎔)으로 각 군에서 보고받은 우택 정보와 경북관찰부의 측우기 수심을 종합하여 농형과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다. 다만, 1900년(광무 4) 8월 7일과 9월 1일에 사천군수 민기호(閔箕鎬)와 진주군수 윤우선(尹寓善)이 각각 관찰사서리로서 경북관찰부의 우택과 농형을 중앙에 보고하였다. 『공문편안』에 수록된 우택, 측우, 농형 기사는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도 단위의 우택-측우-농형 보고 체계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2) 자료의 활용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 경상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경상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도의 경우 타도에 비해 자료량이 많지는 않지만, 1863년과 같이 임술농민항쟁이 발발한 바로 이듬해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고, 통제영과 같은 병영의 측우 관측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타도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19세기 경상도 지역에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진단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 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 역시 타도와 마찬가지로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경상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충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 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경상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경상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경상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상도편

---

## 0001. 1863년(철종 14) 4월 1일(양력 5월 18일)

慶尙監營啓錄 1책(1a~1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a~1b)

道內農形及雨澤, 前道臣在任時, 已爲馳啓爲白在有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之雨, 漆谷川渠連流, 寧海·靑松得二犁, 晉州·慈仁·英陽等三邑得一犁, 昌原·草溪·醴泉·榮川等四邑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臣於踰嶺以後, 所經聞慶·咸昌·尙州·善山·仁同·漆谷·大丘等邑, 次第看審是白乎, 則秋牟方張發穗, 春牟漸看胚胎, 早秧[秧]注畢, 木綿出土, 麻臬立苗, 間耕各穀, 已盡耕播, 各邑農報, 亦與歷路所見一樣是白在如中. 去月二十九日, 臣行到仁同地, 而當日亥時始雨, 或霏或霑, 間間滂沱, 三十日戌時乃止, 大小川渠, 無不連流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이전 관찰사 재임할 때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2일의 비로 칠곡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영해·청송은 2려가 내렸고, 진주·자인·영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초계·예천·영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제가 고개를 넘은 이후에 거친 문경·함창·상주·선산·안동·칠곡·대구 등 고을을 차례로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점점 알을 배는 것이 보이고, 올모는 물대기를 마쳤고 목화는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삼은 싹이 돋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각 고을의 농사 보고도 또한 지나는 길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저의 순행이 인동 지역에 도착했는데, 당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간간이 짹짹 쏟아지면서 30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흐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2. 1863년(철종 14) 4월 7일(양력 5월 24일)

慶尙監營啓錄 1책(2b~3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b~2c)

道內農形及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之雨, 前啓外, 永川·三嘉·漆原等三邑, 川渠漲流, 慶州·蔚山·新寧·靈山等四邑得一犁, 金山得一鋤, 外他各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二十九日之雨, 慶州·蔚山·金海·青松·東萊·居昌·梁山·宜寧·清河·彥陽·眞寶·高靈·丹城·軍威·義興·三嘉·比安·英陽·漆原等十九邑, 川渠漲流, 漆谷·慶山·新寧等三邑, 川渠連流, 安東·尙尙[尙州]·州星[星州]·善山·金山·龍宮·昌寧·機張等八邑, 得二犁, 晉州·大丘·密陽·醴泉·興海·固城·義城·河陽·奉化·咸昌·知禮·靈山等十二邑, 得一犁, 草溪·咸陽·陝川·開寧·熊川等五邑, 得二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五日戌時始雨, 或灑或霏, 初六日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前雨過中, 今霏又添, 方穗之牟麥, 不無受病之慮, 爲民事誠切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齊報,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2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천·삼가·칠원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주·울산·신녕·영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산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29일의 비로 경주·울산·김해·청송·동래·거창·양산·의령·청하·언양·진보·고령·단성·군위·의흥·삼가·비안·영양·칠원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칠곡·경산·신녕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안동·상주·성주·선산·김산·용궁·창녕·기장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대구·밀양·예천·홍해·고성·의성·하양·봉화·함창·지례·영산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초계·함양·합천·개령·웅천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6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비가 지나치게 내리더니 이번에는 주룩주룩 내린데다 또 더해져 막 이삭이 팬 보리는 병에 걸릴 염려가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3. 1863년(철종 14) 4월 11일(양력 5월 28일)

慶尙監營啓錄 1책(3a~3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c~2d)

今月初五日以初六日至, 臣營下得雨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前啓外, 寧海·順興·永川·豐基·咸安·昆陽·盈德等七邑, 川渠漲流, 南海·迎日, 得雨二犁, 榮川·禮安·長鬐等三邑, 得一犁, 巨濟得一鋤, 外他各邑俱無得雨之報是白遣. 初五日之雨, 慈仁川渠漲流, 晉州·漆谷·知禮·長鬐等四邑得一犁, 昌原·大丘·金海·清道·陝川·高靈·安義等七邑得二鋤, 星州·草溪·永川·金山·慶山·河陽·清河·迎日等八邑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間或入實, 春牟漸次發穗, 而惱於頻雨, 不無受損之慮, 早秧抽針, 晚<秧>注種, 木綿立苗, 麻臬青潤, 間耕各穀次第出土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초5일부터 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해·순흥·영천·풍기·함안·곤양·영덕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남해·영일은 내린 비가 2려였고, 영천·예안·장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제는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자인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진주·칠곡·지례·장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대구·김해·청도·함천·고령·안의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주·초계·영천·김산·경산·하양·청하·영일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알이 들고 봄보리는 점차 이삭이 패었고 잦은 비에 시달려서 손실을 입을 염려가 없지 않고, 올모는 싹이 바늘처럼 뽕족했고 늦모는 물을 대고 씨앗을 뿌렸고, 목화는 싹이 돋고 삼은 푸르러 윤이 나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4. 1863년(철종 14) 4월 21일(양력 6월 7일)

慶尙監營啓錄 1책(11a~11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8a~8b)

道內雨澤及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日之雨, 前啓外, 慶州·咸安·昆陽·漆原等四邑, 川渠漲流, 義城得二犁, 東萊·南海·鎭海·新寧·泗川等五邑, 得一犁, 河東·丹城, 得二鋤, 蔚山·居昌·咸陽·宜寧·迎日等五邑, 得一鋤, 外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秋牟漸次垂穎, 春牟已盡發穗, 早秧出水, 晚秧抽芽, 木綿初鋤, 間耕各穀, 次第立苗是白在如中. 軍威段, 今初九日, 急雨忽霏, 驟雹亂下, 大如橡實, 小如鉛丸, 而牟麥及木綿·麻枲, 舉被摧折, 披靡之患, 所見愁慘是如, 牒呈爲白有臥乎所. 不時驟雹, 雖不遍及, 所過之處, 偏被其害, 言念民情, 誠不勝萬萬矜憫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달 초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경주·함안·곤양·칠원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의성은 2려가 내렸고, 동래·남해·진해·신녕·사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하동·단성은 2서가 내렸고, 울산·거창·함양·의령·영일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고개를 숙이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패었고 올모는 물 밖으로 나왔고 늦모는 싹이 나왔고 목화는 초벌매기를 하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돋았습니다. 군위의 경우, 이번 초9일에 갑작스런 비가 갑작스럽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세차게 우박이 어지럽게 내렸는데 큰 것은 도토리 열매만 하고 작은 것은 총알만 해서 보리 및 목면·삼은 거의 꺾어지고 쓰러지는 근심이 보기에 처참하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때아닌 세찬 우박이 비록 두루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곳은 심하게 피해를 입었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매우매우 가엾고 걱정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05. 1863년(철종 14) 4월 26일(양력 6월 12일)

慶尙監營啓錄 1책(12b~12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8d~8d)

道內農形及軍威縣雨雹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二十四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間間斷續, 二十六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군위현에 비와 우박이 내린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4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다가 26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6. 1863년(철종 14) 5월 2일(양력 6월 17일)

慶尙監營啓錄 1책(14a~14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9d~10a)

去月二十四日以二十六日至, 臣營下得雨四分, 緣由纔以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咸安川渠連流, 星州·宜寧·鎭海·高靈等四邑得一犁, 金海·草溪·陝川·丹城等四邑得二鋤, 昌原·晉州·大丘·東萊·漆谷·居昌·清道·咸陽·榮川·豐基·固城·慶山·河陽·三嘉·漆原等十五邑得一鋤, 永川·迎日·長鬐·慈仁等四邑浥塵而止,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向熟, 春牟入實, 早秧間或移插, 晚秧出水, 木綿再鋤, 間耕各穀, 次第連畝, 麻稗漸看茁長是如是白在如中. 臣營下去月二十九日丑時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一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兩次之雨, 雖幸田種之霑潤, 而未爲秧役之浹洽, 繼此一霏, 方切顙祝爲白乎旆.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함안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성주·의령·진해·고령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해·초계·합천·단성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창원·진주·대구·동래·칠곡·거창·청도·함양·영천·풍기·고성·경산·하양·삼가·칠원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천·영일·장기·자인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익어가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올모는 간혹 옮겨 심었고 늦모는 물 밖으로 나왔고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하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차례로 이랑에 이어지고 삼은 점점 짝이 자라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비가 비록 밭 곡식을 촉촉이 적서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모내기 일을 하기에는 흡족하지 않으니, 계속 이렇게 한차례 퍼붓기를 막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7. 1863년(철종 14) 5월 9일(양력 6월 24일)

慶尙監營啓錄 1책(14b~15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0b~10c)

道內農形及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 前啓外, 南海得一犁, 河東得二鋤, 蔚山·密陽·昆陽·開寧·泗川·機張·安義等七邑得一鋤, 盈德·熊川浥塵而止, 外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二十九日之雨, 昆陽川渠漲流, 豐基得二犁, 尙州·晉州·順興·榮川·義城·南海·宜寧·龍宮·奉化·鎭海等十邑得一犁, 善山·河東·淸道·機張等四邑得二鋤, 星州·大丘·密陽·靑松·東萊·仁同·漆谷·居昌·草溪·咸陽·永川·梁山·金山·盈德·固城·慶山·淸河·咸昌·知禮·高靈·丹城·義興·新寧·三嘉·慈仁·英陽·聞慶等二十七邑得一鋤, 蔚山·迎日浥塵而止,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今初七日辰時始雨, 或灑或霏, 初八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節序已過夏至, 雨澤終未周洽, 秧役不無愆時之慮, 繼此一霈, 去益顯祝爲白乎旆.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해는 2려가 내렸고, 하동은 2서가 내렸고, 울산·밀양·곤양·개령·사천·기장·안의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덕·웅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29일의 비로 곤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풍기는 2려가 내렸고, 상주·진주·순흥·영천·의성·남해·의령·용궁·봉화·진해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선산·하동·청도·기장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성주·대구·밀양·청송·동래·인동·칠곡·거창·초계·함양·영천·양산·김산·영덕·고성·경산·청하·함창·지례·고령·단성·의흥·신녕·삼가·자인·영양·문경 등 2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울산·영일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절기는 이미 하지를 지났는데 우택이 끝내 두루 흡족하지 않아 모내기 일하는 시기를 놓칠 염려가 없지

않으니, 계속 이렇게 한차례 퍼붓기를 갈수록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8. 1863년(철종 14) 5월 12일(양력 6월 27일)

慶尙監營啓錄 1책(15b~15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0d~11a)

今初七日以初八日至, 臣營下得雨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九日之雨, 前啓外, 巨濟得一犁, 寧海得一鋤, 昌寧浥塵而止, 外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今初七日之晉州·丹城得一犁, 大丘得二鋤, 昌原·星州·草溪·固城·慶山·慈仁·安義等七邑得一鋤, 漆谷浥塵而止,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方始刈取, 春牟次第向黃, 早秧方張移插, 而高燥之地, 頗有惜乾之歎, 晚秧漸看青潤, 木綿再鋤幾畢, 間耕各穀, 已經初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초7일부터 초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거제는 1려가 내렸고, 영해는 1서가 내렸고, 창녕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초7일의 비로 진주·단성은 1려가 내렸고, 대구는 1서가 내렸고, 창원·성주·초계·고성·경산·자인·안의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칠곡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되어가고 올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고 높고 메마른 땅은 자못 가물었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늦모는 점점 푸르게 윤이 나는 것이 보이고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09. 1863년(철종 14) 5월 19일(양력 7월 4일)

慶尙監營啓錄 1책(19a~19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3b~13c)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七日之雨, 前啓外, 咸安·昆陽·彦陽·鎮海等四邑, 川渠漲流, 慶州·寧海·豐基·長鬐·熊川等五邑得一犁, 金海得二鋤, 尙州·密陽·東萊·順興·永川·榮川·盈德·河陽·清河·高靈·新寧·迎日·靈山·機張等十四邑得一鋤, 蔚山·醴泉·湍塵而止,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在如中. 臣營下今七日巳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十八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是白如乎. 二日甘霖, 及時優洽, 爲民事誠切萬幸, 列邑均沾與否,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함안·곤양·언양·진해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주·영해·풍기·장가·웅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해는 2서가 내렸고, 상주·밀양·동래·순흥·영천·영천·영덕·하양·청하·고령·신녕·영일·영산·기장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울산·예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2일간 단비가 퍼부어 때맞춰 넉넉히 흠족해졌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에 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10. 1863년(철종 14) 5월 21일(양력 7월 6일)

慶尙監營啓錄 1책(19b~20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3c~13d)

今十七日以十八日至, 臣營下得雨四寸八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九日寅時又雨, 或霏或淫, 斷續無常, 二十日辰時乃止, 測雨器水器[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門[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 善啓向教是事.

이번 17일부터 1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9일 인시에 또 비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일정치 않다가 20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1. 1863년(철종 14) 5월 22일(양력 7월 7일)

慶尙監營啓錄 1책(20a~20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3d~13d)

今十九日以二十日至, 臣營下得雨一寸七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七日之雨, 大丘·漆谷·慶山·慈仁等四邑川渠漲流, 星州·善山·河陽·知禮等四邑得一犁, 清道得一鋤,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已盡登場, 春牟間或刈取, 早秧次第托根, 晚秧方始移插, 木綿三鋤, 間耕各穀, 再鋤麻臬, 連爲茁長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19일부터 20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17일의 비로 대구·칠곡·경산·자인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성주·선산·하양·지례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도는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리고 늦모는 막 옮겨심기 시작하고 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두벌 김매기를 하고 삼은 연이어 싹이 자랐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 0012. 1863년(철종 14) 5월 29일(양력 7월 14일)

慶尙監營啓錄 1책(20a~21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4a~14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七日之雨, 前啓外, 安東·尙州·靑松·永川·義城·新寧等六邑川渠漲流, 金山·龍宮·奉化等三邑得二犁, 慶州·仁同·醴泉·盈德·開寧·眞寶·玄風·禮安·迎日·英陽等十邑得一犁, 高靈·安義得二鋤, 寧海·居昌·咸陽·清河·比安等五邑得一鋤, 草溪浥塵而止,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十九日之雨, 星州·仁同·漆谷·順興·河陽·知禮等六邑江川漲溢, 防築潰缺, 依山近浦之地, 間多沈墊汰覆之患, 被災形止, 待水退更報計料是如是白遣. 慶州·安東·尙州·大丘·寧海·善山·居昌·清道·永川·榮川·金山·盈德·慶山·開寧·龍宮·彥陽·眞寶·咸昌·高靈·玄風·軍威·義興·新寧·迎日·長鬐·比安·英陽·聞慶等二十八邑川渠漲流, 興海·陝川·清河·昌寧·安義等五邑得一犁, 密陽·草溪·咸陽·靈山等四邑得二鋤, 晉州·蔚山·河東·咸安·昆陽·南海·宜寧·山淸·三嘉等九邑得一鋤, 金海·東萊·熊川等三邑浥塵而止, 其餘各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今二十八日未時始雨, 或霏或灑, 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1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안동·상주·청송·영천·의성·신녕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김산·용궁·봉화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경주·인동·예천·영덕·개령·진보·현풍·예안·영일·영양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령·안의는 2서가 내렸고, 영해·거창·함양·청하·비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계는 먼지를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19일의 비로 성주·인동·칠곡·순흥·하양·지례 등 6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제방이 터졌고 산자락이나 포구 가까운 곳은 그사이 물에 잠기거나 사태로 뒤덮이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주·안동·상주·대구·영해·선산·거창·청도·영천·영천·김산·영덕·경산·개령·용궁·언양·진보·함창·고령·현풍·군위·의흥·신녕·영일·장기·비안·영양·문경 등 28개 고을은 시

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홍해·합천·청하·창녕·안의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밀양·초계·함양·영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진주·울산·하동·함안·곤양·남해·의령·산청·삼가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김해·동래·웅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8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3. 1863년(철종 14) 6월 5일(양력 7월 20일)

慶尙監營啓錄 1책(22a~22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4c~14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前啓外, 金海段川渠漲滿, 阡陌汰落, 洛江潦水, 蔽野溯漲, 浦面舉皆沈墊, 禾稼致多受傷, 被災形止, 待水退更報計料是如是白遣. 寧海·咸陽·昌寧等三邑得一鋤, 東萊浥塵而止, 餘外諸邑, 姑無得雨之報是白在如中. 臣營下今初五日寅時始雨, 一場霏下, 間間霏灑, 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김해의 경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차서 논두둑이 사태로 떨어지고 낙동강의 넘실거리는 물이 들을 뒤덮고 거슬러 불어나서 포구 쪽은 대부분 잠겼고 벼는 손상입은 것이 많았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고, 영해·함양·창녕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동래는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5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주룩주룩 내리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4. 1863년(철종 14) 6월 10일(양력 7월 25일)

慶尙監營啓錄 1책(22b~23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5a~15b)

去月二十八日臣營下得雨四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十九日之雨,前啓外,梁山段,洛江溯漲停滯,田各穀隨處消融,無復蘇醒之望是如是白遣.青松·醴泉·義城·禮安·慈仁等五邑川渠漲流,豐基·奉化得二犁,固城·泗川得二鋤,昌原·巨濟·丹城·漆原等四邑得一鋤,鎭海·機張涸塵而止是如是白遣.二十八日之雨,大丘·宜寧得一鋤,餘外各邑,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春牟已盡登場,早秧次第向青,晚秧幾皆移插,木綿連加鋤治,間耕豆太黍粟,再鋤既畢,麻枲間或刈穫[穫],根耕各穀方始播種是如爲等如,牒呈是白乎等以.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지난달 28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양산의 경우, 낙동강의 물이 거슬러 불어나 고여서 밭의 각종 곡식이 곳곳마다 녹아 다시 되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청송·예천·의성·예안·자인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풍기·봉화는 2려가 내렸고, 고성·사천은 2서가 내렸고, 창원·거제·단성·칠원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해·기장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28일의 비로 대구·의령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타작하였고 올모는 차례로 푸르러가고 늦모는 거의 다 옮겨 심었고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고 사이같이하는 콩·팥과 기장·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삼은 간혹 베어 수확하였고,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5. 1863년(철종 14) 6월 12일(양력 7월 27일)

慶尙監營啓錄 1책(23a~23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5b~15c)

今初五日臣營下得雨一寸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尙州·大丘·漆谷·淸道·永川·醴泉·咸安·宜寧·彥陽·高靈·玄風·丹城·義興·慈仁等十四邑川渠漲流,星州·金海·善山·仁同·固城·義城·安義等七邑得二犁,晉州·密陽·慶山·河陽等四邑得一犁,咸陽·開寧得二鋤,昌原·東萊·迎日等三邑得一鋤,蔚山浥塵而止,餘外各邑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早稻方始初鋤,晚稻漸看托根,木綿及豆太黍粟連加青茁,麻臬已盡刈穫[穫],根耕各穀次第出土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去月十七日以後,雨澤頻仍,而列邑◆[所]得,多寡不同,沈墊之處,間有受傷,鋤犁之地,尙患未移,言念民事,誠爲悶然.及時代播之節,今方各別申飭爲白乎旃,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초5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상주·대구·칠곡·청도·영천·예천·함안·의령·언양·고령·현풍·단성·의령·자인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성주·김해·선산·인동·고성·의성·안의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밀양·경산·하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양·개령은 2서가 내렸고, 창원·동래·영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울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늦벼는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보이고 목화 및 콩·팥과 기장·조는 연이어 싹이 나 푸르렀고 삼은 이미 다 베어 수확하였고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지난달 17일 이후로 우택이 빈번하였지만 여러 고을에 내린 양이 같지 않아 물에 잠긴 곳은 그 사이에 손상을 입은 것이 있고 1서·1려가 내린 지역은 아직 옮기심지 못해 근심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때맞춰 대신 씨앗을 뿌리는 사항을 지금 막 각별히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6. 1863년(철종 14) 6월 17일(양력 8월 1일)

慶尙監營啓錄 1책(26a~26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7b~17c)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五日之雨, 前啓外, 河東段, 蟾津·舟橋·橫川三水竝漲, 七面沈沒, 田畚各穀, 間多受傷是如是白遣, 草溪段, 洛江沈浦, 各穀多損, 水退後代播之節, 各別申飭是如是白遣. 順興·榮川·豐基·昆陽·金山·鎭海·山淸·軍威·昌原·泗川·三嘉·漆原等十二邑, 川渠漲流, 南海·新寧·聞慶等三邑得二犁, 慶州·安東·龍宮·禮安·長鬐等五邑得一犁, 寧海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三日巳時始雨, 或霏或灑, 斷續無常, 十六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5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하동의 경우, 섬진강, 주교강, 횡천강의 세 물줄기가 모두 불어나 7개 면이 물에 잠겨 논밭의 각종 곡식은 그사이 손상을 입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초계의 경우, 낙동강 주변 포구가 물에 잠겨 각종 곡식의 피해가 많았고 물이 빠진 뒤 대신 씨앗을 뿌리는 사항을 각별히 단단히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순흥·영천·풍기·곤양·김산·진해·산청·군위·창원·사천·삼가·칠원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남해·신녕·문경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경주·안동·용궁·예안·장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해는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일정치 않았고 16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7. 1863년(철종 14) 6월 19일(양력 8월 3일)

慶尙監營啓錄 1책(26b~26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7c~17d)

今十三日以十六日至, 臣營下得雨二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尙州·大丘·醴泉·玄風·三嘉等五邑川渠漲流, 慶山·義興得二犁, 慶州·星州·清道·河陽等四邑得一犁, 草溪·靈山得二鋤, 昌原·蔚山·東萊等三邑得一鋤, 晉州湍塵而止,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八日申時又雨, 一直霑下, 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13일부터 1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상주·대구·예천·현풍·삼가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산·의흥은 2려가 내렸고, 경주·성주·청도·하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초계·영산은 2서가 내렸고, 창원·울산·동래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 0018. 1863년(철종 14) 6월 22일(양력 8월 6일)

慶尙監營啓錄 1책(27a~27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7d~18a)

今十八日臣營下得雨一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十三日之雨,前啓外,禮安段,江川大漲,急濤所激,家舍之漂頽,田畝之汰覆,所見慘酷,被災形止,待水退更報計料是如是白遣.密陽·善山,江水漲溢,防築潰缺,浦面舉皆沈墊,各穀亦多傷損是如是白遣.漆谷·永川·咸安·義城·奉化·鎭海·高靈·丹城·軍威·迎日·比安·慈仁·漆原等十三邑,川渠漲流,彥陽得二犁,金山·開寧·宜寧·長鬐·安義等五邑得一犁,居昌·咸陽·南海等三邑得二鋤,巨濟得一鋤是白遣.十八日之雨,星州·大丘得二犁,餘外諸邑,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早稻初鋤幾畢,晚稻次第向青,木綿及豆太黍粟,近因頻雨,間有惱損,根耕各穀,方始立苗是如爲等如,牒呈是白乎等以.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18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예안의 경우, 강과 시내가 크게 불어나 급한 물결이 몰아쳐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논밭은 사태로 뒤덮여 보기에 참혹하였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밀양·선산은 강물이 불어나 넘치고 제방이 터져 포구 쪽은 대부분 잠겨 각종 곡식도 또한 손상입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칠곡·영천·함안·의성·봉화·진해·고령·단성·군위·영일·비안·자인·칠원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언양은 2려가 내렸고, 김산·개령·의령·장가·안의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창·함양·남해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거제는 1서가 내렸습니다. 18일의 비로 성주·대구는 2려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차례로 푸르러가고 목화 및 콩·팥과 기장·조는 요즘 빈번한 비로 그사이 큰 손상을 입은 것이 있고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마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19. 1863년(철종 14) 7월 4일(양력 8월 17일)

慶尙監營啓錄 1책(28a~28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18b~18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三日之雨, 禮安段, 宜東面民家頽壓爲十二戶, 人命壓死爲一名是如, 水退後形止, 摘奸更報是白遣. 前啓外, 安東段, 江川漲溢, 堤築潰缺, 田野盡入懷裏, 閭閻間多沈墊, 北面瓮泉里場基, 家舍漂頽十八戶, 人命淪·壓死七命內, 已拯六命, 未拯一名是如是白遣. 順興·榮川·梁山·陝川·眞寶·咸昌·熊川·英陽等八邑段, 江川汎濫, 間多沈墊汰覆之患是如是白遣. 寧海·昆陽·盈德·知禮·新寧·聞慶等六邑川渠漲流, 金海·河東·龍宮等三邑得二犁, 清河得一犁, 固城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十八日之雨, 慶州段, 江川漲溢, 浦面舉皆沈墊, 田畚間多汰覆是如是白遣. 晉州·密陽·順興·清道·永川·盈德·新寧·慈仁·英陽等九邑川渠漲流, 河陽·迎日得一犁, 金海·奉化得二鋤, 蔚山·東萊·慶山·義興等四邑得一鋤, 其餘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方張再鋤, 晚稻次第初鋤, 木綿間或開花, 豆太黍粟漸看茁長, 根耕各穀, 間間鋤培, 木麥方始耕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今初二日戌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初三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是白乎旆. 去月之雨, 依山近沿之邑, 偏被其災, 民家漂頽, 人命淪死之若是夥然, 尤爲慘憐. 元恤典依例題給後, 已拯屍申飭厚埋, 未拯屍連加搜拯, 漂頽戶結構奠接之方, 另加題飭爲白乎旆. 恤典成冊, 迫于修正上送于常賑廳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3일의 비로 예안의 경우, 의동면의 무너진 백성 집이 12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이라고 물이 빠진 뒤 경위를 캐내어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안동의 경우,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 제방이 터졌고 밭과 들판은 다 물속에 싹잠겼고 백성 집은 그사이 물에 잠긴 것이 많았고 북면 웅천리 장터의 떠내려 가거나 무너진 집이 18가구이고,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7명인데 그중에 이미 건진 것은 6명이고 미처 건지지 못한 것이 1명이라고 합니다. 순흥·영천·양산·함천·진보·함창·웅천·영양 등 8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그사이 물에 잠기거나 사태로 뒤덮

일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영해·곤양·영덕·지례·신녕·문경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김해·하동·용궁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청하는 1려가 내렸고, 고성 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18일의 비로 경주의 경우,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 물가 쪽은 대부분 물에 잠겨 논밭은 간혹 사태로 뒤덮인 것이 많다고 합니다. 진주·밀양·순흥·청도·영천·영덕·신녕·자인·영양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하양·영일은 1려가 내렸고, 김해·봉화는 2서가 내렸고, 울산·동래·경산·의흥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해 온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차례로 초벌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콩·팥과 기장·조는 점점 싹이 자라는 것이 보이고 그루같이 한 각종 곡식은 간간이 김매기를 하며 땅을 복돋고 메밀은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2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3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지난달의 비로 산자락이나 물가 근처의 고을은 심하게 재해를 입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빠져 죽은 사람이 이처럼 많으니, 더욱 참혹하고 가련합니다.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후 이미 건진 시체는 단단히 지시하여 후하게 장사지내게 하고, 미처 건지지 못한 시신은 연이어 수색해 건지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집을 지어주고 편안히 지낼 방법을 별도로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홀전 성책은 나중에 바르게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0. 1863년(철종 14) 7월 16일(양력 8월 29일)

慶尙監營啓錄 1책(36a~37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3c~24a)

道內農形及今初二日以初三日至, 臣營下得雨一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八日之雨, 昌寧川渠漲流, 清河得一犁,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今初二三日之雨, 慶州段, 風雨掀蕩, 海濤飜空, 方苗禾穀, 舉被傷損, 沿浦民家頽壓爲一百九戶, 人命壓死爲一名是如是白遣. 長鬐段, 急雨飜盆, 狂風拔屋, 受傷各穀, 無望更蘇, 民家頽壓爲四十四戶是如是白遣. 尙州·蔚山·寧海·青松·東萊·梁山·陝川·盈德·開寧·宜寧·彥陽·知禮·迎日·靈山·熊川·英陽等十六邑, 風雨交作, 江川汎濫, 堤汎舉皆潰缺, 田畚間多汰覆, 而其中盈德, 至有民家漂頽, 人命壓死之患, 待水退更報計料是如是白遣. 密陽·順興·居昌·永川·咸安·昆陽·慶山·高靈·三嘉·漆原等十邑川渠漲流, 南海·軍威·新寧等三邑得二犁, 晉州·星州·大丘·金海·仁同·漆谷·河東·巨濟·清道·醴泉·榮川·豐基·固城·義城·河陽·奉化·清河·鎭海·丹城·義興·禮安·泗川·安義等二十三邑得一犁, 昌原·善山·草溪·咸陽·金山·機張等六邑得二鋤, 安東·龍宮·慈仁等三邑得一鋤, 其餘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幾盡三鋤, 方張胚胎, 晚稻次第再鋤, 木綿早顆方結, 晚花始開. 而惱雨傷風, 受損不少, 早豆太起花結殼, 早黍粟漸向茁茂, 晚豆太黍粟再鋤伊始, 木麥間或出土, 機張蟲災熾發, 汚下之處, 間多全棄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今十二日亥時始雨, 一直雩霽, 間間霏灑, 十三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是白乎旆. 近日風雨過中, 災瘁迭興, 田畚各穀, 不知減却幾分, 言念民事, 已極憂悶. 而沿海之邑, 被災偏酷, 民家頽壓, 人命壓死, 尤不勝驚慘. 元恤典依例題給後, 壓死人段, 申飭厚埋, 頽壓戶段, 借材助丁, 從速結構, 不日入處之意, 另飭各該邑爲白乎旆. 恤典成冊, 迫于修正上送于常賑廳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초2일부터 초3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8일의 비로 창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청하는 1려가 내렸고, 그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초2일·3일의 비로 경주의 경우,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바다의 큰 물결이 허공에 뒤집혀 막 짝이 난 벼 곡식은 거의 손상을 입었고 물가나 포구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109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이라고 합니다. 장기의 경우, 갑작스런 비가 동이를 뒤집어 쏟듯이 내리고 미친 듯 부는 바람이 집을 뽑아버렸고 각종 곡식은 손상입은 각종 곡식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44가구라고 합니다. 상주·울산·영해·청송·동래·양산·합천·영덕·개령·의령·언양·지례·영일·영산·웅천·영양 등 16개 고을은 바람과 비가 번갈아 일어나고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제방과 보가 대부분 터져 논밭이 그사이 사태로 뒤덮인 것이 많았고, 그 가운데 영덕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빠져 죽는 근심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밀양·순흥·거창·영천·함안·곤양·경산·고령·삼가·칠원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남해·군위·신녕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성주·대구·김해·인동·칠곡·하동·거제·청도·예천·영천·풍기·고성·의성·하양·봉화·청하·진해·단성·의흥·예안·사천·안의 등 2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선산·초계·함양·김산·기장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동·용궁·자인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벼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때이르게 다래가 막 맺혔고 때늦게 꽃이 피기 시작하였지만 비에 시달리고 바람에 손상되고 입은 손실이 적지 않고, 올콩·올팍은 꽃이 피고 꼬투리를 맺고 올기장·올조는 점점 짝이 무성해지고 늦콩·늦팍과 늦기장·늦조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고 메밀은 그사이 짝이 땅 밖으로 나왔고 기장은 벌레 재해가 세차게 발생하여 낮은 곳은 간혹 완전히 포기한 것이 많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2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퍼붓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3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요즘에 비바람이 지나치게 심해 재해가 번갈아 일어나서 논밭의 각종 곡식이 줄어든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이미 근심되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닷가의 고을은 입은 재해가 심하게 혹독하고 백성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었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깔려죽은 사람의 경우 단단히 지시하여 넉넉하게 장사지내고 무너진 가구의 경우 목재를 빌려 주고 일꾼을



도와주어 속히 집을 지어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 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각 해당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홀전 정책은 나중에 바르게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1. 1863년(철종 14) 7월 24일(양력 9월 6일)

慶尙監營啓錄 1책(37b~38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4c~25a)

道內農形及今十二日以十三日至, 臣營下得雨一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八日之雨, 盈德段, 民家漂頽, 東面爲一百四十四戶, 南面爲五十四戶, 人命壓死爲五名是如, 水退後形止, 迫于報來是白遣. 今初二三日之雨, 山清川渠漲流, 興海·昌寧得二犁, 眞寶·咸昌·玄風·比安·聞慶等五邑得一犁是白遣. 十二三日之雨, 慶州·安東·蔚山·金海·寧海·密陽·青松·東萊·漆谷·清道·草溪·永川·興海·梁山·咸安·陝川·盈德·慶山·南海·宜寧·彥陽·鎭海·知禮·高靈·玄風·軍威·禮安·迎日·長鬐·三嘉·比安·慈仁·英陽·漆原等三十四邑川渠漲流, 大丘·善山·固城·河陽等四邑得二犁, 尙州·晉州·星州·仁同·巨濟·醴泉·榮川·龍宮·奉化·清河·丹城·義興·新寧·昌寧等十四邑得一犁, 居昌·咸陽·機張等三邑得二鋤, 河東·金山·山清·熊川等四邑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次第發穗, 晚稻三鋤幾畢, 早豆太間或入實, 早黍粟方張胚胎, 晚豆太黍粟已盡三鋤, 而屢沈之處, 間多受損, 無望更蘇. 木綿備經風雨, 顆囊零星, 木麥漸看向青, 代播諸種, 節序將催, 難期善就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 冷雨稍過, 淒風連吹, 早晚各穀, 添瘁可慮, 沿江各邑之汰覆浦落者, 比比有之, 誠切憂悶是白乎旆. 盈德漂頽戶之若是夥多, 壓死人之至於五名, 極爲慘矜是白如乎, 元恤典依例題給, 亦自臣營別加顧助, 使卽厚埋, 從速結〈構〉奠接之意, 另飭該縣. 恤典成冊, 迫于修正上送于常賑廳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12일부터 13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8일의 비로 영덕의 경우,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 중 동면이 144가구이고, 남면이 54가구이고, 깔려 죽은 사람은 5명이며 물이 빠진 후 경위를 나중에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 초2일·초3일의 비로 산청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흥해·창녕은 2려가 내렸고, 진보·함창·현풍·비안·문경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12·13일의 비로 경주·안동·울산·김해·영해·밀양·청송·동래·칠곡·청도·초계·영천·흥해·양산·함안·합천·영덕·경산·

남해·의령·언양·진해·지례·고령·현풍·군위·예안·영일·장기·삼가·비안·자인·영양·칠원 등 3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대구·선산·고성·하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상주·진주·성주·인동·거제·예천·영천·용궁·봉화·청하·단성·의흥·신녕·창녕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창·함양·기장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하동·김산·산청·웅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콩·올팍은 간혹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콩·늦팍과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여러 차례 물에 잠긴 곳은 그사이 손상입은 것이 많고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고 목화는 비바람을 갖가지로 겪어 수효가 매우 적고 메밀은 점점 푸르러가는 것이 보이고 대신 씨앗을 뿌린 여러 종자는 절기가 앞으로 닥쳐오면 잘 여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찬비가 다소 지나치고 차가운 바람이 연이어 불어 이르거나 늦은 각종 곡식이 더 병이 드는 것이 걱정스럽고 강가의 각 고을은 사태로 뒤덮이고 두둑이 떨어져나간 것이 흔히 있으니 정말로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영덕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가 이처럼 수효가 많고 깔려 죽은 사람이 5명에 이르렀으니 그지없이 참혹하고 가엾습니다.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고 또한 신의 감영에서 별도로 도와주고 즉시 후하게 장사지내고 속히 집을 지어 편안히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홀전 성책은 나중에 바르게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2. 1863년(철종 14) 8월 4일(양력 9월 16일)

慶尙監營啓錄 1책(40a~40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5c~25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初二三日之雨, 順興·南海川渠漲流, 巨濟得一犁,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早稻方治垂穎, 早黍粟次第發穗, 早豆太幾至成實, 晚稻晚黍已盡胚胎, 晚豆太起花結殼, 木綿間綻白, 木麥方張開花, 代播諸種漸看茁茂. 機張段, 蟲災間已止熄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초2일·3일의 비로 순흥·남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거제는 1려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막 고개를 숙이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콩·올팍은 거의 알맹이가 영글었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알을 배었고 늦콩·늦팍은 꽃이 피고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간간이 다래가 하얗게 벌어졌고 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대신 씨앗을 뿌린 여러 종자는 점점 싹이 무성해지는 것이 보이고, 기장의 경우, 벌레재해가 그사이 이미 그쳤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23. 1863년(철종 14) 8월 9일(양력 9월 21일)

慶尙監營啓錄 1책(40b~40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5d~25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初八日辰時始雨, 或灑或霏, 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追于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8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4. 1863년(철종 14) 8월 16일(양력 9월 28일)

慶尙監營啓錄 1책(43a~43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7b~27c)

今初八日臣營下得雨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固城·安義得二鋤,晉州·大丘·金海·漆谷·宜寧·丹城等六邑得一鋤,陝川浥塵而止,餘外諸邑,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早稻次第入實,早黍粟方張垂穎,早豆太漸次向孰,晚稻·晚黍粟已盡發穗.而至若高燥處最晚移之稻,所見昂莊,多有直立,晚豆太間或入實,木綿綻白稀疏,摘取零星,木麥方始結殼是如爲等如,牒呈是白在如中.臣營下今十四日寅時始雨,或霏或灑,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列邑所得多寡,待其報來,迫于登聞計料是白乎旆.近來日候調曝,早種雖幸稍熟,涼意太催,晚稼恐難成實,言念民事,誠爲悶然.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초8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고성·안의는 2서가 내렸고, 진주·대구·김해·칠곡·의령·단성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합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차례로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고개를 숙이고 올콩·올팍은 점차 익어가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패었고 높고 메마른 곳의 가장 늦게 옮겨 심은 벼는 보기에 양상하게 곳곳이 서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늦콩·늦팍도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하얗게 다래가 벌어진 것은 드물고 따서 거둔 것은 얼마 안되고 메밀은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4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근래 날씨가 알맞게 해가 쪼여 이른 종자는 비록 다행히 다소 익었지만 찬 기운이 지나치게 빨리 닥쳐서 늦곡식은 알맹이가 영글기 어려울 듯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25. 1863년(철종 14) 8월 17일(양력 9월 29일)

慶尙監營啓錄 1책(45a~45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28c~28c)

道內農形及今十四日臣營下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是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八日之雨, 前啓外, 南海川渠漲流, 東萊涸塵而止是白遣. 十四<日>之雨, 漆谷得一犁, 尙州·星州·大丘·永川等四邑得一鋤, 慈仁涸塵而止,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今十六日辰時又雨, 或霏或灑, 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1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동래는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14일의 비로 칠곡은 1려가 내렸고, 상주·성주·대구·영천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자인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6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6. 1863년(철종 14) 8월 25일(양력 10월 7일)

慶尙監營啓錄 1책(48b~49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30b~30c)

今十六日臣營下得雨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初八日之雨,前啓外,昆陽得一犁,龍宮涸塵而止是白遣.十四日之雨,前啓外,南海得一犁,安東·巨濟·固城·開寧等四邑得一鋤,咸安·宜寧·漆原等三邑涸塵而止,餘外諸邑,俱無得雨之報是白遣.十六日之雨,漆谷·永川·咸安·南海·鎭海·玄風等六邑得一犁,河東·丹城得二鋤,晉州·大丘·東萊·慶山·新寧·泗川·慈仁等七邑得一鋤,其餘各邑,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早稻間或刈取,早黍粟方張入實,晚稻次第垂穎.而未發直立者,已多全棄,晚黍粟所見婆娑,無望食實,早晚豆太次第成熟,木綿摘取無幾,木麥漸看就實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當此各穀成熟之時,冷雨頻仍,淒風連吹,各穀之減損不少,列邑之災報相續,言念民事,去益憂悶.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16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곤양은 1려가 내렸고, 용궁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1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해는 1려가 내렸고, 안동·거제·고성·개령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함안·의령·칠원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16일의 비로 칠곡·영천·함안·남해·진해·현풍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하동·단성은 2서가 내렸고, 진주·대구·동래·경산·신녕·사천·자인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늦벼는 차례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미처 이삭이 패지 못하여 곳곳이 서 있는 것은 이미 전부 못 쓰게 된 것이 많고, 늦기장·늦조는 보기에 알맹이가 부실해서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고, 올팔·올콩과 늦팔·늦콩은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솜을 따서 거두고 메밀은 점점 여무는 것이 보인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어가는 때에 찬비가 자주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연이어 불어 각종 곡식의 줄어드는 손해가 적지 않고 여러 고을의



재해 보고가 서로 계속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7. 1863년(철종 14) 8월 30일(양력 10월 12일)

慶尙監營啓錄 1책(49a~49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1책(30c~30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六日之雨, 前啓外, 昆陽〈得〉二犁, 陝川·固城·安義等三邑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早稻方張刈穫, 早黍粟次第成熟, 晚稻·晚黍粟漸看入實, 尙未充完, 早晚豆太幾皆黃熟, 間或折取, 木綿摘取, 去益零星, 木麥將至堅實是如是白在如中. 豐基二十一日青松·知禮·高靈二十四日, 奉化二十五日, 大丘二十九日夜, 霜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淒吹冷灑之餘, 霜信遽催, 晚稼既失全功, 木綿已判近歉, 言念民情, 誠甚憂悶. 謹當詳細摘奸, 區別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1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곤양은 2려가 내렸고, 합천·고성·안의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베어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벼와 늦기장·늦조는 점점 알이 차는 것이 보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충실하지는 않았고 올콩·올팥과 늦콩·늦팥은 거의 다 누렇게 익어 간혹 베어 거두고 묵화는 따서 거둘 것이 갈수록 드물고 메밀은 장차 열매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풍기는 21일에, 청송·지례·고령은 24일에, 봉화는 25일에, 대구는 2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찬비가 뿌린 끝에 서리 소식이 갑자기 닥쳐와서 늦곡식은 이미 모든 공이 잃었고, 묵화는 이미 거의 흉년으로 관가름이 났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삼가 다땅히 자세하게 캐내고 구별하여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28. 1872년(고종 9) 2월 17일(양력 3월 25일)

慶尙監營啓錄 3책(22a~22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295b~295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十七日丑時始雨, 或霏或霏, 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7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29. 1872년(고종 9) 2월 24일(양력 4월 1일)

慶尙監營啓錄 3책(27a~27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299b~299b)

今十七日, 臣營下得雨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大丘得二鋤, 金山得一鋤, 星州·永川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漸向青潤, 春牟幾盡耕播, 畚庫初翻耕伊始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三日酉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二十四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追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17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대구는 2서가 내렸고, 김산은 1서가 내렸고, 성주·영천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점 푸르러가 윤이 나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3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0. 1872년(고종 9) 2월 28일(양력 4월 5일)

慶尙監營啓錄 3책(27b~28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299c~299d)

道內農形, 及今月二十三日, 臣營下得雨九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慶州·泗川得二犁, 大丘·昆陽·河陽·軍威·慈仁等五邑得一犁, 安東·蔚山·清道等三邑得二鋤, 晉州·星州·密陽·仁同·漆谷·順興·興海·草溪·陝川·盈德·慶山·開寧·宜寧·奉化·彥陽·丹城·義興·迎日·機張·三嘉等二十邑得一鋤, 尙州·高靈·玄風·新寧等四邑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七日亥時始雨, 或霏或霨, 二十八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달 2월 23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경주·사천은 2려가 내렸고, 대구·곤양·하양·군위·자인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동·울산·청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진주·성주·밀양·인동·칠곡·순흥·홍해·초계·합천·영덕·경산·개령·의령·봉화·연양·단성·의흥·영일·기장·삼가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주·고령·현풍·신녕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7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8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1. 1872년(고종 9) 3월 1일(양력 4월 8일)

慶尙監營啓錄 3책(29a~29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0a~300b)

道內雨澤, 及去月二十七日以二十八日至, 臣營下得雨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三日之雨, 前啓外, 寧海·青松·東萊·巨濟·永川·梁山·南海·靈山等八邑得一鋤, 居昌·醴泉·湍塵. 二十七日之雨, 大丘·清道·永川等三邑得一鋤, 慶山·湍塵. 餘外諸邑, 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去二十九日申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三十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 而陰雲尙濃, 雨意未解是白如乎, 春雨頻仍, 田疇沮洳, 秋牟之纔爲蘇醒者, 不無惱損之慮, 爲民事預切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영해·청송·동래·거제·영천·양산·남해·영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거창·예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7일의 비로 대구·청도·영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경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29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30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아직 짙고 비올 조짐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빈번하게 내려 밭두둑이 축축하고 가을보리 중 겨우 되살아난 것이 큰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미리 매우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2. 1872년(고종 9) 3월 4일(양력 4월 11일)

慶尙監營啓錄 3책(29a~29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0b~300c)

去月二十九日以三十日至, 臣營下得雨一寸七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三日之雨, 前啓外, 漆原得一犁, 咸安·義城·鎭海等三邑得一鋤, 善山·咸陽浥塵. 二十七日之雨, 前啓外, 昆陽得一犁, 慶州·蔚山·寧海·青松·仁同·河陽·鎭海等七邑得一鋤, 晉州·東萊·玄風等三邑浥塵. 二十九日之雨, 咸安·義城·慶山等三邑川渠連流, 大丘得一犁, 慶州·漆谷得一犁, 星州得二鋤, 知禮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漸看青茁, 春牟次第出土, 畚庫初翻耕幾畢, 麻桌間或耕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一日辰時又雨, 或霏或灑, 斷續無常, 初三日辰時以後, 一直霏下, 初四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寸六分是白如乎. 前雨過中, 今霏又添, 毋論春秋牟麥, 爲害不少, 爲民事誠切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는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칠원은 1려가 내렸고, 함안·의성·진해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선산·함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곤양은 1려가 내렸고, 경주·울산·영해·청송·인동·하양·진해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주·동래·현풍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9일의 비로 함안·의성·경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대구는 2려가 내렸고, 경주·칠곡은 1려가 내렸고, 성주는 2서가 내렸고, 지례는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점 푸르게 싹이 보이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삼은 간혹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일 진시에 또 비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일정치 않다가 초3일 진시 이후로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6푼이었습니다. 이전에 내린 비가 한도를 지나친데다 이번에 주룩주룩 비가 또 보태어져 봄보리·가을보리를

따질 것 없이 피해가 적지 않아, 백성의 사정상 정말로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3. 1872년(고종 9) 3월 7일(양력 4월 14일)

慶尙監營啓錄 3책(29b~30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0c~300d)

道內農形, 及今初一日以初四日至, 臣營下得雨八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三日之雨, 前啓外, 河東得一鋤. 二十七日之雨, 前啓外, 三嘉·彥陽得一鋤, 安義·浥塵. 二十九日之雨, 前啓外, 南海得二犁, 青松·仁同·陝川·金山·開寧·河陽·眞寶·新寧·靈山等九邑得一犁, 昌原·善山·龍宮·咸昌等四邑得一鋤. 初一日之雨, 晉州·星州·大丘·仁同·漆谷·草溪·永川·金山·慶山·開寧·河陽·鎭海·高靈·玄風·軍威·義興·新寧·昌寧·慈仁等十九邑川渠漲流, 咸昌·比安得二犁, 密陽·龍宮得一犁, 安東得二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六日亥時始雨, 初七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春雨便成長霖, 淒風加以連吹, 牟麥之方苗者, 多有蹲縮之慮. 言念民事, 預切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이번 초1일부터 초4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8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2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하동은 1서가 내렸습니다. 2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삼가·언양은 1서가 내렸고, 안의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남해는 2려가 내렸고, 청송·안동·함천·김산·개령·하양·진보·신녕·영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선산·용궁·함창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1일의 비로 진주·성주·대구·인동·칠곡·초계·영천·김산·경산·개령·하양·진해·고령·현풍·군위·의흥·신녕·창녕·자인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함창·비안은 2려가 내렸고, 밀양·용궁은 1려가 내렸고, 안동은 2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6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7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봄비가 바로 긴 장마가 되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연이어 불어서 막 짝이 자라던 보리가 오그라들 우려가 많이 있어,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미리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4. 1872년(고종 9) 3월 16일(양력 4월 23일)

慶尙監營啓錄 3책(32a~32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2c~33a)

今初六日以初七日至, 臣營下得雨八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九日之雨, 前啓外, 彥陽·三嘉川渠漲滿, 蔚山·巨濟·梁山·宜寧等四邑得一犁, 咸陽·山淸·丹城·安義等四邑得二鋤, 尙州·醴泉·興海·延日·靈山·三嘉等六邑得一鋤, 順興·禮安溫塵. 今初一日之雨, 前啓外, 尙州·金海·河東·咸安·宜寧·泗川·漆原等七邑, 江川汎濫, 沿浦之牟麥, 盡入沈沒, 慶州·蔚山·寧海·靑松·東萊·善山·居昌·淸道·榮川·豐基·梁山·昆陽·陝川·盈德·義城·南海·彥陽·眞寶·知禮·山淸·禮安·迎日·靈山·三嘉·英陽·聞慶等二十六邑, 川渠漲滿, 昌原得二犁, 咸陽·醴泉·淸河·丹城·機張·熊川等六邑得一犁. 初一日之雨, 慶州·金海·漆谷·淸道·草溪·昆陽·慈仁等七邑, 川渠漲滿, 昌原·大丘·蔚山·密陽·仁同·龍宮·咸昌·安義等八邑得一犁, 尙州·咸陽·河陽·鎭海·聞慶等五邑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漸向茁茂, 春牟已盡立苗, 而汚下被浸處, 貼泥蹲縮, 蘇醒無期, 雖高燥之地, 舉皆惱雨萎黃. 畚庫再翻耕伊始, 秧板次第貯水, 麻臬幾盡耕播, 木綿田疇沮洳, 不得播種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三日戌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十六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 雨水頻仍, 田事多件, 春牟·秋麥, 受損不少. 言念民事, 誠甚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6일부터 초7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언양·삼가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울산·거제·양산·의령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양·산청·단성·안의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상주·예천·홍해·연일·영산·삼가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순흥·예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초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상주·김해·하동·함안·의령·사천·칠원 등 7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물가 주변의 보리가 다 물에 잠겼고, 경주·울산·영해·청송·동래·선산·거창·청도·영천·풍기·양산·곤양·합천·영덕·의성·남해·언양·진보·지례·산청·예안·영일·영산·삼가·영양·문경 등 2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창원은 2려가 내렸고,

함양·예천·청하·단성·기장·웅천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창원·대구·울산·밀양·인동·용궁·함창·안의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주·함양·하양·진해·문경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점 싹이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으나 물에 잠겼던 지대가 낮은 곳은 진흙이 붙어 오그라들어 되살아날 기약이 없고 비록 높고 건조한 땅이더라도 거의 다 비에 시달려 누렇게 시들고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시작하였고, 못자리는 차례로 물을 대고 삼은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목화는 발두둑이 축축해서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16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비가 빈번하게 내려 밭농사에 일이 많고 봄보리와 가을보리가 손상을 입을 것이 적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5. 1872년(고종 9) 3월 22일(양력 4월 29일)

慶尙監營啓錄 3책(36b~37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5d~306a)

道內農形, 及今十三日以十六日至, 臣營下得雨二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一日之雨, 前啓外, 順興·長鬐, 川渠漲滿, 巨濟·興海得二犁. 初六日之雨, 前啓外, 巨濟段, 江川汎濫, 防築潰缺, 汚下處牟麥, 沈沒萎黃. 晉州·順興·眞寶·泗川等四邑, 川渠漲滿, 比安得一犁. 十三日之雨, 宜寧段, 江川汎濫, 沿浦汚下處, 更爲被沈, 牟麥多有消瀝, 無望蘇醒. 昌原·尙州·大丘·密陽·東萊·漆谷·清道·慶山·開寧·河陽·高靈·玄風·山淸·義興·新寧·三嘉·慈仁等十七邑, 川渠漲滿, 慶州·善山·梁山·南海·丹城等五邑得二犁, 晉州·金海·安義等三邑得一犁, 知禮·熊川得二鋤, 星州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一日辰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二十二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 爲一寸二分是白如乎. 前雨頻仍, 今霏又霑, 無論燥濕之地, 春秋·牟麥, 多有受損. 言念民事, 誠切悶然.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13일부터 1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순흥·장기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거제·홍해는 2려가 내렸습니다. 초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거제는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제방이 터져 우묵한 곳의 보리가 물에 잠겨 누렇게 시들었고, 진주·순흥·진보·사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비안은 1려가 내렸습니다. 13일의 비로 의령의 경우,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물가 주변이 다시 물에 잠겨 보리가 녹아버린 것이 많이 있어 되살아날 가망이 없고, 창원·상주·대구·밀양·동래·칠곡·청도·경산·개령·하양·고령·현풍·산청·의흥·신녕·삼가·자인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경주·선산·양산·남해·단성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김해·안의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지례·웅천은 2서가 내렸고, 성주는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

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22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이전에 비가 빈번히 내린 데다가 지금 주룩주룩 내려서 또 적셔주니, 건조하거나 축축한 땅을 따질 것 없이 봄보리·가을보리가 손상을 입은 것이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6. 1872년(고종 9) 3월 26일(양력 5월 3일)

慶尙監營啓錄 3책(37a~38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6b~306d)

今二十一日以二十二日至, 臣營下, 得雨一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六日之雨, 前啓外, 醴泉得一犁, 十三日之雨, 前啓外, 咸安·昌寧, 前水未退, 今雨添漲, 沿浦牟麥, 盡入沈沒, 更無蘇醒之望. 安東·蔚山·寧海·青松·仁同·永川·醴泉·榮川·豐基·昆陽·盈德·義城·龍宮·鎭海·眞寶·咸昌·軍威·禮安·靈山·英陽·聞慶等二十一邑, 川渠漲滿, 興海·清河·迎日·比安等四邑得二犁, 河東·長鬐得一犁, 居昌·機張·咸陽等三邑得二鋤. 二十一日之雨, 慶州·大丘·青松·善山·仁同·漆谷·清道·永川·昆陽·金山·慶山·奉化·玄風·山淸·義興·三嘉·慈仁·聞慶等十八邑, 川渠漲滿, 星州·清河·新寧·靈山等四邑得二犁, 昌原·蔚山·河陽·迎日·比安等五邑得一犁, 居昌·咸昌得二鋤, 鎭海·禮安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方張胚胎, 春牟漸向青茁, 而沿浦汚下處, 再被沈墊, 無望生全, 峽面牟麥, 舉皆惱雨蹲縮, 所見昂莊. 畝庫再翻耕幾畢, 早秧方始注種. 麻桑漸次出土, 而被沈處間多消灑, 木綿間或播種, 而畦塍沮洳, 多有未及耕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立夏已屆, 綿耕差遲, 春秋牟麥, 受損不少, 言念民事, 預切悶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21일부터 22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이번 초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예천은 1려가 내렸습니다.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함안·창녕은 앞서 내린 빗물이 미처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 지로 더 불어나 물가 주변의 보리가 다 물에 잠겨 다시 되살아날 가망이 없고, 안동·울산·영해·청송·인동·영천·예천·영천·풍기·곤양·영덕·의성·용궁·진해·진보·함창·군위·예안·영산·영양·문경 등 2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홍해·청하·영일·비안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하동·장기는 1려가 내렸고, 거창·기장·함양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21일의 비로 경주·대구·청송·선산·인동·칠곡·청도·영천·곤양·김산·경산·봉화·현풍·산청·의흥·삼가·자인·문경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성주·청하·신녕·영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창원·울산·하양·영일·비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창·함창은 2서가 내렸

고, 진해·예안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점점 푸르게 싹이 나고 물가 주변의 지대가 낮은 곳은 다시 물에 잠겨 온전히 살아날 가망이 없고, 골짜기쪽의 보리는 거의 다 비에 시달려서 오그라들어 보기에 앙상하고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거의 마쳤고 일찍 모낼 것은 막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기 시작하였고, 삼은 점차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있지만 물에 잠긴 곳은 간혹 녹아버린 것이 많고 목화는 간혹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발두둑이 축축해서 미처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지 못하였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입하가 이미 이르렀는데 목화 갈이는 다소 늦고 봄보리와 가을보리가 손상을 입은 것이 적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미리 매우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 0037. 1872년(고종 9) 4월 7일(양력 5월 13일)

慶尙監營啓錄 3책(40a~40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7d~37d)

道內雨澤及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三日之雨, 前啓外, 順興·草溪·陝川·彥陽·泗川·漆原等六邑, 川渠漲滿, 巨濟得一犁. 二十一日之雨, 前啓外, 晉州·順興·草溪·豐基·陝川·盈德·開寧·彥陽·高靈·長鬐·英陽·漆原等十二邑, 川渠漲滿, 金海·泗川得二犁, 醴泉·興海·南海·眞寶·丹城等五邑得一犁, 梁山·安義得二鋤, 寧海·河東·咸安·榮川等四邑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秋牟次第發穗, 春牟方始胚胎, 而惱於頻雨, 多有受損. 早秧抽針, 晚秧注種, 木綿已盡耕播, 間耕各穀, 方張(方張)播種, 麻稗向青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순흥·초계·합천·언양·사천·칠원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거제는 1려가 내렸습니다. 2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진주·순흥·초계·풍기·합천·영덕·개령·언양·고령·장기·영양·칠원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김해·사천은 2려가 내렸고, 예천·홍해·남해·진보·단성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산·안의는 2서가 내렸고, 영해·하동·함안·영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왔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막 알을 배기 시작하였지만 잦은 비에 시달려 손상을 입은 것이 많이 있고, 일찍 모낸 것은 침을 뽑았고 늦게 모낸 것은 물을 대고 벌씨를 뿌렸고 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삼은 푸르러가고 있다고 하며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38. 1872년(고종 9) 4월 10일(양력 5월 16일)

慶尙監營啓錄 3책(40b~41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08b~308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初十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霏下, 未時乃止, 測雨器水深, 爲一寸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0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기다려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보고합니다.

0039. 1872년(고종 9) 4월 17일(양력 5월 23일)

慶尙監營啓錄 3책(45a~45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2b~312c)

今初十日, 臣營下, 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大丘·蔚山·密陽·昆陽等四邑得一犁, 慶州·昌原·晉州·星州·金海·仁同·漆谷·河東·咸陽·永川·興海·梁山·咸安·陝川·義城·清河·彥陽·鎭海·知禮·山淸·丹城·軍威·迎日·長鬐·靈山·昌寧·泗川·比安·慈仁·英陽·漆原·安義等三十二邑得一鋤, 尙州·寧海·青松·善山·順興·居昌·淸道·榮川·豐基·盈德·慶山·河陽·奉化·眞寶·禮安·三嘉·熊川等十七邑浥塵而止.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農形段, 秋牟已盡發穗, 間或入實, 春牟幾盡胚胎, 早秧出水, 晚秧畢注, 麻稈青潤, 木綿立苗, 間耕各穀漸次出土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10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대구·울산·밀양·곤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경주·창원·진주·성주·김해·인동·칠곡·하동·함양·영천·홍해·양산·함안·합천·의성·청하·언양·진해·지례·산청·단성·군위·영일·장기·영산·창녕·사천·비안·자인·영양·칠원·안의 등 3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주·영해·청송·선산·순흥·거창·청도·영천·풍기·영덕·경산·하양·봉화·진보·예안·삼가·웅천 등 1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뻗는데 간혹 알이 들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뻗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물 밖으로 나오고 늦게 모내기하는 것은 물 대기가 끝났고, 삼은 푸르게 윤이 나고, 목화는 싹이 돋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점차 땅 밖으로 나온다고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40. 1872년(고종 9) 4월 24일(양력 5월 30일)

慶尙監營啓錄 3책(50a~50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6b~316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十日之雨, 前啓外, 高靈得一鋤, 東萊·玄風浥塵而止,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二日未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二十三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緣由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1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고령은 1서가 내렸고, 동래·현풍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22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23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하니, 연유를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1. 1872년(고종 9) 4월 27일(양력 6월 2일)

慶尙監營啓錄 3책(50a~50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6c~316d)

今二十二日以二十三日至, 臣營下, 得雨二寸三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海·靑松·東萊·居昌·金山·眞寶·咸昌·聞慶等八邑, 川渠漲流, 慶州·安東·大丘·善山·淸道·榮川·長鬐·泗川等八邑 得二犁, 晉州·星州·密陽·漆谷·龍宮·知禮·高靈·迎日·慈仁等九邑 得一犁, 安義 得二鋤, 陝川·慶山·河陽·鎭海·新寧·昌寧·漆原等七邑 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次第向黃, 春牟幾盡發穗, 早秧青潤, 晚秧抽針, 麻臬茁茂, 木綿間或初鋤, 間耕各穀漸次立苗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22일부터 23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김해·청송·동래·거창·김산·진보·함창·문경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주·안동·대구·선산·청도·영천·장기·사천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성주·밀양·칠곡·용궁·지례·고령·영일·자인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의는 2서가 내렸고, 함천·경산·하양·진해·신녕·창녕·칠원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맺고 일찍 모내기한 것은 푸르게 윤기가 나고 늦게 모내기한 것은 새잎이 나오고, 삼은 싹이 무성하고, 목화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점차 싹이 돋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2. 1872년(고종 9) 5월 4일(양력 6월 9일)

慶尙監營啓錄 3책(51b~52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7b~317c)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日之雨, 前啓外, 寧海·順興·興海·豐基·昆陽·盈德·清河·英陽等八邑, 川渠漲流, 奉化·山淸 得二犁, 昌原·尙州·蔚山·仁同·永川·醴泉·梁山·咸安·開寧·軍威·義興·禮安·比安等十三邑 得一犁, 南海·機張 得二鋤, 河東·草溪·咸陽·宜寧·玄風·丹城·靈山·三嘉·熊川等九邑 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三日戌時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4월 22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해·순흥·홍해·풍기·곤양·영덕·청하·영양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화·산청은 2려가 내렸고, 창원·상주·울산·인동·영천·예천·양산·함안·개령·군위·의흥·예안·비안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남해·기장은 2서가 내렸고, 하동·초계·함양·의령·현풍·단성·영산·삼가·웅천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3. 1872년(고종 9) 5월 7일(양력 6월 12일)

慶尙監營啓錄 3책(52a~52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7c~317d)

今初三日以初四日至, 臣營下得雨三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慶州·星州·大丘·金海·咸安·開寧·知禮·新寧等八邑 得一鋤, 仁同·清道·草溪·玄風等四邑 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次第黃熟, 間間刈取, 春牟方始入實, 早秧間或移插, 晚秧出水, 木棉初鋤幾畢, 間耕各穀始得連畝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3일부터 초4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경주·성주·대구·김해·함안·개령·지례·신녕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인동·청도·초계·현풍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간간이 베어서 거두며, 봄보리는 막 알이 들기 시작했고, 일찍 모내기할 것은 간혹 옮겨 심고 늦게 모내기할 것은 물 밖으로 나오며,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끝나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이랑을 잇닿기 시작하였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4. 1872년(고종 9) 5월 12일(양력 6월 17일)

慶尙監營啓錄 3책(52b~53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18a~318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三日之雨, 前啓外, 彥陽·眞寶·長鬐·英陽等四邑 得一犁, 蔚山·昆陽·咸昌·山淸等四邑 得二鋤, 安東·昌原·尙州·密陽·青松·順興·河東·巨濟·咸陽·永川·醴泉·豐基·梁山·金山·南海·宜寧·龍宮·奉化·鎭海·丹城·軍威·禮安·迎日·靈山·機張·三嘉·比安·熊川·聞慶等二十九邑 得一鋤, 晉州·善山·陝川·義城·河陽·昌寧·慈仁等七邑 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十日未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霑下, 十二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언양·진보·장기·영양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산·곤양·함창·산청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동·창원·상주·밀양·청송·순흥·하동·거제·함양·영천·예천·풍기·양산·김산·남해·의령·용궁·봉화·진해·단성·군위·예안·영일·영산·기장·삼가·비안·웅천·문경 등 2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주·선산·함창·의성·하양·창녕·자인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1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12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 0045. 1872년(고종 9) 5월 17일(양력 6월 22일)

慶尙監營啓錄 3책(56a~56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0c~320d)

今初十日以十二日至, 臣營下, 得雨一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三日之雨, 前啓外, 寧海·盈德 得一犁, 安義 得二鋤, 東萊·泗川 得一鋤. 初十日之雨, 慶山·彦陽·昌寧·三嘉等四邑, 川渠連流, 慶州·大丘·龍宮·咸昌·新寧·英陽等六邑 得二犁, 尙州·星州·密陽·青松·仁同·義城·奉化·眞寶·玄風·禮安·迎日·慈仁等十二邑 得一犁, 蔚山·清道·陝川·開寧·山淸·聞慶等六邑 得二犁, 安東·金海·善山·漆谷·居昌·咸陽·梁山·咸安·金山·宜寧·河陽·鎭海·知禮·義興·靈山·機張·安義等十七邑 得一鋤, 草溪·浣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方張刈穫, 春牟亦已成熟, 早秧堤汎之處, 已盡移插, 晚秧漸向青潤, 木綿再鋤, 間耕各穀, 方始初鋤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10일부터 12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해·영덕은 1려가 내렸고, 안의는 2서가 내렸고, 동래·사천은 1서가 내렸으며, 초10일의 비로 경산·연양·창녕·삼가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흐르고, 경주·대구·용궁·함창·신녕·영양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상주·성주·밀양·청송·인동·의성·봉화·진보·현풍·예안·영일·자인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산·청도·합천·개령·산청·문경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동·김해·선산·칠곡·거창·함양·양산·함안·김산·의령·하양·진해·지례·의흥·영산·기장·안의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계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서 수확하고 봄보리 또한 이미 성숙하였고 일찍 모내기할 것으로 방죽·둑에 보가 있는 곳은 이미 다 옮겨 심었고 늦게 모내기할 것은 점차 푸르게 윤기가 났고, 목화는 두벌 김매기하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6. 1872년(고종 9) 5월 26일(양력 7월 1일)

慶尙監營啓錄 3책(57a~57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1b~321c)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十日之雨, 前啓外, 順興·榮川·盈德等三邑, 川渠連流, 興海·比安 得二犁, 寧海·東萊·永川·醴泉·昆陽·清河·長鬐等七邑 得一犁, 昌原·河東·巨濟·豐基·高靈·丹城·漆原等七邑 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秋牟已盡登場, 春牟方張刈穫, 早稻間或初鋤, 晚秧堤淤處, 間間移插, 木綿及間耕太粟, 漸向青潤, 根耕各穀, 方始播種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四日丑時始雨, 或霏或霽, 斷續無常, 二十六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雨澤稍闕, 不無惜乾之嘆, 際此甘霖, 允叶農望, 爲民事誠切萬幸是白乎旃.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1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순흥·영천·영덕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흐르고, 흥해·비안은 2려가 내렸고, 영해·동래·영천·예천·곤양·청하·장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하동·거제·풍기·고령·단성·칠원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봄보리는 한창 베어서 수확하고, 올벼는 간혹 초벌 김매기하고 늦게 모내기하는 것으로 방죽·둑에 보가 있는 곳은 간간이 옮겨 심고, 목화 및 사이짓기하는 콩과 조는 점차 푸르게 윤기가 나고, 그루같이 각종 곡식은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24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일정하지 않더니 26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우택이 점점 조금 없어서 가뭄에 대한 탄식이 없지 않았는데, 이즈음에 단비가 농사의 희망을 흡족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고르게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7. 1872년(고종 9) 5월 30일(양력 7월 5일)

慶尙監營啓錄 3책(57b~57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1c~321d)

道內農形, 及今二十四日以二十六日至, 臣營下, 得雨一寸,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昆陽 得二犁, 大丘·盈德·山淸·慈仁等四邑 得一犁, 金海 得二鋤, 慶州·昌原·尙州·星州·密陽·東萊·善山·咸陽·梁山·陝川·金山·龍宮·淸河·知禮·軍威·新寧·迎日·昌寧·機張·三嘉·聞慶·安義等二十二邑 得一鋤, 慶山·河陽溫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八日辰時始雨, 或霏或霑, 斷續無常, 二十九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 雨澤非不及時, 而鋤犁不均, 高低未洽, 小暑將近, 農節漸晚, 言念民事, 預切悶然是白乎旅.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24일부터 2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곤양은 2려가 내렸고, 대구·영덕·산청·자인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해는 2서가 내렸고, 경주·창원·상주·성주·밀양·동래·선산·함양·양산·합천·김산·용궁·청하·지례·군위·신녕·영일·창녕·기장·삼가·문경·안의 등 2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경산·하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28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일정하지 않더니 29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우택이 때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1서·1려가 고르지 않고 높거나 낮은 곳이 흠족하지 않으니 소서 절기가 앞으로 가까운데 농사철이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미리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8. 1872년(고종 9) 6월 2일(양력 7월 7일)

慶尙監營啓錄 3책(58a~58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1d~322a)

去月二十八日以二十九日至, 臣營下, 得雨一寸一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四日之雨, 前啓外, 彥陽 川渠連流, 蔚山·咸昌 得二鋤, 晉州·仁同·漆谷·草溪·醴泉·咸安·鎭海·眞寶·玄風·丹城·長鬐·靈山·泗川·比安·熊川等十五邑 得一鋤, 青松·永川 浥塵. 二十八日之雨, 大丘·清道 得一犁, 密陽·漆谷·知禮·玄風·義興等五邑 得一鋤, 河陽 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一日子時又雨, 或霏或灑, 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 而陰雲未解, 雨意尙濃是白如乎. 前雨未得優洽, 今霏庶可均霑, 言念民事, 誠爲萬幸是白乎旃,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연양은 시내와 도랑은 이어져 흐르고, 울산·함창은 2서가 내렸고, 진주·인동·칠곡·초계·예천·함안·진해·진보·현풍·단성·장기·영산·사천·비안·웅천 등 1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청송·영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8일의 비로 대구·청도는 1려가 내렸고, 밀양·칠곡·지례·현풍·의흥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하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1일 자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니 비가 올 조짐이 아직도 짙습니다. 이전의 비는 흠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주룩주룩 내려 거의 고르게 적실 듯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49. 1872년(고종 9) 6월 5일(양력 7월 10일)

慶尙監營啓錄 3책(58b~59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2b~322d)

今初一日, 臣營下, 得雨三寸八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四日之雨, 前啓外, 寧海·順興 得一犁, 居昌·開寧·高靈·英陽等四邑 得一鋤, 漆原 溫塵. 二十八日之雨, 前啓外, 尙州·新寧·昌寧等三邑 得一犁, 善山·開寧 得二鋤, 慶州·寧海·草溪·豐基·高靈·機張等六邑 得一鋤, 蔚山·靈山·英陽等三邑 溫塵. 今初一日之雨, 大丘·漆谷·清道·河陽·咸昌·高靈等六邑, 川渠漲流, 密陽·開寧 得二犁, 星州·金山·玄風等三邑 得一犁, 草溪 得二鋤, 昌寧 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春牟已盡登場, 木綿及間耕太粟, 連加鋤培, 根耕各穀, 間或出土, 早稻初鋤幾畢, 晚秧方張移插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四日寅時又雨, 或霏或霪, 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1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해·순흥은 1려가 내렸고, 거창·개령·고령·영양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칠원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상주·신녕·창녕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선산·개령은 2서가 내렸고, 경주·영해·초계·풍기·고령·기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울산·영산·영양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이번 초1일의 비로 대구·칠곡·청도·하양·함창·고령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밀양·개령은 2려가 내렸고, 성주·김산·현풍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초계는 2서가 내렸고, 창녕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목화 및 사이짓기하는 콩과 조는 연이어 김을 매고 땅을 북돋우며,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간혹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게 모내기하는 것은 한창 옮겨 심고 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4일 인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0. 1872년(고종 9) 6월 8일(양력 7월 13일)

慶尙監營啓錄 3책(67a~67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29b~329c)

道內農形, 及今初四日臣營下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四日之雨, 前啓外, 豐基 得一犁, 河東·榮川 得一鋤, 禮安 沍塵. 二十八日之雨, 前啓外, 仁同·順興·興海·南海·軍威·比安等六邑 得一犁, 安東·青松·居昌·咸陽·永川·醴泉·榮川·梁山·奉化·清河·熊川·安義等十二邑 得一鋤, 禮安 沍塵. 今初一日之雨, 前啓外, 居昌·咸安·義城·慶山·宜寧·鎮海·軍威·義興·新寧·三嘉·安義等十一邑, 川渠漲流, 咸陽·陝川 得一犁, 晉州·仁同·永川·醴泉·龍宮·知禮·丹城等七邑 得一犁, 昌原·金海·泗川·聞慶等四邑 得二鋤, 慶州·尙州·南海·眞寶·比安等五邑 得一鋤. 初四日之雨, 陝川·彥陽·新寧·慈仁等四邑, 川渠漲流, 大丘·玄風 得一犁, 熊川得二鋤, 仁同·梁山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初七日未時又雨, 或霏或霽, 斷續無常, 初八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초4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풍기는 1려가 내렸고, 하동·영천은 1서가 내렸고, 예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인동·순흥·홍해·남해·군위·비안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동·청송·거창·함양·영천·예천·영천·양산·봉화·청하·웅천·선산·안의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예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이번 초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거창·함안·의성·경산·의령·진해·군위·의흥·신녕·삼가·안의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함양·함천은 2려가 내렸고, 진주·인동·영천·예천·웅궁·지례·단성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창원·김해·사천·문경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경주·상주·남해·진보·비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이번 초4일의 비로 함천·언양·신녕·자인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대구·현풍은 1려가 내렸고, 웅천은 2서가 내렸고, 인동·양산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7일 미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일정하지 않더니 초8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1. 1872년(고종 9) 6월 14일(양력 7월 19일)

慶尙監營啓錄 3책(71a~71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31d~332b)

今初七日以初八日至, 臣營下, 得雨一寸一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八日之雨, 前啓外, 山淸 得一犁, 泗川 得一鋤. 今初一日之雨, 前啓外, 昆陽·漆原, 川渠漲流, 善山 得二犁, 河東 得一犁, 巨濟 得二鋤. 初四日之雨, 前啓外, 晉州·咸安·山淸等三邑, 川渠漲流, 草溪·丹城 得二犁, 金海 得一犁, 善山·咸陽·咸昌·等三邑得二鋤, 昌原·尙州·蔚山·寧海·東萊·醴泉·盈德·知禮·軍威·禮安·迎日·靈山·昌寧·比安等十四邑得一鋤, 英陽·湍塵. 初七日之雨, 大丘·義興·慈仁等三邑得一犁, 咸昌得二鋤, 尙州·星州·咸陽·永川·禮泉·昌寧等六邑得一鋤, 玄風·比安·湍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方張再鋤, 晚秧, 水源有裕處, 舉皆移插, 而奉天高燥之地, 或有未移. 木綿及早豆太黍粟, 連加鋤培, 根耕各穀, 次第出土, 麻枲間或刈穫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三日午時始雨, 或霏或霑, 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爾,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7일부터 초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8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산청은 1려가 내렸고, 사천은 1서가 내렸으며, 이번 초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곤양·칠원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선산은 2려가 내렸고, 하동은 1려가 내렸고, 거제는 2서가 내렸으며, 초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진주·함안·산청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초계·단성은 2려가 내렸고, 김해는 1려가 내렸고, 선산·함양·함창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창원·상주·울산·영해·동래·예천·영덕·지례·군위·예안·영일·영산·창녕·비안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영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초7일의 비로 대구·의흥·자인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창은 2서가 내렸고, 상주·성주·함양·영천·예천·창녕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현풍 비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하고 늦모는 물의 근원이 넉넉하게 있는



곳은 대부분 옮겨 심었으며, 하늘만 바라보는 높고 메마른 지역은 더러 모내기하지 못한 곳이 있고, 목화 및 올콩·올팥과 올기장·올조는 연이어 김을 매며 땅을 북돋우고, 그루갈이한 각종 곡식은 차례로 땅 밖으로 나오고 삼은 간혹 베어서 수확한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2. 1872년(고종 9) 6월 24일(양력 7월 29일)

慶尙監營啓錄 3책(76a~76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35a~335c)

道內農形, 及今十三日, 臣營下得雨一寸三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四日之雨, 前啓外, 高靈川渠漲流, 興海·清河得一犁, 安義得一鋤. 初七日之雨, 前啓外, 豐基·宜寧, 川渠漲流, 順興得二犁, 榮川·奉化得一鋤, 青松·禮安浥塵. 十三日之雨, 星州·漆谷·清道·豐基·陝川·慶山·玄風·山淸·三嘉·慈仁·聞慶等十一邑, 川渠漲流, 丹城得二犁, 大丘·密陽·順興·巨濟·草溪·永川·昆陽·靈山等八邑得一犁, 河東得二鋤, 昌原·尙州·蔚山·寧海·青松·咸陽·醴泉·咸安·河陽·咸昌·新寧·長鬐·比安·安義等十四邑得一鋤.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早稻再鋤幾畢, 而浹旬不雨, 旱氣轉甚, 除非大川引洑處, 則舉皆乾涸, 晚移之秧, 未及托根, 仍卽萎枯. 木棉及早豆太黍粟, 連加鋤培, 根耕各穀, 已盡出土, 麻枲方張刈穫是白在如中, 安東·青松·義城·眞寶·禮安·比安等六邑段, 前雨未得均霑, 晚秧無望齊插, 見今節序已晚, 以相當穀代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自十三日得雨以後, 膏澤尙靳, 田畝各穀, 受損不少, 六邑之未移處代播, 尤極悶然. 際此一霑, 方切顯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13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흥해·청하는 1려가 내렸고, 안의는 1서가 내렸으며, 초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풍기·의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순흥은 2려가 내렸고, 영천·봉화는 1서가 내렸고, 청송·예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3일의 비로 성주·칠곡·청도·풍기·합천·경산·현풍·산청·삼가·자인·문경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단성은 2려가 내렸고, 대구·밀양·순흥·거제·초계·영천·곤양·영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하동은 2서가 내렸고, 창원·상주·울산·영해·청송·함양·예천·함안·하양·함창·신녕·장기·비안·안의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두벌 김매기가 거의 끝났는데, 열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은 갈수록 심하여 큰 시내나 보에서 물을 끌어대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바짝 말라서 늦게 옮겨심은 모는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곧바로 시들어 마릅니다. 목화 및 올콩·올팥과 올기장·올조는 연이어 김을 매며 땅을 복돋우고,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이미 다 땅 밖으로 나왔고, 삼은 한창 베어서 수확합니다. 그런데 안동·청송·의성·진보·예안·비안 등 6개 고을은 이전의 비가 고르게 적시지 못하여 늦모는 모두 심을 가망이 없으며 현재 절기가 이미 늦어 적당한 곡식으로 대신 씨앗을 뿌린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13일에 내린 비 이후로 기름진 우택이 아직 내리지 않아 논밭의 각종 곡식이 입는 손해가 적지 않으며, 6개 고을은 모내기하지 못한 곳에 대신 씨앗을 뿌리는데 더욱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즈음에 한줄기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절실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53. 1872년(고종 9) 6월 28일(양력 8월 2일)

慶尙監營啓錄 3책(76b~77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35c~335d)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近日旱氣轉甚, 仁同段, 奉天高燥之地, 已插而舉皆乾坼, 未移處, 今方代播是如是白遣, 義城段, 在坂之秧, 太半未移, 已移之畝, 到處乾涸, 田種各穀, 亦皆枯損, 民情遑汲, 祈雨祭不卜日設行計料是如是白遣, 星州·山淸段, 今二十一日, 驟雨乍霏旋止, 纔爲沍塵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六日戌時始雨, 或霏或霑, 二十七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旱闕之餘, 所得未洽, 烈暘旋曝, 言念民事, 誠極渴悶.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요즈음 가뭄이 갈수록 심하여 인동의 경우 하늘만 바라보는 높고 메마른 지역에 이미 심은 곳은 대부분 말라서 갈라지고 옮겨심지 못한 곳은 지금 막 대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의성의 경우 못자리에 있는 모는 대부분 옮겨심지 못했으며 이미 옮겨심은 논은 곳곳이 바짝 말랐고, 밭에 뿌린 각종 곡식 또한 다 말라서 손상됐으니, 백성들의 심정이 매우 다급하여 날짜를 가리지 않고 기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주·산청의 경우 이번 21일에 소나기가 잠깐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가 흠족하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곧바로 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애가 타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고르게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4. 1872년(고종 9) 7월 4일(양력 8월 7일)

慶尙監營啓錄 3책(78a~78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35d~336a)

道內雨澤, 及義城縣祈雨祭設行計料,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丹城段, 去月二十一日, 驟雨得一犁, 榮川段, 二十二日, 驟雨 浥塵. 二十六日之雨, 大丘·慈仁得一犁, 星州·清道·慶山·河陽·知禮等五邑得一鋤, 密陽·咸陽 浥塵而止.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 義城段, 祈雨祭兩次設行是白遣. 農形段, 無論早晚稻, 堤汙下稍有水源處, 次第鋤治, 而至若高燥之地, 到底龜坼, 間多焦黃. 早黍粟豆太, 連加鋤培, 而舉患枯損, 根耕各穀, 纔出旋縮. 木綿雖是旱草, 惱嘆昂莊, 麻桑已盡刈穫. 熊川蠡蟲間發, 痒稼不少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立秋已屆, 霈澤愈邈, 加之以淒風恒吹, 涼意漸促, 言念民事, 萬萬憂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의성현의 기우제 시행 계획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단성은 지난달 21일 소나기 1려가 내렸고, 영천은 22일 소나기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6일의 비로 대구·자인은 1려가 내렸고, 성주·청도·경산·하양·지례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밀양·함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었고, 의성은 기우제를 2차례 시행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늦벼를 따질 것 없이 방죽·둑과 보 아래 물의 근원이 조금 있는 곳은 차례로 김매기를 하고, 높고 메마른 지역의 경우 철저히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그사이에 누렇게 된 것이 많고,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팥은 연이어 김을 매고 땅을 복돋우는 데, 대부분 말라서 손상될 것을 근심하고, 그루같이한 각종 곡식은 겨우 나왔다가 곧바로 오그라들고, 목화는 비록 가뭄에 강한 곡식이지만 심한 가뭄으로 앙상하고, 삼은 이미 다 베어서 수확하였고, 웅천은 벼멸구가 그사이에 발생하여 손상된 벼가 적지 않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현재 입추 절기가 이미 닳았는데 큰비는 더욱 아득하고 찬 바람이 항상 불며 서늘한 기운이 재촉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5. 1872년(고종 9) 7월 12일(양력 8월 15일)

慶尙監營啓錄 3책(78b~78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36b~336c)

道內農形, 及義城縣祈雨祭再次設行,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永川段, 去月二十六日, 驟雨浥塵, 寧海段, 二十八日, 驟雨得一鋤. 今初九日驟雨, 慈仁得一鋤, 清道·慶山·河陽·新寧等四邑浥塵. 祈雨祭段, 義城七次, 善山三次, 安東·晉州·青松·泗川·漆原等五邑再次, 昌原·金海·密陽·仁同·河東·永川·昆陽·丹城·禮安·比安等十邑, 初次設行是白遣. 熊川段, 蠹蟲益熾, 痒稼不少. 安東段, 稍有水源處, 畚穀間多蟲損. 機張段, 蠹蟲滿坪, 各穀多有朽損. 巨濟·三嘉段, 無論田畚各穀, 莖葉焦黃, 蟲蝕間起. 昌原段, 蠹蟲猝發, 各穀受損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一日卯時始雨, 或霏或霨, 間間滂沱, 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 久闕之餘, 得此甘澍, 以臣營近郊觀之, 川渠連流, 高低周洽, 爲民事誠切萬幸. 列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의성의 2차례 기우제 시행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영천은 지난달 26일 소나기로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영해는 28일 소나기로 1서가 내렸으며, 이번 초9일 소나기로 자인은 1서가 내렸고, 청도·경산·하양·신녕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의성은 7차례, 선산은 3차례, 안동·진주·청송·사천·칠원 등 5개 고을은 2차례, 창원·김해·밀양·인동·하동·영천·곤양·단성·예안·비안 등 10개 고을은 1차례 시행했습니다.

영천은 벼멸구가 더욱 세차게 번져 벼의 손상이 적지 않고, 안동은 물의 근원이 조금 있는 곳의 논 곡식은 그사이에 벌레의 손상이 많고, 기장은 벼멸구가 들판에 가득하여 각종 곡식이 못 쓰게 되는 손상이 많고, 거제·삼가는 논밭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의 줄기와 잎이 누르고 벌레의 침식이 그사이에 발생했고, 창원은 벼멸구가 갑자기 발생하여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1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

주룩 내리다가 간간이 콕콕 쏟아지더니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  
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 저의 감영 근교로 보자면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흐르고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고르게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56. 1872년(고종 9) 7월 16일(양력 8월 19일)

慶尙監營啓錄 3책(86a~86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1d~342b)

今十一日, 臣營下, 得雨三寸三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大丘·漆谷·慶山·宜寧·彥陽·鎭海·三嘉·英陽·漆原等九邑, 川渠連流, 安東·星州·寧海·密陽·河東·梁山·咸安·河陽·高靈·玄風·丹城·軍威·新寧·慈仁等十四邑 得一犁, 仁同·聞慶 得二鋤, 尙州·金海·善山·居昌·清道·興海·陝川·金山·盈德·義城·清河·咸昌·知禮·山淸·義興·禮安·迎日等十七邑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段, 密陽·鎭海·丹城·三嘉等四邑初次, 英陽再次, 安東·漆原四次, 河東五次設行後, 竝只得雨停止是白遣, 義城八次, 善山五次, 仁同三次, 金海·比安再次設行是白遣. 農形段, 早稻間或胚胎, 晚稻方始三鋤, 而高燥之地, 焦黃已久, 無望蘇醒. 早豆太方張開花, 晚豆太日漸茂盛, 黍粟連加鋤治, 木綿次第結顆, 而惱嘆之餘, 花囊鮮少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三日亥時又雨, 或霏或灑, 斷續無常, 十五日亥時, 驟雨滂沱, 風勢大作, 十六日卯時以後, 始爲止息,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

이번 11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대구·칠곡·경산·의령·언양·진해·삼가·영양·칠원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안동·성주·영해·밀양·하동·양산·함안·하양·고령·현풍·단성·군위·신녕·자인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인동·문경은 2서가 내렸고, 상주·김해·선산·거창·청도·홍해·합천·김산·영덕·의성·청하·함창·지례·산청·의흥·예안·영일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밀양·진해·단성·삼가 등 4개 고을은 1차례, 영양은 2차례, 안동·칠원은 4차례, 하동은 5차례 시행한 뒤 모두 비가 내려 중지했고, 의성은 8차례, 선산은 5차례, 인동은 3차례, 김해·비안은 2차례 시행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늦벼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높고



메마른 지역은 누렇게 된 지 이미 오래여서 되살아날 가망이 없고, 올콩·올팍은 한창  
꽃이 피고 늦콩·늦팍은 날마다 점차 무성해지고, 기장과 조는 연이어 김매기하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는데 심한 가뭄 끝이라 꽃주머니가 드물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해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일정하지 않더니 15일 해시에 소나기가 착착  
쏟아지다가 16일 묘시 이후 비로소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57. 1872년(고종 9) 7월 26일(양력 8월 29일)

慶尙監營啓錄 3책(88a~88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3b~343d)

道內農形, 及今十三日以十六日至, 臣營下, 得雨三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十一日之雨, 前啓外, 昌原·豐基·昆陽等三邑, 川渠漲流, 泗川得二犁, 慶州·晉州·蔚山·順興·巨濟·永川·龍宮·奉化·眞寶·長鬐·昌寧·機張·比安等十三邑得一犁, 咸陽·南海·靈山等三邑得二鋤, 青松·草溪·醴泉·榮川·開寧·熊川等六邑得一鋤. 十三日之雨, 慶州·安東·昌原·尙州·星州·大丘·金海·寧海·密陽·青松·善山·仁同·漆谷·順興·居昌·清道·草溪·咸陽·永川·醴泉·豐基·咸安·昆陽·陝川·金山·盈德·義城·慶山·南海·開寧·宜寧·河陽·龍宮·奉化·彦陽·鎮海·眞寶·咸昌·知禮·高靈·玄風·山淸·丹城·軍威·義興·新寧·禮安·昌寧·泗川·比安·慈仁·英陽·漆原·聞慶·安義等五十五邑, 川渠漲流, 晉州·蔚山·興海·梁山·迎日·長鬐·靈山·機張·熊川等九邑得一犁.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段, 昌原·永川·眞寶等三邑初次, 金海·昆陽再次, 晉州·軍威·比安等三邑三次, 青松·仁同·泗川·機張等四邑四次, 善山六次, 義城十次設行後, 竝只得雨, 停止是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 方始發穗, 晚稻·晚黍粟, 間或胚胎, 早豆太結殼, 晚豆太起花, 木綿早顆稀少, 晚囊纔結, 木麥隨其耕播, 漸次出土. 安東·昌原·巨濟·熊川·機張·三嘉等六邑蟲災, 得雨旋止. 昌原·草溪·河陽·昌寧·漆原等五邑段, 今十五日夜, 風雨大作, 各穀多有受損, 木綿花囊脫落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爾,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13일부터 16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11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창원·풍기·곤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사천은 2려가 내렸고, 경주·진주·울산·순흥·거제·영천·용궁·봉화·진보·장기·창녕·기장·비안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함양·남해·영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청송·초계·예천·영천·문경·웅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13일의 비로 경주·안동·창원·상주·성주·대구·김해·영해·밀양·청송·선산·인동·칠곡·순흥·거창·청도·초계·함양·영천·예천·풍기·함안·곤양·합천·김산·영덕·의성·경산·남해·개령·의령·하양·용궁·봉화·언양·진

해·진보·함창·지례·고령·현풍·산청·단성·군위·의흥·신녕·예안·창녕·사천·비안·자인·영양·칠원·문경·안의 등 5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진주·울산·홍해·양산·영일·장기·영산·기장·웅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창원·영천·진보 등 3개 고을은 1차례, 김해·곤양은 2차례, 진주·군위·비안 등 3개 고을은 3차례, 청송·인동·사천·기장 등 4개 고을은 4차례, 선산은 6차례, 의성은 10차례 시행한 뒤 모두 비가 내려 중지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알을 배고, 올콩·올팍은 꼬투리를 맺고, 늦콩·늦팍은 꽃이 피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드물고 늦은 꽃주머니를 겨우 맺으며, 메밀은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림에 따라 점차 땅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창원·거제·웅천·기장·삼가 등 6개 고을의 벌레 재해는 비가 내리자 곧바로 그쳤고, 창원·초계·하양·창녕·칠원 등 5개 고을은 이번 15일 밤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각종 곡식은 많이 손해를 입었고, 목화는 꽃주머니가 떨어졌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8. 1872년(고종 9) 8월 6일(양력 9월 8일)

慶尙監營啓錄 3책(91a~91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6d~347a)

道內雨澤及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早稻·早黍粟，已盡發穗，間或垂穎，晚稻·晚黍粟，方張發穗，而最晚移之惱旱處，或含而不吐。早豆太入實，晚豆太結殼，木麥立苗，木綿顆囊稀少，綻白零星是如爲等如，牒呈是如爲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으며 간혹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심하게 가문 곳에 가장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더러 오므리고 내밀지 못하고, 올콩·올팥은 알이 들고, 늦콩·늦팥은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싹이 돋고, 목화는 다래와 꽃주머니가 드물고 터진 솜이 없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59. 1872년(고종 9) 8월 8일(양력 9월 10일)

慶尙監營啓錄 3책(91b~91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7a~347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初七日辰時始雨, 或霏或灑, 間間霏下, 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60. 1872년(고종 9) 8월 14일(양력 9월 16일)

慶尙監營啓錄 3책(93b~94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8d~349a)

今初七日, 臣營下, 得雨一寸,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清道·咸安·昆陽·三嘉等四邑, 川渠漲流, 慶州·金海得二犁, 晉州·大丘·密陽·河東·永川·梁山·陝川·慶山·宜寧·鎭海·眞寶·咸昌·玄風·延日·靈山·昌寧·泗川·英陽等十八邑得一犁, 安東·星州·尙州·善山·仁同·漆谷·草溪·咸陽·醴泉·榮川·興海·義城·南海·河陽·龍宮·知禮·山淸·軍威·新寧·比安·熊川·聞慶等二十二邑得一鋤, 昌原·高靈·溫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如中, 臣營下, 今十三日午時始雨, 或霏或灑, 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초7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청도·함안·곤양·삼가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주·김해는 2려가 내렸고, 진주·대구·밀양·하동·영천·양산·합천·경산·의령·진해·진보·함창·현풍·영일·영산·창녕·사천·영양 등 1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동·성주·상주·선산·인동·칠곡·초계·함양·예천·영천·홍해·의성·남해·하양·용궁·지례·산청·군위·신녕·비안·웅천·문경 등 2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창원·고령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1. 1872년(고종 9) 8월 16일(양력 9월 18일)

慶尙監營啓錄 3책(94a~94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49a~349b)

今十三日, 臣營下, 得雨四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七日之雨, 前啓外, 彦陽川渠漲流, 蔚山·順興·機張等三邑得一犁, 寧海·安義得一鋤. 十三日之雨, 慶州川渠漲流, 慈仁得一犁, 昌原·大丘得一鋤, 永川浥塵.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向熟, 晚稻垂穎, 而最晚移之惱旱處, 間或直立. 早黍·粟·豆太向熟, 晚黍·粟·豆太立實, 木麥結殼, 木綿方張摘取. 機張段, 蟲災復熾, 痒稼不少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13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언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울산·순흥·기장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해·안의는 1서가 내렸으며, 13일의 비로 경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자인은 1려가 내렸고, 창원·대구는 1서가 내렸고, 영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익어가고, 늦벼는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데 심하게 가문 곳에 가장 늦게 옮겨 심은 것은 간혹 곳곳이 서있고,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팍은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와 늦콩·늦팍은 알이 들고, 메밀은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는데, 기장은 벌레 재해가 다시 세차게 번져 손상된 벼가 적지 않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2. 1872년(고종 9) 8월 26일(양력 9월 28일)

慶尙監營啓錄 3책(98b~98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53c~353d)

道內雨澤及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七日之雨, 前啓外, 東萊川渠漲流, 奉化得一犁, 靑松·漆原得一鋤. 十三日之雨, 前啓外, 長鬐得二犁, 金海得二鋤, 清河·鎭海·機張等三邑得一鋤, 慶山浥塵. 餘外諸邑, 俱無得雨之報是白遣. 農形段, 早稻幾盡黃熟, 間或刈穫, 晚稻漸次成熟, 而至若原野高燥之地, 峽裏陰冷之處, 或胎而未發, 或發而直立, 已判全棄. 早豆太折取, 早黍粟向熟, 晚黍粟·豆太已盡入實. 木花早顆稀少, 晚囊纔結, 綻白零星, 所摘無幾. 木麥漸看堅實. 機張段, 淒風恒吹, 蟲災未熄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동래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화는 1려가 내렸고, 청송·칠원은 1서가 내렸으며, 13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장기는 2려가 내렸고, 김해는 2서가 내렸고, 청하·진해·기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경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거의 다 누렇게 익었는데 간혹 베어서 수확하고, 늦벼는 점차 성숙하는데 벌판과 높고 메마른 지역이나 산골짜기 속이나 그늘지고 서늘한 곳의 경우, 더러 이삭이 패지 않거나 더러 뻗으나 곳곳이 서 있어서 이미 전부 포기하기로 판가를 냈고, 올콩·올팍은 꺾어서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와 늦콩·늦팍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드물고 늦은 꽃주머니는 겨우 맺고 터진 솜은 없어서 딸 것이 거의 없고, 메밀은 점차 단단한 열매를 볼 수 있는데, 기장의 경우 찬 바람이 항상 불고 벌레 재해가 그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3. 1872년(고종 9) 9월 7일(양력 10월 8일)

慶尙監營啓錄 3책(101b~101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55a~355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次第刈穫, 晚稻幾盡黃熟, 而最晚移直立處, 已屬全棄. 豆太方張折取, 黍粟及木麥已盡成實. 木綿全不綻白, 摘取零星. 蟲災段, 機張更無熾蔓之報, 而長鬐北風恒吹, 蟲災熾發, 各穀多有受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寒露已屆, 年形垂成, 而早種雖幸成熟, 晚種多有全棄, 言念民事, 誠爲憂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는 차례로 베어서 수확하고 늦벼는 거의 다 누렇게 익었는데, 가장 늦게 옮겨 심어 곳곳이 서 있는 것은 이미 전부 포기한 셈이고, 콩과 팥은 한창 꺾어서 거두고, 기장·조 및 메밀은 이미 다 알이 여물었고, 목화는 전부 솜이 터지지 않아 따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기장은 세차게 번진다는 보고가 다시 없으나, 장기는 북풍이 항상 불고 벌레 재해가 세차게 발생하여 각종 곡식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현재 한로가 이미 닳쳤고 한 해의 농사 상황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올곡은 비록 다행히 성숙했지만 늦곡은 전부 포기한 것이 많아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4. 1872년(고종 9) 9월 16일(양력 10월 17일)

慶尙監營啓錄 3책(103b~103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4책(357a~357b)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英陽今初六日，山淸初九日，居昌十一日夜，霜降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晚穀收榆，惟在日候之暖曝，而霜信又早，全棄居多。言念民事，誠切憂悶。謹當詳究災實，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영양은 이번 초6일, 산청은 초9일, 거창은 11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늦곡의 수확은 오직 날씨가 따뜻한 데 달렸는데 서리가 또 이르니 전부 포기하는 것이 다수여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삼가 마땅히 재해와 결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5. 1890년(고종 27) 7월 12일(양력 8월 27일)

慶尙監營啓錄 5 (1b~1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6 (419d~420a)

道內雨澤及農形, 假都事臣尹秉己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六日之雨, 前啓外, 青松·彥陽·鎭海等三邑川渠漲流, 新寧·三嘉·英陽等三邑川渠連流, 昌原·南海·軍威·比安等四邑得一犁, 尙州得二鋤, 居昌·草溪·豐基·陝川·聞慶等五邑得一鋤, 河陽浥塵, 農形段, 臣踰嶺以後, 所經各邑, 次第看審是白乎則, 聞慶·咸昌·尙州等邑, 早稻幾盡胚胎, 間或發穗, 晚稻再鋤旣畢, 早豆太方張結殼, 晚豆太黍粟漸次向茁, 木綿連爲結顆是白在如中, 今初九日寅時始雨, 或霏或灑, 間間注下, 初十日未時乃止, 臣所到尙州邑下所得, 爲一犁是白如乎, 惜乾之餘, 得此甘澍, 言念民事, 誠爲可幸,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旡,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가도사인 저 윤병이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송·언양·진해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신녕·삼가·영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흐르고, 창원·남해·군위·비안 등 4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상주는 2서가 내렸고, 거창·초계·풍기·함천·문경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하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제가 조령을 넘은 이후 거친 각 고을을 차례로 살펴봐왔더니, 문경·함창·상주 등 고을은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을 맺고 간혹 이삭이 뻗으며,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울릉·울팔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늦콩·늦팥과 늦기장·늦조는 점차 싹이 자라며, 목화는 연이어 다래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초9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초10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제가 상주에 도착하자 고을에 내린 것이 1려였습니다. 가뭄을 걱정한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66. 1890년(고종 27) 8월 4일(양력 9월 17일)

慶尙監營啓錄 5 (8a~8b)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6 (423b~423c)

道內農形及二十日以二十二日至, 臣營下得雨四寸九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初九日之雨, 前啓外, 慶州·昆陽·川渠漲流, 蔚山·青松·清河等三邑得一犁, 新寧·熊川得一鋤, 二十日之雨, 永川·盈德·河陽·眞寶·漆原等五邑江川汎濫, 原野混浸, 田畚川覆, 人家漂頽, 待水退摘奸, 更報是如是白遣, 青松·仁同·固城·興海·昆陽·清河·玄風·新寧·迎日·英陽等十邑江川漲溢, 防築潰缺, 田畚汰覆, 待水退摘奸更報是如是白遣, 安東·大邱江川漲溢, 沿浦沈墊, 慶州·尙州·晉州·密陽·漆谷·順興·居昌·清道·榮川·咸安·義城·慶山·宜寧·奉化·鎮海·咸昌·知禮·高靈·軍威·義興·靈山·三嘉·比安·慈仁·聞慶等二十六邑川渠漲流, 昌原·草溪·陝川·彥陽·丹城·長鬐·安義等七邑得一犁, 開寧得二鋤, 東萊·金山得一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已盡垂穎, 晚稻·晚黍粟次第發穗, 早豆太漸次向熟, 晚豆太方始入實, 木綿間或摘取, 而沈墊之地, 田畚各穀, 舉皆受損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20일부터 22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초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경주·곤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울산·청송·청하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녕·웅천은 1서가 내렸으며, 20일의 비로 영천·영덕·하양·진보·칠원 등 5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벌판은 흙탕물에 잠기고 논밭은 시내가 생기고 뒤덮였으며, 인가는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청송·인동·고성·홍해·곤양·청하·현풍·신녕·영일·영양 등 10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치고 방죽·둑이 터져 논밭이 사태로 뒤덮였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안동·대구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치고 해안과 포구가 물에 잠겼고, 경주·상주·진주·밀양·칠곡·순흥·거창·청도·영천·함안·의성·경산·의령·봉화·진해·함창·지례·고령·군위·의흥·영산·삼가·비안·자인·문경 등 2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창원·초계·합천·언양·단성·장기·안의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개령은

2서가 내려고, 동래·김산은 1서가 내려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 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울벼·울기장·울조는 이미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울콩·울팍은 점차 익어가고 늦콩·늦팍은 막 알이 들기 시작했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는데, 물에 잠긴 지역은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을 입었다 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67. 1890년(고종 27) 8월 12일(양력 9월 25일)

慶尙監營啓錄 5 (9a~9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6 (424d~424d)

道內農形及永川等邑被災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日之雨, 前啓外, 寧海江川漲溢, 防築潰缺, 人家頽壓, 待水退摘奸更報是如是白遣, 豐基·山淸·禮安等邑, 川渠漲流, 龍宮得二鋤, 善山得一犁, 咸陽得二鋤, 餘外諸邑, 姑未及報來是白在果, 臣營下, 初十日寅時始雨, 或霏或灑, 斷續無常, 十一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영천 등 고을이 재해를 입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해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치고 방죽·둑이 터졌으며 인가가 무너졌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풍기·산청·예안 등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용궁은 2려가 내렸고, 선산은 1려가 내렸고, 함양은 2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은 초10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일정하지 않더니 11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8. 1890년(고종 27) 9월 4일(양력 10월 17일)

慶尙監營啓錄 5 (70b~71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6 (428a~428b)

道內雨澤農形及永川·新寧被災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七月二十日水災摘奸之報, 永川追報田畝川反八十四結六十五負二束, 浦落二十七結一負八束, 盈德民家漂頽五戶, 田畝川反八百八十二斗落, 浦落一百六十斗落, 覆沙七十六斗落, 鹽田川反十三庫, 防築潰缺五百四十五把,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去月初十日之雨, 前啓外, 金海·寧海川渠漲流, 玄風涸塵是白遣, 農形段, 早稻·早黍粟·豆太幾盡登場, 晚稻·晚黍粟·豆太間或刈取, 而蟲災段, 前啓外, 草溪·靈山又爲熾發, 受損甚多, 木綿連爲摘取, 而晚顆幾稀是白遣, 順興·榮川去月二十三日夜, 大邱今初二日夜, 霜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永川·盈德之被災, 草溪·靈山之蟲損, 言念民事, 不勝憂悶, 漂頽戶段, 未滿十戶, 故元恤典不得題給, 而自營邑一體顧恤, 汰覆潰缺處, 疏築之節, 連加申飭爲白乎旆, 晚穀未及充實, 收榆惟在暖曝, 而霜信遽促, 誠極缺望, 謹當詳究災實,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 및 영천·신녕이 재해를 입은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7월 20일 수해를 캐서 보고하였는데 영천은 추가 보고에 논밭이 반쯤 시내로 변한 것이 84결 65부 2속, 떠내려간 것이 27결 1부 8속이고, 영덕은 민가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5가구, 논밭이 반쯤 시내로 변한 것이 882두락, 떠내려간 것이 160두락, 모래로 뒤덮인 것이 76두락, 염전이 반쯤 시내로 변한 것이 13곳, 방죽·둑이 터진 것이 545과이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10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김해·영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현풍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팍은 거의 다 타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늦콩·늦팍은 간혹 베어 거두고 있습니다. 벌레 재해의 경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초계·영산은 또 세차게 발생하여 입은 손해가 매우 많으며, 목화는 연이어 따서 거두는데 늦 다래는 거의 드뭅니다. 순흥·영천은 지난달 23일 밤에, 대구는 이번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영천·영덕이 입은 재해와 초계·영산의 벌레 손상으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10가구 미만이면 기본 구호를 결정문으로 줄 수 없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모두 돌보도록 하며, 사태로 뒤덮이거나 터진 곳은 쌓는 사항을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늦곡은 아직 알이 차지 않았고 수확은 오직 따뜻한 햇볕에 달렸는데 서리 소식이 서둘러 재촉하니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마땅히 재해와 결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69. 1902년(광무 6) 4월 22일(양력 5월 29일)

慶尙監營啓錄 6 (7b~7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1b~501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近接各邑所報, 則秋牟方張入實, 春牟幾盡發穗, 早秧漸向青潤, 晚秧次第抽芽, 而去月二十六日雨後, 驟溫僅爲數次, 慳閔洽過二旬, 牟麥間多含縮, 秧坂俱患惜乾, 木綿初鋤幾畢, 麻桑連加茁茂, 間耕各種, 近始鋤治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雨澤稍闕, 峽野同然, 際此一霽, 方切顙祝,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일찍 모낸 것은 점차 푸르게 윤기가 나고 늦게 모낸 것은 차례로 싹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비가 내린 뒤 소나기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겨우 몇 차례 내리고 20일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보리는 그사이에 오그라든 것이 많고 못자리는 모두 가뭄을 걱정하며,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삼은 연이어 싹이 무성해지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요즘 김매기를 시작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우택이 점점 준 것은 산골짜기나 들판이 똑같은데 이즈음 한 줄기 콧줄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절실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0. 1902년(광무 6) 5월 2일(양력 6월 7일)

慶尙監營啓錄 6 (9a~9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2a~502b)

道內農形及雨澤慳閔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三日驟雨，軍威僅得一鋤，星州·榮川·金山·開寧等四邑，泥塵而止是白遣，農形段，秋牟未實先黃，春牟纔發徑枯，早晚秧坂，堤洑引水處外，在在乾涸，秧節已屆，無望移插，木綿連加再鋤，間耕各種，舉皆惱萎，麻桑亦未善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亢旱跨朔，夏至隔旬，目下農形，自多減却，言念民事，尤切望霓，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이 내리지 않는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 소나기로 군위는 겨우 1서가 내렸고, 성주·영천·김산·개령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알지 못한 채 먼저 누렇게 되고 봄보리는 이삭이 패자마자 지레 마르고, 올벼나 늦벼 못자리 방죽·둑과 보에서 물을 끄는 곳 외에는 곳곳에서 바짝 마르고, 모내기철은 이미 닳았는데 옮겨 심을 가망이 없으며, 목화는 연이어 두벌 김매기 하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대부분 시들고, 삼 또한 싹이 잘 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심한 가뭄이 한 달에 걸치고 하지가 10일 앞인데 눈앞의 농사 상황은 자연히 감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간절히 비를 바랍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1. 1902년(광무 6) 5월 7일(양력 6월 12일)

慶尙監營啓錄 6 (9b~9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2b~502c)

道內農形及悶旱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初六日申時始雨, 或霏或灑, 至初七日丑時止歇,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旱餘之雨, 猶未解渴, 而雲氣不散, 雨意尙濃, 繼此一霏, 尤切願祝是白乎旃, 各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科,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축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나, 구름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한 줄기 짹짹 쏟아지기를 더욱 간절히 빕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2. 1902년(광무 6) 5월 12일(양력 6월 17일)

慶尙監營啓錄 6 (9b~10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2c~502d)

臣營下, 今初六日以初七日至, 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近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榮川·咸昌等二邑得一犁, 泗川·安義等二邑得二鋤, 慶州·尙州·星州·大丘·寧海·密陽·善山·仁同·漆谷·順興·河東·醴泉·豐基·盈德·固城·義城·慶山·開寧·龍宮·清河·知禮·山淸·軍威·義興·機張·比安·慈仁·英陽等二十八邑得一鋤, 安東·昌原·晉州·蔚山·金海·青松·東萊·巨濟·居昌·淸道·咸陽·永川·興海·梁山·咸安·陝川·金山·宜寧·河陽·彥陽·高靈·玄風·丹城·新寧·禮安·迎日·長鬐·靈山·昌寧·三嘉·柒原等三十一邑, 浥塵而止, 餘外八邑, 姑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秋牟方始刈取, 春牟次第向熟, 而焦黃居多, 食實減半. 早秧堤汎引溉處, 雖或移插, 仍即乾涸, 晚秧坂皆龜坼, 舉患枯萎. 木綿·麻桌及間耕各種, 惱旱不茁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旱既跨朔, 雨且未洽, 烈暘旋曝, 農節漸晚, 言念民事, 萬萬渴憫. 祈雨祭, 姑待數日, 觀勢設行計料爲白乎旆,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은 이번 초6일부터 초7일까지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천·함창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사천·안의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경주·상주·성주·대구·영해·밀양·선산·안동·칠곡·순흥·하동·예천·풍기·영덕·고성·경산·개령·용궁·청하·지례·산청·군위·의흥·기장·비안·자인·영양 등 2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동·창원·진주·울산·김해·청송·동래·거제·거창·청도·함양·영천·홍해·양산·함안·함천·김산·의령·하양·언양·고령·현충·단성·신녕·예안·영일·장기·영산·창녕·삼가·칠원 등 3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8개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막 베어서 거두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있으나 누렇게 마르는 것이 다수이니 먹을 수 있는 알맹이는 반으로 줄고, 방죽·둑과 보에서 물을 끌어 일찍 모내기할 곳은 비록 더러 옮겨 심지만 곧바로 바짝 마르고, 늦은 못자리는 다 거북등처럼 갈라져 대부분 시들어 마를 것을 근심하고, 목화와 삼 및 사이짓 기하는 각종 곡식은 심한 가뭄으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가뭄이 이미

한 달에 걸치고 비도 흠족하지 않은 채 뜨거운 햇볕이 곧바로 내리쬘고 농사철은 점차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애타게 걱정스럽지만, 기우제는 일단 며칠 기다려 형세를 보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3. 1902년(광무 6) 5월 14일(양력 6월 19일)

慶尙監營啓錄 6 (12a~12a)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4a~504b)

本道〈內〉旱災轉甚，無邑不然，祈雨祭，今方次第設行計料是自在如中，仁同府使李熙冕以子息成婚事，榮川郡守金益鼎以觀親事，竝只受由上京，陝川郡守李章愚陪箋上京，金山郡守張照以省掃事受由，京畿安山至發行，河陽縣監徐有始以省掃事受由，京畿加平至發行，姑未還任是白如乎。祈雨祭無得以兼任替行，既有定式，守宰之此時曠官，萬萬悶迫乙仍于，茲敢具由馳啓爲白去乎，同仁同府使李熙冕，榮川郡守金益鼎，陝川郡守李章愚，金山郡守張照，河陽縣監徐有始等，竝令該曹催促下送爲白乎跡，新除授昆陽郡守朴正鎮，慶山縣令李彙載，玄風縣監韓致容等，尙未赴任，一體催促，急速下送爲白只爲，詮次善啓云云。

본 경상도 내 가뭄 재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으니 기우제를 지금 막 차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동 부사 이희면은 자식 혼사로, 영천 군수 김익정은 부모를 찾아뵙는 일로 모두 휴가를 얻어 상경했고, 합천 군수 이장우는 임금께 올릴 전문을 가지고 상경했고, 김산 군수 장조는 성묘할 일로 휴가를 얻어 경기 안산으로 출발하고, 하양 현감 서유시는 성묘할 일로 휴가를 얻어 경기 가평으로 출발해서 아직 임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는 겸임하거나 대신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수령이 이때 자리를 비운 것이 매우 안타깝고 절박하므로 이에 감히 사유를 갖춰 긴급 보고합니다. 위 인동 부사 이희면, 영천 군수 김익정, 합천 군수 이장우, 김산 군수 장조, 하양 현감 서유시 등을 모두 해당 6조에 지시하여 재촉해서 내려보내고, 새로 임명한 곤양 군수 박정진, 경산 현령 이휘재, 현풍 현감 한치용 등이 아직도 부임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재촉해서 빨리 내려보내도록,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74. 1902년(광무 6) 5월 22일(양력 6월 27일)

慶尙監營啓錄 6 (15a~15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5d~506b)

道內農形雨澤與憫旱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之雨, 前啓外, 奉化·眞寶·聞慶等三邑得一鋤, 南海沔塵是白遣, 十一日驟雨, 安東·咸昌得一犁, 順興·醴泉·金山·開寧·龍宮·眞寶·英陽等七邑, 得一鋤, 尙州·星州·河陽·玄風·比安等五邑, 僅爲沔塵是白遣, 十四日驟雨, 順興得二犁, 榮川·豐基得一犁, 仁同·河陽得二鋤, 大丘·善山·醴泉·開寧·奉化·清河·軍威·義興·新寧·聞慶等十邑, 得一鋤, 尙州·星州·漆谷·永川·金山·玄風·比安等七邑沔塵, 義城境內數面岔, 川渠漲滿是白遣. 農形段, 秋牟已盡登場, 春牟方張刈穫, 而白乾居多, 全粒絕稀, 早晚秧移插者, 舉患萎損, 在坂者甚至焦黃, 間耕各種, 葉枯莖縮, 無望蘇醒, 木綿素稱耐旱, 而猶且萎蕪, 麻桑矮短不茁, 根耕已爲晚時, 而土壤如甃, 間或播耕是白遣. 祈雨祭段, 民情最遑急處, 不卜日設禱之意, 知委各邑是白加尼, 星州·金海·青松·清道·咸昌·新寧等六邑, 三次設行, 慶州·大丘·密陽·漆谷·居昌·草溪·永川·興海·咸安·開寧·知禮·高靈·玄風·義興·機張·三嘉·柒原等十八邑, 二次設行, 昌原·晉州·蔚山·東萊·善山·河東·咸陽·醴泉·梁山·盈德·龍宮·彦陽·丹城·禮安·迎日·長鬐·昌寧·比安·熊川·慈仁·安義等二十一邑, 初次設行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四旬亢旱, 挽近罕有, 數次驟霖, 未由救急, 遍舉圭璧之禱, 愈切雲霓之望. 民事到此, 萬萬悶迫. 臣亦於靈驗處, 躬行虔禱計料爲白乎旆,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봉화·진보·문경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남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1일 소나기로 안동·함창은 1서가 내렸고, 순흥·예천·김산·개령·용궁·진보·영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주·성주·하양·현풍·비안 등 5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4일 소나기로 순흥은 2려가 내렸고, 영천·풍기는 1려가 내렸고, 인동·하양은 2서가 내렸고, 대구·선산·예천·개령·봉화·청하·군위·의흥·신녕·문경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상주·성주·칠곡·영천·김산·현풍·비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의성은 지역 내 여러 면의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봄보리는 한창 베어서 수확하는데 회계 마른 것이 다수이며 온전한 알갱이가 매우 드물고, 이르든 늦든 모를 옮겨 심은 것은 대부분 시들어 손상되고, 못자리에 있는 것은 심지어 누렇게 타고,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잎이 마르고 줄기가 오그라들어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며, 목화는 본래 가뭄을 잘 견딘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시들고 삼은 작달막하게 자라지 않고 그루갈이는 이미 때가 늦었는데, 흙이 벽돌처럼 단단하여 간혹 씨앗을 뿌려 갑니다.

기우제의 경우, 백성들의 심정이 가장 다급한 곳은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해서 빌라는 뜻을 각 고을에 알렸더니, 성주·김해·청송·청도·거창·신녕 등 6개 고을은 3차례 시행하였고, 경주·대구·밀양·칠곡·거창·초계·영천·홍해·함안·개령·지례·고령·현풍·의흥·기장·삼가·철원 등 18개 고을은 2차례 시행했으며, 창원·진주·울산·동래·선산·하동·함양·예천·양산·영덕·용궁·언양·단성·예안·영일·장기·창녕·비안·웅천·자인·안의 등 21개 고을은 1차례 시행하였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40일 동안의 심한 가뭄은 근래에 드물었는데 몇 차례 소나기로는 다급함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기우제를 두루 거행하여 비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이르러 백성들의 사정은 매우 걱정스럽고 절박합니다. 저 또한 영험한 곳에서 몸소 경진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5. 1902년(광무 6) 5월 25일(양력 6월 30일)

慶尙監營啓錄 6 (16a~16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6c~506d)

道內農形及祈雨祭設行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與前一様, 祈雨祭段, 星州·密陽·靑松·淸道·永川·興海·咸昌·高靈·新寧等九邑, 四次設行, 慶州·東萊·漆谷·草溪·醴泉·咸安·開寧·知禮·玄風·義興·機張·三嘉·慈仁·安義等十四邑, 三次設行, 昌原·蔚山·善山·河東·咸陽·梁山·盈德·彦陽·禮安·迎日·昌寧等十一邑, 再次設行, 前啓外, 淸河·軍威·聞慶等三邑, 再次設行, 固城·義城·奉化·眞寶·山淸·靈山·泗川等七邑, 初次設行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一早太甚, 民事遑及[汲], 祈雨祭設行, 至爲五十五邑之多, 臣亦自二十四日, 先自大丘府達城鎮山, 虔誠躬禱是白如乎, 營下近郊之往來所見, 甚於所聞, 而冥感未格, 雨意尙邈, 今方更爲虔禱于靈處計料爲白乎旆,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기우제 시행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은 이전과 한가지이고, 기우제의 경우, 성주·밀양·청송·청도·영천·홍해·함창·고령·신녕 등 9개 고을은 4차례 시행하였고, 경주·동래·칠곡·초계·예천·함안·개령·지례·현풍·의흥·기장·삼가·자인·안의 등 14개 고을은 3차례 시행하였고, 창원·울산·선산·하동·함양·양산·영덕·언양·예안·영일·창녕 등 11개 고을은 2차례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청하·군위·문경 등 3개 고을은 2차례 시행하였고, 고성·의성·봉화·진보·산청·영산·사천 등 7개 고을은 1차례 시행하였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한결같이 가뭄이 매우 심하니 백성들의 사정은 다급하여 기우제를 시행한 곳이 55개 고을이나 되며, 저 또한 24일부터 먼저 대구부 달성 진산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빌겠습니다. 감영 근교를 오가며 본 것으로나 심지어 들은 것으로는 신령의 감응이 이르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도 아득하니, 금방 다시 영험한 곳에서 경건하게 빌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6. 1902년(광무 6) 5월 27일(양력 7월 2일)

慶尙監營啓錄 6 (16b~17a)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6d~507a)

道內各邑祈雨祭及臣躬禱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星州·金海·密陽·青松·咸昌·高靈·新寧等七邑, 五次設行, 東萊·河東·草溪·醴泉·咸安·開寧·宜寧·玄風·丹城·義興·機張·三嘉·安義等十三邑, 四次設行, 昌原·蔚山·善山·居昌·咸陽·盈德·龍宮·彦陽·柒原·聞慶等十邑, 三次設行, 晉州·固城·義城·奉化·眞寶·長鬐·比安·靈山·熊川等九邑, 再次設行, 前啓外, 安東·尙州·巨濟·陝川·南海·鎭海·英陽等七邑, 初次設行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祈雨祭設行, 已爲六十二邑, 而民情遑汲, 日甚一日是白在如中, 臣營下, 今二十六日申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七日辰時止歇,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渴望之餘, 猶未浹洽, 秧役旣晚, 民事轉急, 際此設禱, 不容少緩乙仍于, 今將更致虔誠于靈驗處爲白乎旃, 列邑之所得多寡,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각 고을의 기우제 및 제가 몸소 빈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성주·김해·밀양·청송·함창·고령·신녕 등 7개 고을은 5차례 시행하였고, 동래·하동·초계·예천·함안·개령·의령·현풍·단성·의흥·기장·삼가·안의 등 13개 고을은 4차례 시행하였고, 창원·울산·선산·거창·함양·영덕·용궁·안양·칠곡·문경 등 10개 고을은 3차례 시행하였고, 진주·고성·의성·봉화·진보·장기·비안·영산·웅천 등 9개 고을은 2차례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안동·상주·거제·합천·남해·진해·영양 등 7개 고을은 1차례 시행하였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기우제를 시행한 곳은 이미 62개 고을이나 백성들의 심정은 다급하기가 날로 심해집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2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를 갈망하던 끝에 여전히 흡족하지 못하고 모내기는 이미 늦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다급한데 이즈음에 시행하여 비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므로 지금 다시 영험한 곳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7. 1902년(광무 6) 6월 1일(양력 7월 5일)

慶尙監營啓錄 6 (18a~18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7b~507d)

去月二十七日, 臣營下, 得雨一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鬐川渠漲流, 寧海·盈德·清河等三邑, 得二犁, 大丘·蔚山·密陽·東萊·永川·興海·機張等七邑, 得一犁, 青松得二鋤, 尙州·星州·金海·善山·仁同·漆谷·清道·梁山·陝川·金山·慶山·開寧·宜寧·河陽·知禮·高靈·玄風·軍威·靈山·昌寧·泗川·三嘉·比安·熊川·慈仁等二十五邑, 得一鋤, 昌原·晉州·居昌·榮川·咸安·固城·義城·南海·奉化·鎭海·山淸·丹城·義興·柒原·安義等十五邑, 浥塵而止,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段, 星州·金海·高靈等三邑, 七次設行, 密陽·青松·草溪·永川·興海·玄風·義興·新寧等八邑, 六次設行, 慶州·東萊·居昌·咸陽·咸安·開寧·宜寧·丹城·三嘉·熊川·安義等十一邑, 五次設行, 昌原·蔚山·善山·漆谷·梁山·盈德·義城·南海·彦陽·知禮·柒原等十一邑, 四次設行, 尙州·晉州·巨濟·奉化·清河·眞寶·山淸·軍威·禮安·迎日·長鬐·靈山·昌寧·泗川·比安·英陽等十六邑, 三次設行, 鎭海再次設行, 前啓外, 豐基再次設行, 順興初次設行, 而東萊·盈德·清河·長鬐·機張等五邑, 得雨停止是如是白遣. 臣於去月二十九日, 又爲虔禱于大丘府八公山, 而峽路五十里之間, 雨餘農形, 稍勝於野面. 早晚秧已移者, 地氣帶濕, 青葉敷舒, 在坂者未及貯水, 無望移插, 田種各穀, 萎者起畝, 焦者貼地. 各邑所報, 與歷路所見一樣是白在如中, 自去月二十九日丑時始雨, 或灑或止, 至今月初一日寅時止歇,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今番之雨, 又未浹洽, 而雲氣不散, 雨意尙濃, 繼此一霽, 方切願祝是白乎旆, 臣祈雨祭, 第待向後所得, 觀勢進退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지난달 27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기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영해·영덕·청하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대구·울산·밀양·동래·영천·홍해·기장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송은 2서가 내렸고, 상주·성주·김해·선산·인동·칠곡·청도·양산·합천·김산·경산·개령·의령·하양·지례·고령·현풍·군위·영산·창녕·사천·삼가·비안·웅천·자인 등 2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창원·진주·거창·영천·함안·고성·의성·남해·봉화·진해·산청·

단성·의흥·칠원·안의 등 1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며,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성주·김해·고령 등 3개 고을은 7차례 시행하였고, 밀양·청송·초계·영천·홍해·현풍·의흥·신녕 등 8개 고을은 6차례 시행하였고, 경주·동래·거창·함양·함안·개령·의령·단성·삼가·웅천·안의 등 11개 고을은 5차례 시행하였고, 창원·울산·선산·칠곡·양산·영덕·의성·남해·언양·지례·칠원 등 11개 고을은 4차례 시행하였고, 상주·진주·거제·봉화·청하·진보·산청·군위·예안·영일·장기·영산·창녕·사천·비안·영양 등 16개 고을은 3차례 시행하였고, 진해는 2차례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풍기는 2차례 시행하였고, 순흥은 1차례 시행하였으며, 동래·영덕·청하·장기·기장 등 5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달 29일에 또 대구부 팔공산에서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산골짜기 길 50리 사이는 비 끝의 농사 상황은 들판보다 좀 나았습니다. 이르든 늦든 모는 이미 옮겨 심은 것은 땅의 기운이 습기를 띠어 푸른 잎을 펼치고 못자리에 있는 것은 물을 가두기에 미치지 못하여 옮겨 심을 가망이 없으며,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시든 것은 이랑에서 일어나고 마른 것은 땅에 달라붙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은 지나가는 길에서 본 것과 한가지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멈추다가 이번 달 초1일 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저의 감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이번의 비도 또 흡족하지 못하지만, 구름 기운이 흠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한줄기 콕콕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저는 기우제를 다만 이후에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형세를 살피고 진행하거나 중지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8. 1902년(광무 6) 6월 8일(양력 7월 12일)

慶尙監營啓錄 6 (20b~21b)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8d~509c)

道內農形雨澤與祈雨祭設行及去月二十九日臣營下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七日之雨, 前啓外, 迎日得二犁, 慶州·英陽得一犁, 安東·順興·巨濟·醴泉·豐基·昆陽·龍宮·彥陽·眞寶·咸昌·新寧·聞慶等十二邑, 得一鋤, 河東·草溪·咸陽·禮安等四邑, 涸塵而止是白遣, 二十九日之雨, 慶州得二犁, 蔚山·青松·昆陽·南海·彥陽·迎日·英陽等七邑, 得一犁, 巨濟·固城·安義等三邑, 得二鋤, 安東·尙州·晉州·星州·大丘·金海·寧海·密陽·東萊·善山·仁同·漆谷·河東·居昌·清道·草溪·醴泉·榮川·豐基·梁山·咸安·陝川·金山·盈德·義城·慶山·開寧·宜寧·河陽·龍宮·眞寶·咸昌·高靈·山淸·丹城·軍威·義興·新寧·靈山·昌寧·泗川·機張·三嘉·比安·慈仁·柒原·聞慶等四十七邑, 得一鋤, 昌原·咸陽·奉化·知禮·玄風等五邑涸塵, 餘外各邑, 姑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段, 高靈·丹城, 十次設行, 星州·金海·密陽·玄風等四邑, 九次設行, 草溪·永川·興海·咸昌·新寧等五邑, 八次設行, 青松·漆谷·河東·居昌·咸陽·醴泉·咸安·開寧·宜寧·義興·安義等十一邑, 七次設行, 昌原·善山·彥陽·眞寶·三嘉·柒原·聞慶等七邑, 六次設行, 晉州·蔚山·清道·梁山·義城·軍宮[龍宮]·知禮·禮安·昌寧·泗川·慈仁等十一邑, 五次設行, 豐基·奉化·山淸·軍威·迎日·比安·英陽等七邑, 四次設行, 大丘·順興·陝川·固城等四邑, 三次設行, 安東再次設行, 前啓外, 金山再次設行, 河陽初次設行是白遣. 農形段, 春秋牟麥, 已盡登場, 早秧堤汙近處, 間或初鋤, 晚秧雨後向蘊, 移插無望, 早黍·粟·豆·太, 土壤帶濕, 鋤治方始, 而萎損全棄者, 代以根耕, 木綿連加鋤培, 麻稗方始刈穫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又於今初三日寅時始雨, 或霏或灑, 初六日酉時至, 爲一寸四分是白遣, 初七日午未兩時之間, 一場驟霖, 爲二寸二分是白遣, 夜自五更雩霏, 至初八日卯時止歇, 爲二寸八分是白乎. 則測雨器前後水深, 合爲六寸四分是白如乎, 第以近郊觀之, 大小川渠, 無不漲流, 高低之地, 優得周洽, 早晚之秧, 可以齊插是白乎乃, 已焦之坂, 間多有秧不足之歎, 而久旱[旱]大霈, 縱恨晚時, 實爲萬幸, 雲氣不散, 餘意尙濃是白乎等以, 臣祈雨祭仍爲停止. 各邑所得多寡, 待其齊報, 續卽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과 기우제 시행 및 지난달 29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영일은 2려가 내렸고, 경주·영양은 1려가 내렸고, 안동·순흥·거제·예천·풍기·곤양·용궁·연양·진보·함창·신녕·문경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하동·초계·함양·예안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며, 29일의 비로 경주는 2려가 내렸고, 울산·청송·곤양·남해·연양·영일·영양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제·고성·안의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동·상주·진주·성주·대구·김해·영해·밀양·동래·선산·인동·칠곡·하동·거창·청도·초계·예천·영천·풍기·양산·함안·합천·김산·영덕·의성·경산·개령·의령·하양·용궁·진보·함창·고령·산청·단성·군위·의흥·신녕·영산·창녕·사천·기장·삼가·비안·자인·칠원·문경 등 4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창원·함양·봉화·지례·현풍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그 밖의 각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고령·단성은 10차례 시행하였고, 성주·김해·밀양·현풍 등 4개 고을은 9차례 시행하였고, 초계·영천·홍해·함창·신녕 등 5개 고을은 8차례 시행하였고, 청송·칠곡·하동·거창·함양·예천·함안·개령·의령·의흥·안의 등 11개 고을은 7차례 시행하였고, 창원·선산·연양·진보·삼가·칠원·문경 등 7개 고을은 6차례 시행하였고, 진주·울산·청도·양산·의성·군위·지례·예안·창녕·사천·자인 등 11개 고을은 5차례 시행하였고, 풍기·봉화·산청·용궁·영일·비안·영양 등 7개 고을은 4차례 시행하였고, 대구·순흥·합천·고성 등 4개 고을은 3차례 시행하였고, 안동은 2차례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김산은 2차례 시행하였고, 하양은 1차례 시행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가을보리는 이미 다 타작했고, 방죽·둑과 보 근처에 일찍 모내기한 것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비온 뒤 되살아나서 늦게 모내기하는 것은 옮겨심을 가망이 없으며,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팍은 흙이 습기를 띠어 김매기를 막 시작하는데, 시들어 손상되어 전부 포기한 것은 대신 그루같이하고, 목화는 연이어 김을 매고 땅을 북돋우며, 삼은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또 이번 초3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1치 4푼이었고, 초7일 오시와 미시 사이에 한바탕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2치 2푼이었으며, 밤 5경부터 다시 짹짹 쏟아지다가 초8일 묘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2치 8푼이었습니다. 측우기 수심은 지금까지 총 6치 4푼입니다. 다만 근교로 보자면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는 곳이 없고 높고 낮은

지역이 넉넉하게 두루 흡족하니, 이르든 늦든 모내기하는 것은 모두 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타버린 못자리는 그사이에 모가 부족하다는 탄식이 많습니다. 오랜 가뭄에 큰비가 설령 때가 늦은 것을 한탄하였으나 정말로 매우 다행스럽게도 구름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어서 저는 기우제를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79. 1902년(광무 6) 6월 12일(양력 7월 16일)

慶尙監營啓錄 6 (22a~23a)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09d~510c)

道內農形雨澤與祈雨祭設行, 及今初三日以初八日至, 臣營下得雨六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九日之雨, 前啓外, 順興得一犁, 榮川·興海·清河·禮安·長鬐·熊川等六邑, 得一鋤是白遣, 初八日至雨, 昌原·星州·大丘·密陽·仁同·漆谷·居昌·清道·咸陽·梁山·金山·慶山·宜寧·河陽·彥陽·高靈·玄風·三嘉·慈仁·柒原·安義等二十一邑, 川渠俱漲, 高低周洽, 新寧·靈山等二邑, 一境之內, 或爲川漲, 或爲一鋤, 義城·開寧·咸昌·義興·聞慶等五邑, 得二犁, 蔚山·昌寧得一犁, 安東·尙州·順興·醴泉·榮川·豐基·龍宮·軍威·比安等九邑, 初六日至, 得二犁, 慶州·寧海·永川·奉化·眞寶等五邑, 初五日至, 得一犁, 餘外各邑, 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 玄風十二次設行, 星州·金海·密陽·興海·咸昌·高靈等六邑, 十一次設行, 草溪·咸陽·丹城等三邑, 十次設行, 青松·永川·醴泉·宜寧·義興·聞慶·安義等七邑, 九次設行, 漆谷·河東·居昌·咸安·開寧·熊川等六邑, 八次設行, 昌原·義城·彥陽·軍威·三嘉·柒原等六邑, 七次設行, 晉州·梁山·龍宮·知禮·禮安·昌寧·泗川·比安等八邑, 六次設行, 順興·豐基·陝川等三邑, 五次設行, 尙州·鎭海·靈山等三邑, 四次設行, 安東·金山三次設行, 前啓外, 仁同再次設行, 慶山初次設行. 而慶州·昌原·星州·大丘·蔚山·密陽·仁同·漆谷·順興·巨濟·居昌·清道·咸陽·永川·豐基·梁山·金山·義城·慶山·南海·開寧·宜寧·河陽·奉化·眞寶·高靈·玄風·義興·迎日·靈山·三嘉·慈仁·英陽·柒原·聞慶·安義等三十六邑, 得雨停止, 寧海·榮川·昆陽等三邑, 間因空官, 初不設禱, 東萊·盈德·清河·長鬐·機張等五邑, 前已停止, 其餘二十一邑, 姑無所報, 草溪·陝川·軍威·新寧·昌寧·比安等六邑, 更請仍設是白遣. 農形段, 早稻之已移者, 青潤勃興, (早)晚秧之在坂者, 隨水移插, 早豆·太·黍·粟, 枯而還蘓, 頓然改觀, 根種方張耕播, 木綿早不甚損, 雨又善就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之雨, 雖幸優洽, 終始驟霍, 猶多不均, 程途稍遠之邑, 所得多寡, 姑未預料, 而際茲添霈, 方切顙祝是白乎旃, 纔因備邊司啓下關, 不待齊報, 爲先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과 기우제 시행 및 이번 초3일부터 초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9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순흥은 1려가 내렸고, 영천·홍해·청하·예안·장기·웅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초8일에 이르러 비는 창원·성주·대구·밀양·인동·칠곡·거창·청도·함양·양산·김산·경산·의령·하양·언양·고령·현풍·삼가·자인·철원·안의 등 2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모두 불어나고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흠족하며, 신녕·영산 등 2개 고을은 온 지역 내에 더러는 시내가 불어나고 더러는 1서가 내렸으며, 의성·개령·함창·의흥·문경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울산·창녕은 1려가 내렸고, 안동·상주·순흥·예천·영천·풍기·용궁·군위·비안 등 9개 고을은 초6일에 이르러 2려가 내렸고, 경주·영해·영천·봉화·진보 등 5개 고을은 초5일에 이르러 1려가 내렸고,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현풍은 12차례 시행하였고, 성주·김해·밀양·홍해·함창·고령 등 6개 고을은 11차례 시행하였고, 초계·함양·단성 등 3개 고을은 10차례 시행하였고, 청송·영천·예천·의령·의흥·문경·안의 등 7개 고을은 9차례 시행하였고, 칠곡·하동·거창·함안·개령·웅천 등 6개 고을은 8차례 시행하였고, 창원·의성·언양·군위·삼가·철원 등 6개 고을은 7차례 시행하였고, 진주·양산·용궁·지례·예안·창녕·사천·비안 등 8개 고을은 6차례 시행하였고, 순흥·풍기·함천 등 3개 고을은 5차례 시행하였고, 상주·진해·영산 등 3개 고을은 4차례 시행하였고, 안동·김산은 3차례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인동은 2차례 시행하였고, 경산은 1차례 시행하였으며, 경주·창원·성주·대구·울산·밀양·인동·칠곡·순흥·거제·거창·청도·함양·영천·풍기·양산·김산·의성·경산·남해·개령·의령·하양·봉화·진보·고령·현풍·의흥·영일·영산·삼가·자인·영양·철원·문경·안의 등 36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으며, 영해·영천·곤양 등 3개 고을은 그사이에 수령 자리가 비어 애당초 시행하여 빌지 않았으며, 동래·영덕·청하·장기·기장 등 5개 고을은 앞서 이미 중지하였다고, 그 밖의 21개 고을은 아직 보고가 없으며, 초계·함천·군위·신녕·창녕·비안 등 6개 고을은 다시 요청하여 이내 시행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로 이미 옮겨 심은 것은 푸르르게 윤기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르든 늦든 못자리에 있는 것은 물에 따라 옮겨 심고 올콩·올팍과 올기장·올조는 말랐다가 되살아나서 갑자기 달라 보이고 그루같이하는 것은 한창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목화는 가뭄으로 손해가 심하지 않고 비가 와서 또 잘 여문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이번 비는 비록 다행히 넉넉하게 흠족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소나기로 주룩주룩 내려서

오히려 고르지 않은 곳이 많고 지나는 길에서 조금 먼 고을에 내린 양은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즈음에 주룩주룩 더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좀 전에 비변사에서 임금님의 결재를 받아 내린 공문으로 인해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0. 1902년(광무 6) 6월 18일(양력 7월 22일)

慶尙監營啓錄 6 (26a~27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2c~513a)

道內雨澤農形及祈雨祭停止與仍行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初八日至雨, 前啓外, 東萊江川漲溢, 汚下被沈, 醴泉·豐基·龍宮·奉化等四邑, 川渠俱漲, 慶州·山淸·熊川·英陽等四邑, 得二犁, 金海·青松·順興·巨濟·咸安·陝川·鎭海·眞寶·丹城·禮安·機張等十一邑, 得一犁, 善山·河東·草溪·昆陽·固城·長鬐·泗川等七邑, 得二犁, 晉州·淸河·迎日等三邑, 得一鋤, 興海·盈德·南海等三邑, 仍無所報. 知禮得二犁, 而北面四洞, 雨暴山崩, 人命淹死, 民戶漂沒, 數既夥多, 金山地接知禮, 同時之壓死漂戶, 亦甚不少是如是白遣. 祈雨祭段, 丹城十七次, 咸昌十四次, 興海十三次, 草溪十二次, 青松十一次, 咸安·軍威·新寧等三邑九次, 晉州·昌寧·泗川等三邑八次, 善山·龍宮·禮安·比安等四邑七次, 尙州·鎭海·山淸等三邑六次, 並只設行. 前啓外, 昆陽近始設禱, 已行三次, 而金海·醴泉·咸安·龍宮·彥陽·鎭海·知禮·山淸·禮安·熊川等十邑, 得雨停止, 尙州·晉州·青松·善山·草溪·興海·昆陽·陝川·咸昌·丹城·軍威·泗川·比安等十三邑, 姑未停禱, 安東·河東·固城·新寧·昌寧等五邑, 觀勢進退是如是白遣. 農形段, 早稻方張再鋤, 晚秧之方移者, 堤洑引水處外, 猶患乾涸, 間多萎蕪, 亦有丁牛未備, 秧種不足者, 庚後移插, 已屬晚時, 至於雨纔鋤犁之邑, 奉天高燥之地, 多以晚種代播. 早黍·粟·豆·太, 青潤向茁, 根耕次第出土, 麻桑幾盡刈穫, 木綿連加鋤培, 而河東·草溪等二邑, 早稻間有蟲蝕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雨不均洽, 暘又烈曝, 田穀雖幸滋潤, 秧多未移, 移亦旋萎, 祈雨祭未停, 至爲十三邑之多, 際此一霈, 方切顛望是白在如中, 臣營下今十六日申時始雨, 連宵霏霂, 十七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八分, 而雲陰不散, 雨意尙濃是白如乎, 望餘之雨, 反涉過中, 而列邑所得多寡, 方待齊報. 金山·知禮漂淹形止, 待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 및 기우제 중지와 이내 시행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초8일에 이르러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동래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서 낮은 곳은 물에 잠기고, 예천·풍가·용궁·봉화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모두 불어났고, 경주·산청·웅천·영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김해·청송·순흥·거제·함안·합천·진해·진보·단성·예안·기장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선산·하동·초계·곤양·고성·장가·사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진주·청하·영일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해·영덕·남해 등 3개 고을은 이내 보고가 없으며, 지례는 2려가 내렸는데 북면 4개 동네에 갑작스러운 비로 산이 무너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민가가 떠내려가 없어진 수가 이미 술하게 많고, 김산은 지역이 지례와 맞닿았는데 동시에 깔려 죽거나 떠내려간 가구 또한 심한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우제의 경우, 단성은 17차례, 함창은 14차례, 홍해는 13차례, 초계는 12차례, 청송은 11차례, 함안·군위·신녕 등 3개 고을은 9차례, 진주·창녕·사천 등 3개 고을은 8차례, 선산·용궁·예안·비안 등 4개 고을은 7차례, 상주·진해·산청 등 3개 고을은 6차례 모두 시행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곤양은 요즈음 비로소 시행하여 비는데 이미 3차례 시행했으나, 김해·예천·함안·용궁·언양·진해·지례·산청·예안·웅천 등 10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상주·진주·청송·선산·초계·홍해·곤양·합천·함창·단성·군위·사천·비안 등 13개 고을은 일단 빌기를 중지하지 않았으며, 안동·하동·고성·신녕·창녕 등 5개 고을은 형세를 보아 진행하거나 중지한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하고 늦게 모내기하는 것으로 막 옮겨 심는 것은 방죽·둑과 보에서 물을 끄는 곳 외에는 오히려 바짝 마를까 근심이고 그사이에 시들어 버린 것이 많으며 또한 일소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모종이 부족한 경우 3경 후에 옮겨 심으면 임 때가 늦은 셈이며, 비가 겨우 1서·1려가 온 고을의 경우 하늘만 바라보거나 높고 메마른 지역은 늦은 종자로 대신 씨앗을 뿌리고,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팥은 푸르게 윤기가 나고 싹이 자라며, 그루같이한 것은 차례로 땅 밖으로 나오고, 삼은 거의 다 베어 수확하고, 목화는 연이어 김을 매고 땅을 복돋우는데, 하동·초계 등 2개 고을은 올벼를 그사이에 벌레가 먹고 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비가 고르게 흠족하지 않고 햇볕이 또 맹렬히 내리쬘니 밭곡식은 비록 다행히 촉촉하지만 모는 많이 옮겨 심지 못했고 옮겨 심은 것 또한 곧바로 시들어 기우제를 중지하지 못한 곳이 13개 고을이나 되니, 이즈음에 한차례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1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콕콕 쏟아지더니 17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8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습니다. 갈망하던 끝의 비가 절반은 한도를 넘었는데,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바야흐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김산·지례의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경위는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1. 1902년(광무 6) 6월 23일(양력 7월 27일)

慶尙監營啓錄 6 (28a~29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3d~514b)

道內雨澤農形, 祈雨祭停止與仍行, 及今十六日以十七日至, 臣營下得雨六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靈山邑基後靈鷲山, 巖石崩下, 急水暴至, 民家間或漂壓, 人命亦有渰死, 而防築舉多潰缺, 陵谷幾乎變遷是如是白遣, 密陽·草溪·梁山·咸安·宜寧·玄風·柒原等七邑, 江水漲濫, 浦野沈沒, 被損淺深, 水退後更報是如是白遣, 慶州·星州·大丘·居昌·陝川·丹城·泗川等七邑, 川渠漲溢, 汰覆居多, 尙州·晉州·蔚山·仁同·漆谷·清道·咸陽·榮川·豐基·昆陽·慶山·開寧·河陽·彥陽·知禮·高靈·義興·新寧·昌寧·三嘉·慈仁·安義等二十二邑, 川漲堤滿, 高低周洽, 安東·青松·善山·順興·永川·醴泉·金山·義城·龍宮·軍威·比安等十一邑, 得二犁, 昌原·巨濟·興海·禮安等四邑, 得一犁, 餘外諸邑, 未及報來是白遣. 祈雨祭段, 丹城十八次, 興海十五次, 草溪十三次, 青松十二次, 晉州·軍威十次, 泗川九次, 善山八次, 尙州·陝川·比安七次, 昆陽六次, 安東四次設行, 而安東·尙州·晉州·青松·善山·草溪·興海·昆陽·陝川·丹城·軍威·新寧·泗川·昌寧等十四邑, 得雨停止, 河東·固城·咸昌·比安等四邑, 停行之間, 姑無所報是白如中, 臣營下又於今二十日未時始雨, 一場暴霖, 繼以雩霰, 間或霏灑, 至二十二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八分是白如乎, 前雨過中, 今霖又添, 第以近郊觀之, 原野沈墊, 不無反害之慮, 而各邑所得多寡, 及靈山漂渰形止, 待其更報, 迫于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 기우제 중지와 시행 및 이번 16일부터 17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산 고을 터 뒤의 영축산 암석이 무너져 내리고 급한 물살이 갑자기 이르러 민가가 간혹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 또한 물에 빠져 죽었으며, 방둑은 대부분 터지고 언덕이나 골짜기는 거의 변했다고 합니다. 밀양·초계·양산·함안·의령·현풍·칠원 등 7개 고을은 강물이 불어나 범람하여 포구와 들이 잠겨버려 입은 손해가 적은지 많은지는 물이 빠진 뒤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경주·성주·대구·거창·함천·단성·사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고 사태로 뒤덮인 곳이 다수이고,

상주·진주·울산·인동·칠곡·청도·함양·영천·풍기·곤양·경산·개령·하양·언양·지례·고령·의  
흥·신녕·창녕·삼가·자인·안의 등 22개 고을은 시내가 불어나 방죽·둑에 가득 차고,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하며, 안동·청송·선산·순흥·영천·예천·김산·의성·용궁·군위·비안 등  
11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창원·거제·홍해·예안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단성은 18차례, 홍해는 1차례, 초계는 13차례, 진주·군위는 10차례, 사천  
은 9차례, 선산은 8차례, 상주·합천·비안은 7차례, 곤양은 6차례, 안동은 4차례 시행하였  
으며, 안동·상주·진주·청송·선산·초계·홍해·곤양·합천·단성·군위·신녕·사천·창녕 등 14개  
고을은 비가 내려 중지하였고, 하동·고성·함창·비안 등 4개 고을은 중지하였는지 시행했  
는지 아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저의 감영은 또 이번 2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한바탕 갑자기 주룩주룩 쏟아지  
더니 계속해서 짹짹 쏟아지거나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더니 22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8푼이었습니다. 이전의 비가 한도를 넘었고, 지금  
주룩주룩 내려서 또 더했는데, 다만 근교로 보자면 벌판이 물에 잠기고 도리어 해로울  
염려가 없지 않은데, 각 고을에 내린 양 및 영산에서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경위는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  
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82. 1902년(광무 6) 6월 26일(양력 7월 30일)

慶尙監營啓錄 6 (29a~29b)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4b~514d)

金山·知禮漂渰形止, 待摘奸報來, 迫于登聞之意,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到付知禮縣監崔鍾駿牒呈內, 本縣北面馬山·水鐵·上舉·伏虎四洞之間, 有一高峯, 今初八日翻覆之雨, 猝致汰落, 狂濤疊石, 左右衝激, 陵谷變遷, 便作劫界, 四洞之人命渰死, 爲十九名, 民家漂沒, 爲五十九戶, 甚或全洞成墟, 亦有渾家合沒, 尋屍而沿溪哀號, 失巢而登山棲屑, 景色愁慘是如是白遣, 金山郡守張照牒呈內, 本郡代項面, 處在黃岳山下, 而今初八日之雨, 穹巖墮落, 谷水衝射, 一面如入滄桑, 民家漂壓爲二十六戶, 人命渰死爲十三名, 金泉面卽知禮下流, 而水勢暴漲, 村落沈沒, 民家漂頽爲三十三戶, 人命渰死爲一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伊日驟霖, 不能均洽, 而獨此兩邑, 被害偏甚, 通計漂壓爲一百十八戶, 渰死爲三十三名之多, 聞極驚慘. 卽遣編裨, 使之摘奸, 則回告一如邑報是白乎等以, 元恤典依例題給, 亦自臣營, 別給穀物, 另加慰諭, 爲先結幕而依接, 助需而厚埋, 知委附近面里, 許材借丁, 俾爲不日改構奠接事, 申飭各該邑爲白乎脉, 同漂頽戶及渰死人統戶·役·姓名, 成冊修正, 上送于常賑廳,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김산·지례에서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 죽은 경위는 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뢰겠다는 뜻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지례 현감 최중준이 바친 공문 내용에,

“본 지례현 북면 마산·수철·상가·복호 4개 동네 사이에 높은 봉우리가 한 있는데, 이번 초8일에 하늘과 땅을 뒤덮는 듯한 비로 갑자기 사태가 나서 미친 듯한 물결과 겹겹의 돌이 좌우에서 부딪치고 언덕과 골짜기가 바뀌고 문득 어수선했던 세계를 만들어 4개 동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9명이고, 떠내려가 버린 민가가 59가구이며, 심하게는 더러 온 동네가 폐허가 되고 또한 온 집안이 함께 없어졌는데, 시체를 찾으려 개울을 따라 슬프게 부르짖거나 거처를 잃고 산에 올라 떠도는 모습이 슬프고 참혹합니다.”라고 합니다. 김산 군수 장조가 바친 공문 내용에,

“본 김산군 대항면은 황악산 아래에 있는데, 이번 초8일의 비로 궁암이 추락하고 골짜기



물이 쏜듯이 부딪혀서 온 면이 바다로 변한 것 같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가 26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3명입니다. 김천면은 바로 지례의 하류인데 물의 형세가 갑자기 불어나 마을이 침몰하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가 33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입니다.”

라고 공문을 바쳤습니다. 그날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려 고르게 흡족할 수 없었는데, 유독 이 2개 고을은 피해가 특별히 심하여 통틀어 계산하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가 118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3명이나 됩니다. 듣기에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하여 즉시 비서를 보내 캐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아뢴 것이 고을의 보고와 하나처럼 같았습니다. 따라서 기본 구호는 규정에 따라 결정문을 주고 또한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곡물을 주고 특별히 위로하여 달래고 우선 장막을 엮어 머물도록 하고 장례 준비물을 도와 넉넉하게 매장하도록 하며 부근의 면과 마을에 알려 재목과 일꾼을 빌려주어 하루빨리 고쳐 지어서 편안히 머물도록 하라는 일로 각각 해당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통·호와 직역·성명을 성책으로 바르게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3. 1902년(광무 6) 6월 29일(양력 8월 2일)

慶尙監營啓錄 6 (33a~33b) /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7a~517c)

道內各邑雨澤, 及今二十日以二十二日至, 臣營下得雨五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七日之雨, 前啓外, 河東段, 蟾津·舟橋·橫川三水, 一時竝漲, 沿江七面, 盡入沈沒, 被害淺深, 待水退更報是如是白遣, 東萊江川漲溢, 汚下被沈, 金海·固城·奉化·眞寶·山淸·英陽等六邑, 川渠漲流, 咸昌·迎日·長髻·機張等四邑, 得二犁, 寧海·盈德·清河·鎭海·聞慶等五邑, 得一犁, 熊川得一鋤, 南海涸塵而止是如是白遣. 二十二日之雨, 密陽·梁山等二邑, 舊漲未退, 新水添積, 沿江浦野, 一望成海, 被損形止, 水退後更報是如是白遣, 尙州·星州·大丘·善山·漆谷·草溪·陝川·開寧·宜寧·高靈·玄風等十一邑, 江川添漲, 防決而沙覆, 水渟而苗偃, 受損不少, 慶州·安東·晉州·仁同·居昌·淸道·咸陽·永川·咸安·昆陽·金山·義城·慶山·河陽·清河·彦陽·咸昌·丹城·軍威·義興·新寧·昌寧·三嘉·比安·英陽等二十五邑, 川渠大漲, 間有汰落之患, 昌原·河東·安義等三邑, 得二犁, 南海得一犁, 餘外各邑, 未及報來是白遣. 祈雨段, 咸昌十五次設行, 而與河東·固城·比安, 竝爲停止, 海南則前雨未洽, 更爲設禱是如是白遣. 農形段, 早稻再鋤幾畢, 晚秧已盡移插, 代播之低汚處, 水多渟滯, 不善立苗, 早黍·粟·豆·太, 稍高之地, 鋤培向苗, 稍卑之地, 惱雨萎縮, 根耕方始初鋤, 木綿起花結顆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 又於今二十四日寅時始雨, 或灑或止, 霏微不絕, 至二十八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如乎, 甘露浹旬, 反多爲害, 言念民事, 方切憂悶, 而列邑所得多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각 고을의 우택 및 이번 20일부터 22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하동은 섬진·주교·황천 3개 강이 일시에 모두 불어나 강가의 7개 면에 모두 들어와 잠겨버렸는데 피해의 많고 적음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동래는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서 낮은 곳이 침수되고, 김해·고성·봉화·진보·산청·영양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함창·영일·장가·기장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영해·영덕·청하·진해·문경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천은 1서가 내렸고, 남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22일의 비로 밀양·양산 등 2개 고을은 이전에 불어난 것이 빠지지 않은 데다 새로운 물이 더해서 쌓여 강가의 포구와 들이 한눈에 보기에 바다가 되었는데 피해의 경위는 물이 빠진 뒤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상주·성주·대구·선산·칠곡·초계·함천·개령·의령·고령·현풍 등 11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추가로 불어나 방죽·둑이 터지고 모래로 덮였으며 물이 모이고 짝이 쓰러져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경주·안동·진주·인동·거창·청도·함양·영천·함안·곤양·김산·의성·경산·하양·청하·언양·함창·단성·군위·의흥·신녕·창녕·삼가·비안·영양 등 2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서 그사이에 사태가 날 근심이 있고, 창원·하동·안의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남해는 1려가 내렸으며,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함창은 15차례 시행하였는데 하동·고성·비안과 더불어 모두 중지하였고, 해남은 이전의 비가 흠족하지 못하여 다시 시행하여 빌겠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게 모내는 것은 이미 다 옮겨 심었으며, 낮은 곳에 대신 씨앗을 뿌린 것은 물이 많이 고여 짝이 잘 돋지 않고,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팍은 조금 높은 지역은 김을 매고 땅을 복돋워 짝이 자라고 있지만 조금 낮은 지역은 지나친 비로 시들어 쪼그라들고 그루같이한 것은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를 맺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또 이번 24일 인시에 더러 뿌리거나 더러 그치고, 부슬부슬 내리며 끊어지지 않더니 28일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열흘 동안의 단비는 도리어 피해가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바야흐로 근심과 걱정이 절실합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4. 1902년(광무 6) 7월 8일(양력 8월 11일)

慶尙監營啓錄 6 (34b~35a) /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7d~518c)

道內雨澤農形, 及去月二十四日以二十八日至, 臣營下得雨二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二日之雨, 前啓外, 金海段, 洛江漲溢, 沿浦沈沒, 堤築潰缺, 寧海·迎日, 川渠泛濫, 水勢遍野, 蔚山·東萊·醴泉·榮川·興海·柒原等六邑, 江川添漲, 污下淳滯, 巨濟風雨交作, 各穀靡偃, 青松·順興·豐基·盈德·固城·龍宮·奉化·鎮海·眞寶·知禮·山清·禮安·長髻·靈山·泗川·機張·熊川·慈仁·聞慶等十九邑, 川漲堤滿, 間有汰覆是如是白遣. 二十八日之雨, 金海·密陽·梁山等三邑, 宿水新漲, 浹旬瀰亘, 浦野已判消瀾, 峽面又多汰落, 蔚山·迎日, 江漲潮逆, 鹹水沒浦, 而傍近民家, 亦多頽壓, 東萊·善山, 江川大漲, 污下久浸, 人家漂頽, 禾穀萎損, 慶州·尙州·星州·寧海·青松·漆谷·居昌·清道·草溪·永川·醴泉·咸安·陝川·金山·義城·慶山·開寧·宜寧·彥陽·眞寶·咸昌·高靈·玄風·丹城·新寧·禮安·長髻·靈山·昌寧·比安·英陽·柒原等三十二邑, 大小江川, 無不漲溢, 沈者仍沈, 潰者益潰, 被害淺深, 姑難料度, 興海·機張·熊川等三邑, 大風挾雨, 平陸成江, 畦塍蕩漾, 受損偏甚, 安東·晉州·大丘·仁同·順興·巨濟·榮川·豐基·昆陽·盈德·固城·南海·河陽·龍宮·奉化·清河·鎮海·知禮·軍威·義興·三嘉·慈仁·聞慶·等二十三邑, 川渠大漲, 沈覆間多, 而南海祈雨祭, 仍爲停止, 河東·山清·泗川等三邑, 得二犁, 昌原·咸陽得一犁, 安義得二鋤是如是白遣. 農形段, 早稻間或三鋤, 長葉抽出, 晚移方始初鋤, 尙有秧態, 而水沈者朽棄, 波蕩者披靡. 早黍·粟·豆·太, 連向茁茂, 而污濕之地, 委黃居多. 根耕土壤沮洳, 無望鋤培, 代播高纔立苗, 卑不托根, 木綿早結顆囊, 惱雨腐落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一雨支離於始旱之餘, 三農偏損於沿峽之地, 言念民事, 去益切悶, 而向後雨暘, 苟能調和, 早晚各穀, 庶收桑榆是白乎旆, 各邑漂頽戶, 待其摘奸更報, 迫于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2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김해는 낙동강이 불어나 넘쳐서 강가 포구가 물에 잠기고 방죽·둑이 터졌으며, 영해·영일은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여 물의 힘이 들에 두루

미쳤고, 울산·동래·예천·영천·홍해·칠원 등 6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더 불어나고 낮은 곳은 물이 고였으며, 거제는 바람과 비가 번갈아 일어나면서 각종 곡식이 쓰러지고, 청송·순흥·풍기·영덕·고성·용궁·봉화·진해·진보·지례·산청·예안·장기·영산·사천·기장·웅천·자인·문경 등 19개 고을은 시내가 불어나 방죽·둑에 가득 차고, 그사이에 사태로 뒤덮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28일의 비로 김해·밀양·양산 등 3개 고을은 묵은 물이 새로 불어나 열흘 동안 세차게 흘러 포구와 들의 곡식은 이미 녹아버린 것으로 판가를 냈고 산골짜기의 면은 또 사태로 떨어져 나가 곳이 많고, 울산·영일은 강이 불어나고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 잔물에 포구가 잠기고 물에 가까운 민가 또한 많이 무너졌으며, 동래·선산은 강과 시내가 크게 불어나서 낮은 곳은 오래 잠기고 인가는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벼는 시들어 손상되었으며, 경주·상주·성주·영해·청송·칠곡·거창·청도·초계·영천·예천·함안·함천·김산·의성·경산·개령·의령·안양·진보·함창·고령·현풍·단성·신녕·예안·장기·영산·창녕·비안·영양·칠원 등 32개 고을은 크고 작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어 잠긴 것은 그대로 잠기고 터진 곳은 더욱 터졌는데 피해가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헤아리기 어려우며, 홍해·기장·웅천 등 3개 고을은 강풍을 동반한 비로 평평한 육지는 강이 되고 밭두둑은 물이 출렁이며 입은 손해가 매우 심하고, 안동·진주·대구·인동·순흥·거제·영천·풍기·곤양·영덕·고성·남해·하양·용궁·봉화·청하·진해·지례·군위·의흥·삼가·자인·문경 등 2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 잠기거나 뒤덮인 곳이 그사이에 많은데, 남해는 기우제를 이내 중지하였고, 하동·산청·사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창원·함양은 1려가 내렸고, 안의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세벌 김매기하고 앞이 길게 나와 자라고 있으며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막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모의 모양이 있는데, 물에 잠긴 것은 썩어서 포기하고 물결에 휩쓸린 것은 꺾여 쓰러졌으며, 올기장·올조와 올콩·올팥은 연이어 싹이 무성해지는데 낮거나 축축한 지역은 시들고 누렇게 된 것이 다수이며, 그루 갈이한 것은 흙이 젖어서 김을 매고 땅을 복돋울 가망이 없으며, 대신 씨앗을 뿌린 것은 높은 곳은 겨우 싹이 돋고 낮은 곳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묵화는 일찍 다래나 꽃주머니를 맺은 것은 심한 비로 썩어서 떨어진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처음에 가물던 끝에 한차례 비가 지루하게 오니 3차례 농사가 연안이나 골짜기 지역에 두루 손상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이 절실합니다. 이후에는 비와 햇볕이 진실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이른 것이든 늦은 것이든 각종 곡식을 아마도 늦게나마 거둘 것입니다.  
각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캐내서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85. 1902년(광무 6) 7월 13일(양력 8월 16일)

慶尙監營啓錄 6 (35b~35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8c~518c)

道內農形及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十一日丑時始雨, 或灑或霏, 間間霑下, 十二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 各邑所得多寡,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11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12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86. 1902년(광무 6) 7월 14일(양력 8월 17일)

慶尙監營啓錄 6 (35b~35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18d~518d)

今月十一日以十二日至, 臣營下得雨一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又於十三日酉時, 始雨霏灑, 亥時以後, 一直霏霂, 至十四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 各邑形止, 待其齊報, 迫于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또 13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해시 이후 줄곧 짹짹 쏟아지더니 14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7. 1902년(광무 6) 7월 19일(양력 8월 22일)

慶尙監營啓錄 6 (41a~42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23c~524a)

臣營下今月十一日以十二日至, 得雨一寸六分, 十三日以十四日至, 得雨二寸緣由, 纔已次第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星州·居昌·咸陽·咸安·昆陽·宜寧·高靈·玄風·昌寧·柒原等十邑, 川渠流漲, 大丘·漆谷·陝川·慶山·義興·三嘉·慈仁等七邑, 得二犁, 慶州·昌原·密陽·東萊·豐基·固城·鎭海·丹城·比安·聞慶·安義等十一邑, 得一犁, 尙州·仁同·泗川等三邑, 得二鋤, 安東·善山·清道·草溪·醴泉·榮川·梁山·河陽·咸昌·軍威·新寧·禮安·英陽等十三邑, 得一鋤, 晉州·青松·永川·金山·義城·開寧·眞寶·長鬐等八邑, 沍塵而止, 餘外諸邑, 仍無得雨之報是白遣. 十四日之雨, 晉州·星州·大丘·青松·漆谷·巨濟·醴泉·咸安·陝川·義城·慶山·宜寧·玄風·山淸·丹城·新寧·英陽等十七邑, 江川俱漲, 開寧得二犁, 昌原·密陽·善山·永川·梁山·金山·盈德·河陽·眞寶·咸昌·迎日·柒原等十二邑, 得一犁, 尙州·蔚山·興海·長鬐·安義等五邑, 得一鋤, 而猛風挾雨, 各穀受損, 外此各邑, 未及報來是白遣. 農形段, 早稻間或胚胎, 晚稻再鋤已畢, 而最晚移, 一向婆娑. 早黍粟苗茂, 早豆太起花, 根耕近纔蘖醒, 代播方始立苗. 木錦[綿]早穎之密結者, 惱雨損風, 種種腐落. 河東·草溪之蟲蝕, 雨後止熄, 而陝川·柒原之晚稻, 玄風·昌寧之早稻, 間有蟲損之漸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巨浸烈曝之餘, 兩次均洽之雨, 洗蘖低汚沈泥之苗, 潤濡高燥成堅之壤, 而但風勢所猛, 披靡居多是白在如中, 臣營下今十七日申時又雨, 始以霏灑, 終夜雩霑, 至十八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 頻仍驟霍, 反恐爲害是白如乎. 列邑所得多寡,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내린 비가 1치 6푼이고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차례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성주·거창·함양·함안·곤양·의령·고령·현풍·창녕·칠원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대구·칠곡·합천·경산·의흥·삼가·자인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경주·창원·밀양·동래·풍기·고성·진해·단성·비안·문경·안의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상주·인동·사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동·선산·청도·

초계·예천·영천·양산·하양·함창·군위·신녕·예안·영양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진주·청송·영천·김산·의성·개령·진보·장기 등 8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이내 비가 내렸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14일의 비로 진주·성주·대구·청송·칠곡·거제·예천·함안·함천·의성·경산·의령·현풍·산청·단성·신녕·영양 등 17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모두 불어났고, 개령은 2려가 내렸고, 창원·밀양·선산·영천·양산·김산·영덕·하양·진보·함창·영일·칠원 등 12개 고을에 1려가 내렸고, 상주·울산·홍해·장기·안의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비를 동반한 사나운 바람으로 각종 곡식이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는데 가장 늦게 옮겨 심은 것은 줄곧 흔들흔들하고, 올기장과 올조는 싹이 무성하고 올콩과 올팥은 꽃이 피고 그루같이한 것은 요즘 겨우 되살아나고, 대신 씨앗을 뿌린 것은 막 싹이 돋기 시작했고, 목화는 일찍 다래를 뺨뺨이 맺은 것은 바람을 동반한 심한 비로 종종 썩어서 떨어졌고, 하동·초계에서 벌레가 먹는 것은 비온 뒤에 그쳤는데, 함천·칠원의 늦벼와 현풍·창녕의 올벼는 그사이에 점차 벌레에 손상된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커다란 침수와 맹렬한 햇볕 끝에 2차례 고르게 흡족한 비로 낮은 곳의 흙탕물에 잠긴 싹을 씻어 내서 되살리고 높고 메마른 곳의 딱딱하게 된 흙을 촉촉하게 적셨는데 다만 바람의 기세가 사나운 곳은 쓰러진 것이 다수입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17일 신시에 또 비가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끝에는 콧물 쏟아지듯 18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으며, 빈번하게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려 도리어 해로울까 두렵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양은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88. 1902년(광무 6) 7월 28일(양력 8월 31일)

慶尙監營啓錄 6 (47b~48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28a~528c)

道內農形雨澤及, 今十七日以十八日至, 臣營下得雨一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前啓外, 河東江川添漲, 汚下更沈, 草溪·南海·龍宮·高靈·軍威·昌寧等六邑, 川渠漲滿, 靈山·三嘉·熊川等三邑, 得二犁, 金海·仁同·順興·清道·榮川·豐基·昆陽·固城·奉化·義興·泗川·比安·慈仁·聞慶等十四邑, 得一犁, 慶州·安東·寧海·東萊·居昌·咸陽·清河·彥陽·鎭海·知禮·禮安·機張等十二邑, 得一鋤是白遣. 十八日之雨, 晉州·星州·善山·草溪·醴泉·榮川·咸安·昆陽·陝川·慶山·高靈·玄風·丹城·新寧·英陽·聞慶等十六邑, 川渠漲溢, 汰覆間多, 大丘·東萊·漆谷·河東·三嘉等五邑, 得二犁, 仁同·居昌·宜寧·眞寶·山淸·昌寧等六邑, 得一鋤, 青松·清道·梁山·固城·鎭海·義興·泗川等七邑, 得二鋤, 昌原·尙州·蔚山·金海·密陽·巨濟·咸陽·河陽·龍宮·咸昌·軍威·靈山·機張·比安·熊川·慈仁·柒原·安義等十八邑, 得一鋤, 餘外諸邑, 俱無所報是白遣. 農形段, 早稻間或發穗, 中稻及早黍粟, 方始胚胎, 最晚移在坂老秧, 隨插含胎, 所見零殘, 食實難期. 早豆太次第結殼, 根耕茁長, 代播蕪醒, 而水沈處靡偃者, 沙覆處理沒者, 已判全棄, 木綿早顆向實, 晚花方起. 蟲蝕段, 昌寧近纔止熄, 而長鬐又爲間作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秋雨頻仍, 節序漸促, 晚種各穀, 恐難善就, 日候調和, 尤切顯祝,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 및 이번 17일부터 18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하동은 강과 시내가 더 불어나고 낮은 곳은 다시 잠겼고, 초계·남해·용궁·고령·군위·창녕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산·삼가·웅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김해·인동·순흥·청도·영천·풍기·곤양·고성·봉화·의흥·사천·비안·자인·문경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경주·안동·영해·동래·거창·함양·청하·언양·진해·지례·안의·예안·기장 등 1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8일의 비로 진주·성주·선산·초계·예천·영천·함안·곤양·합천·경산·고령·현풍·단성·신녕·영양·문경 등 1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고 사태로 뒤덮인 곳이 그사이에 많으며,

대구·동래·칠곡·하동·삼가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인동·거창·의령·진보·산청·창녕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청송·청도·양산·고성·진해·의흥·사천 등 7개 고을에 2서가 내렸고, 창원·상주·울산·김해·밀양·거제·함양·하양·용궁·함창·군위·영산·기장·비안·웅천·자인·칠원·안의 등 18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그 밖의 여러 고을은 모두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중벼 및 올기장·올조는 막 알을 배기 시작했고, 가장 늦게 옮겨 심은 못자리에서 늙은 모는 심는 대로 이삭을 품었으나 보기에 쇠약하여 열매 먹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올콩과 올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고, 그루같이한 것은 싹이 자라지만 대신 씨앗을 뿌렸는데 물에 잠긴 곳에 쓰러진 것과 모래로 뒤덮인 곳에 묻힌 것은 이미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판가름 났고, 목화는 이른 다래는 여물어 가고 늦은 꽃은 막 피고 있으며, 벌레 먹는 것의 경우 창녕은 요즘 겨우 그쳤으나 장기는 또 그사이에 발생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가을비가 빈번히 내리고 절기는 점차 재촉하는데 늦되는 각종 곡식은 아마도 잘 여물기 어려울 듯하니, 날씨가 조화롭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89. 1902년(광무 6) 8월 5일(양력 9월 6일)

慶尙監營啓錄 6 (51b~52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30d~531a)

道內農形及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次第垂穎, 中稻及早黍粟, 方始發穗, 晚稻亦既胚胎, 而近因雨澤之稍闕, 含而不發, 發而傍拆. 早豆太作房向實, 根耕善就, 代播向茁, 木綿間或綻白, 而早穎損風, 晚穎方結. 柒原蟲蝕漸滋, 甚或腐縮, 玄風不至熾蔓, 前啓外, 咸安·泗川, 蟲氣忽發, 晚移偏害, 尙州·草溪, 間有坐損是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今初四日未時, 始雨霏灑, 至初五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是白如乎, 望餘秋雨, 雖或過中, 含胎者從期潤發, 蟲損者庶可洗熄, 而各邑所得多寡,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중벼 및 올기장과 올조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늦벼 또한 이미 이삭을 뻗는데, 요즘 우택이 점점 줄어들어서 움츠리고 패지 않으며 팬 것은 옆이 벌어지고, 올콩과 올팥은 꼬투리가 여물어 가고, 그루같이한 것은 잘 여물고, 대신 씨앗을 뿌린 것은 싹이 자라고, 묵화는 간혹 숨이 터지는데 이른 다래는 바람에 손상되고 늦은 다래는 막 맺고 있으며, 칠원은 벌레 먹는 것이 점차 번지는데 심지어는 더러 썩거나 쭈그러지고, 현풍은 세차게 번지기에 이르지 않았으며, 앞서 보고한 것 외에 함안·사천은 벌레의 기세가 갑자기 발생하여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두루 해치고, 상주·초계는 그사이에 손상되는 것이 있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4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갈망하던 끝에 가을비가 비록 한도를 넘었으나 이삭을 품은 것은 기대한 대로 윤기가 나고 벌레에 손상되는 것은 아마도 씻어 내서 그칠 것 같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양은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오,……

## 0090. 1902년(광무 6) 8월 10일(양력 9월 11일)

慶尙監營啓錄 6 (55b~56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33d~533d)

道內各邑漂賴戶, 待其摘奸齊報, 迫于登聞之意, 纔已附陳於農啓中是白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蔚山段, 民家漂壓六十三戶內, 大內面十二戶, 大外面十二戶, 靑良面十一戶, 溫北面十四戶, 熊村面十四戶, 金海段, 中北面十六戶, 靈山段, 人命渰死三名, 而外此所報, 一時一處, 俱未滿十戶是白如乎. 今年雨水, 始慳終澇, 數邑民家之農節失所, 至近八十戶之多, 念其棲遑, 尤極矜憐. 元恤典依例題給, 亦自臣營, 別加顧助, 送裨慰撫, 申飭該邑, 渰死人段, 使卽厚埋, 漂壓戶段, 借材助丁, 從速結構, 以爲不日奠接之地爲白乎旆, 恤典成冊, 迫于修正上送于常賑廳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각 고을에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캐내서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뢰겠다는 뜻은 좀 전에 이미 농사 상황을 아뢰는 가운데 붙여서 진수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울산은 물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민가 63가구 중에 대내면 12가구, 대외면 12가구, 청량면 13가구, 온북면 14가구, 능천면 14가구이고, 김해는 중북면 16가구이고, 영산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이며. 이 밖에 보고한 곳으로 한 때에 한 곳에서는 모두 10가구 미만입니다. 올해 빗물은 처음에는 가물더니 끝에는 장마가 저서 여러 고을의 민가에서 농사철을 놓친 곳이 80가구 가깝도록 많으니, 떠돌며 허둥대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지없이 불쌍하고 가여우니,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또한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돌보아 도와주고 비서를 보내 위로하고 다독이며 해당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즉시 넉넉히 매장하게 하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재료를 빌려주고 일꾼을 빌려주어 신속하게 집을 지어 하루 빨리 편안히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구호 정책은 나중에 바르게 작성하여 상진청에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91. 1902년(광무 6) 8월 15일(양력 9월 16일)

慶尙監營啓錄 6 (56b~57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34c~534d)

道內農形, 及今初四日以初五日至, 臣營下得雨三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大丘·咸安·南海·玄風·靈山·昌寧·三嘉·英陽·柒原等九邑, 川渠漲流, 晉州·星州·漆谷·清道·永川·豐基·金山·固城·奉化·新寧等十邑, 得二犁, 慶州·昌原·尙州·蔚山·金海·寧海·密陽·青松·善山·仁同·順興·河東·巨濟·草溪·咸陽·昆陽·陝川·盈德·義城·慶山·開寧·宜寧·河陽·清河·彥陽·鎭海·高靈·丹城·軍威·義興·長鬐·機張·比安·熊川·慈仁等三十五邑, 得一犁, 居昌·興海·梁山·山淸·泗川·安義等六邑, 得二鋤, 安東·榮川·龍宮·眞寶·咸昌·知禮·禮安·迎日·聞慶等九邑, 得一鋤, 東萊·醴泉, 浥塵而止是白遣. 農形段, 早稻入實, 中稻及早黍粟垂穎, 晚稻次第發穗, 而顆粒零殘, 直立居多. 晚黍粟胚胎, 豆太之早者成實, 晚者結殼, 木花隨開隨摘, 木麥方張開花. 蟲蝕段, 柒原一向遍蔓, 靈山近又熾發, 尙州坐損漸次止熄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秋候已半, 年形垂成, 早種雖幸善就, 晚穀難期食實, 而通論全道, 早少晚多, 況涼意漸緊, 蟲氣間發, 言念民事, 誠極悶然,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초4일부터 초5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대구·함안·남해·현풍·영산·창녕·삼가·영양·칠원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진주·성주·칠곡·청도·영천·풍기·김산·고성·봉화·신녕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경주·창원·상주·울산·김해·영해·밀양·청송·선산·인동·순흥·하동·거제·초계·함양·곤양·합천·영덕·의성·경산·개령·의령·하양·청하·언양·진해·고령·단성·군위·의흥·장기·기장·비안·웅천·자인 등 3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거창·홍해·양산·산청·사천 안의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안동·영천·용궁·진보·함창·지례·예안·영일·문경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동래·예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알이 들고 중벼 및 올기장·올조는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는데 알맹이가 부실하며 곳곳이 선 것이 다수이고, 늦기장과 늦조는

알을 배고, 콩과 팥 중 이른 것은 알이 생기고 늦은 것은 꼬투리를 맺으며, 목화는 터지는 대로 솜을 따고, 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벌레 먹는 것의 경우, 칠원은 줄곧 두루 퍼지고, 영산은 요즘 또 세차게 발생하고, 상주는 손상되는 것이 점차 그친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가을 절기가 이미 반이 지났고 한해 농사 상황은 거의 이루어졌는데 올되는 종류는 비록 다행히 잘 여물지만 늦되는 곡식은 열매 먹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도 전체를 통틀어 따지자면 이른 것은 적고 늦은 것은 많은데, 게다가 서늘한 조짐이 점차 닥치고 서늘한 조짐이 그사이에 발생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92. 1902년(광무 6) 8월 22일(양력 9월 23일)

慶尙監營啓錄 6 (61b~61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37c~537d)

道內農形及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及早豆太, 漸次黃熟, 中稻及早黍粟入實, 晚稻穗粒零殘, 成實無幾, 晚黍粟發穗, 晚豆太向實, 木綿摘白稀疏, 有違初料. 蟲蝕段, 前雨之後, 更不熾蔓是白如爲等如, 牒呈是白在如中, 臣營下今二十日亥時始雨, 或灑或霏, 二十一日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 而此時冷雨, 痒稼可慮是白乎旆, 各邑形止, 待其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 및 올콩·올팥은 점차 누렇게 익어가고, 중벼 및 올기장·올조는 열매가 들고 늦벼 이삭과 알맹이가 부실하여 여문 열매는 거의 없으며, 늦기장과 늦조는 이삭이 패고, 늦콩과 늦팥은 여물어 가고, 목화는 솜을 따는데 드물어서 처음 생각에 어긋납니다. 벌레가 먹는 것의 경우 앞서 비가 온 뒤 다시 세차게 번지지 않는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저의 감영은 8월 20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더니 21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이때에 찬비는 벼를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93. 1902년(광무 6) 9월 2일(양력 10월 3일)

慶尙監營啓錄 6 (68a~68a) /各司謄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42d~543b)

道內農形, 及去月二十日以二十一日至, 臣營下得雨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星州·大丘·寧海·靑松·仁同·漆谷·金山·河陽·清河·眞寶·軍威·義興·新寧·禮安·長鬐·比安·英陽·聞慶等十八邑, 得二犁, 安東·昌原·尙州·晉州·金海·密陽·東萊·順興·巨濟·清道·草溪·永川·醴泉·榮川·興海·豐基·梁山·咸安·昆陽·陝川·盈德·固城·義城·慶山·南海·開寧·宜寧·龍宮·奉化·彥陽·鎭海·咸昌·知禮·高靈·玄風·丹城·迎日·靈山·昌寧·機張·三嘉·熊川·慈仁等四十三邑, 得一犁, 慶州·蔚山·善山·河東·居昌·咸陽·山淸·泗川·柒原·安義等十邑, 得二鋤是白遣. 農形段, 早稻及早豆太, 已盡黃熟, 間始刈取, 中稻及早黍粟, 漸次向熟, 晚黍粟及晚豆太, 亦皆入實, 最晚稻雖或發穗, 全不成樣, 木麥開花結穀, 木綿餘顆稀疎, 所摘零星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到今年形, 九分垂成, 而曩日之雨, 旋即開霽, 不甚痒稼, 向後之望, 惟在於日候之調曝, 霜信之差退是白乎等以,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 및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성주·대구·영해·청송·인동·칠곡·김산·하양·청하·진보·군위·의흥·신녕·예안·장기·비안·영양·문경 등 1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안동·창원·사천·진주·김해·밀양·동래·순흥·거제·청도·초계·영천·예천·영천·홍해·풍기·양산·함안·곤양·합천·영덕·고성·의성·경산·남해·개령·의령·용궁·봉화·언양·진해·함창·지례·고령·현풍·단성·영일·영산·창녕·기장·삼가·웅천·자인 등 4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경주·울산·선산·하동·거창·함양·산청·사천·칠원·안의 등 10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콩·올팥은 이미 다 누렇게 익었고 간혹 베어서 거두기 시작했으며, 중벼 및 올기장·올조는 점차 익어가고, 늦기장·늦조 및 늦콩·늦팥 또한 알이 들고, 가장 늦은 벼는 비록 더러 이삭이 패지만 온전히 모습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메밀은 꽃이 피며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남은 다래가 드물어 딸 것이 없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올해 농사 상황은 9푼을 거의 이루었는데 며칠 전의 비가 곧바로 개어서  
심하게 벼를 해치지는 않았고 이후의 가망은 오직 날씨의 조화로운 햇볕에 달렸고 서리  
소식은 조금 물러났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오,.....

0094. 1902년(광무 6) 9월 5일(양력 10월 6일)

慶尙監營啓錄 6 (69a~69b)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44a~544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初三日酉時，始雨霽，間間霏灑，初四日未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各邑形止，待其齊報，追于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경상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초3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착착 쏟아지다가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4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모두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 0095. 1902년(광무 6) 9월 13일(양력 10월 14일)

慶尙監營啓錄 6 (71a~72a) /各司臚錄 11책, 慶尙監營啓錄 7 (545d~546a)

今月初三日以初四日至, 臣營下得雨三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慶州·安東·大丘·蔚山·寧海·青松·永川·盈德·義城·清河·眞寶·玄風·軍威·迎日·長鬐·英陽·柒原等十七邑, 川渠漲滿, 星州·仁同·漆谷·慶山·河陽·義興·新寧·昌寧等八邑, 得二犁, 昌原·尙州·順興·淸道·醴泉·榮川·興海·豐基·昆陽·南海·龍宮·奉化·高靈·靈山·機張·比安·慈仁等十七邑, 得一犁, 密陽·善山·草溪·梁山·咸安·開寧·宜寧·咸昌·三嘉等九邑, 得二鋤, 晉州·金海·東萊·河東·巨濟·居昌·咸陽·陝川·金山·固城·彥陽·鎭海·知禮·山淸·丹城·禮安·泗川·聞慶·安義等二十邑, 得一鋤是白遣. 農形段, 早稻及早豆太, 次第收穫, 中稻及早黍粟, 間始刈取, 晚黍粟及晚豆太與木麥, 亦皆黃熟, 最晚稻雖或就實, 穗粒零殘, 而峽冷之地, 水沈之處, 又多有未發直立者. 木花早晚顆囊, 始稠終稀, 通計摘取, 有違初料是白遣. 晉州·居昌·泗川等三邑, 今初七日夜霜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向晚穡事, 專賴日候, 而霜信遽促, 年形已判, 謹當詳審區別, 迫于陳聞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초3일부터 초4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경주·안동·대구·울산·영해·청송·영천·영덕·의성·청하·진보·현풍·군위·영일·장기·영양·칠원 등 1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성주·인동·칠곡·경산·하양·의흥·신녕·창녕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창원·상주·순흥·청도·예천·영천·홍해·풍기·곤양·남해·용궁·봉화·고령·영산·기장·비안·자인 등 1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밀양·선산·초계·양산·함안·개령·의령·함창·삼가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진주·김해·동래·하동·거제·거창·함양·합천·김산·고성·안양·진해·지례·산청·단성·예안·사천·문경·안의 등 20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 및 올콩·올팥은 차례로 수확하고 중벼 및 올기장·올조는 그사이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 및 늦콩·늦팥과 메밀 또한 다 누렇게 익었으며, 가장 늦은 벼는 비록 더러 여물어 가지만 이삭과 알맹이가 부실하고, 산골짜기 서늘한 지역이

나 물에 잠긴 곳은 또 패지 않은 채 곳곳이 서 있는 것이 많으며, 목화는 이른 것이든 늦은 것이든 다래와 꽃주머니가 처음에는 뻣뻣하더니 끝에는 드물어 통틀어 계산하면 따서 거두는 것이 처음 계산과는 어긋납니다. 진주·거창·사천 등 3개 고을은 이번 초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늦은 철의 농사는 오로지 날씨에 달렸는데 서리 소식이 갑자기 재촉하고 올해 농사 상황은 이미 판가름 났으니, 삼가 마땅히 상세히 살펴서 구별하여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96. 1871년(고종 8) 2월 22일(양력 4월 11일)

統制營啓錄 3책(111a~111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1a~171a)

臣營管下固城府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該府使所報, 則秋牟漸向青潤, 春牟幾盡耕播, 畚庫初反耕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尠, 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해당 부사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윤기가 나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서 씨앗을 뿌렸고,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7. 1871년(고종 8) 2월 29일(양력 4월 18일)

統制營啓錄 3책(111a~111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1b~171b)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八日丑時，始雨，或霏或灑，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鋤是如爲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8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8. 1871년(고종 8) 3월 2일(양력 4월 21일)

統制營啓錄 3책(112a~112b) /各司謄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1c~171c)

去月二十八日，臣營下及固城府得雨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同月二十九日寅時，始雨，或霏或灑，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乎旃。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一鋤是白遣，農形段，秋牟漸向青茂，春牟已盡耕播，間或出土，畚庫幾盡初反耕是如爲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지난달 28일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에 내린 비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달 29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서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갈아서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흙 밖으로 싹이 나오고 논은 거의 다 초벌 갈아엎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9. 1871년(고종 8) 3월 5일(양력 4월 24일)

統制營啓錄 3책(112b~113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1d~171d)

去月二十九日, 臣營下得雨緣由及固城府得雨與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初三日辰時, 或霏或灑, 初四日卯時, 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遣, 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 則伊日之雨, 所得洽爲一鋤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지난달 29일 저의 통제영에 내린 비의 연유 및 고성부에 내린 비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3일 진시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흙죽하였는데 1서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0. 1871년(고종 8) 3월 12일(양력 5월 1일)

統制營啓錄 3책(114b~114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2d~172d)

臣營下固城府農形, 今初三日辰時, 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卯時, 止. 得雨緣由,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 則秋牟次第胚胎, 春牟立苗向青, 畚土已盡初反耕, 秧坂間或貯水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이번 초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에 그쳤는데 내린 비의 연유는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봄보리는 싹이 돋아 푸르러지고, 논이 땅은 이미 다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간혹 물을 가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01. 1871년(고종 8) 3월 22일(양력 5월 11일)

統制營啓錄 3책(120a~120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6c~176c)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日巳時，始雨，有時霏灑，連仍霏微，二十一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乎旆。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洽爲二鋤是白遣，農形段，秋牟次第胚胎，春牟漸次青茂，畝庫再反耕，秧坂間或注苗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0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때때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더니 21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흠족하게 2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못자리는 간혹 싸게 물을 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2. 1871년(고종 8) 4월 3일(양력 5월 21일)

統制營啓錄 3책(125a~125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79a~179a)

臣營管下固城府農形及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春牟次第胚胎，秋牟已爲發穗，秧板旣盡注苗，木花方今播種，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가을보리는 이미 이삭이 났고, 못자리는 이미 다 모에 물을 댔고, 목화는 방금 씨앗을 뿌리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3. 1871년(고종 8) 4월 13일(양력 5월 31일)

統制營啓錄 3책(128a~128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80d~181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春牟次第發穗，秋牟幾盡垂穎，秧苗日漸青茁，木花今纔出土，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으며, 모의 싹은 날마다 점차 푸르게 자라고, 목화는 지금 겨우 싹이 땅 밖으로 나오며,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04. 1871년(고종 8) 4월 19일(양력 6월 6일)

統制營啓錄 3책(130b~130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82b~182c)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十六日寅時始雨，連仍霏灑，十八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川渠漲流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6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8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5. 1871년(고종 8) 4월 23일(양력 6월 10일)

統制營啓錄 3책(134b~134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85a~185a)

今<月>十六日寅時, 始雨, 十八日卯時, 止, 臣營下及固城府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 則春牟次第垂穎, 秋牟漸次向熟, 秧苗日漸茁茂, 木花已盡出土, 堤  
堰·川防, 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16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8일 묘시에 그친 것과 저의 통제영 및  
고성부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모의 싹은 날마다 무성하게  
자라며,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6. 1871년(고종 8) 5월 6일(양력 6월 23일)

統制營啓錄 3책(141a~141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89a~189a)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初五日丑時，始雨，或霏或灑，酉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7. 1871년(고종 8) 5월 13일(양력 6월 30일)

統制營啓錄 3책(142a~142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89c~189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春牟與秋牟，幾盡收穫，早中稻托根向青，晚稻次第移插，木花間或鋤培，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수확했고, 올벼·중벼는 뿌리를 내리고 푸르르 가며, 늦벼는 차례로 옮겨 심고, 목화는 간혹 김을 매고 땅을 북돋우며,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8. 1871년(고종 8) 5월 17일(양력 7월 4일)

統制營啓錄 3책(143b~144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90c~190c)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十四日寅時，始雨，或霏或霑，十七日丑時，乃  
〈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川渠  
漲滿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4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7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9. 1871년(고종 8) 5월 23일(양력 7월 10일)

統制營啓錄 3책(144b~145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91a~191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春牟與秋牟盡爲收獲，早中稻間或初除草，晚稻托根向青，根耕豆太，次第出土，木花鋤治而苗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와 가을보리는 다 수확했고, 올벼·중벼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뿌리를 내리고 푸르러지고, 그루같이한 콩과 팔은 차례로 흙 밖으로 싹이 나오고, 목화는 김매기를 하는데 싹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10. 1871년(고종 8) 6월 8일(양력 7월 25일)

統制營啓錄 3책(153a~153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95b~195c)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初六日亥時，始雨，或灑或霏，初七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川渠漲滿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6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1. 1871년(고종 8) 6월 3일(양력 7월 20일)

統制營啓錄 3책(152b~153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195b~195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早中稻間或再除草，晚稻今方初除草，豆太·木花，亦爲鋤治，而次第苗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과 목화 또한 김을 매는데 차례로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12. 1871년(고종 8) 6월 13일(양력 7월 30일)

統制營啓錄 3책(165b~166a) /各司謄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04a~204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初十日寅時，始雨，或霏或注，十二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川渠漲滿，農形段，早中晚稻次第再除草，豆太·木花，亦爲鋤治，而日漸茁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10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2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중벼·늦벼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과 목화 또한 김을 매는데 날마다 점차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3. 1871년(고종 8) 6월 23일(양력 8월 9일)

統制營啓錄 3책(167b~168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05b~205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日巳時，始雨，或霏或灑，二十二日寅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犁，而農形段，早中晚稻次第三除草，豆太·木花，連爲鋤培，而日漸茁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0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려이며,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중벼·늦벼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과 목화는 연이어 김을 매고 땅을 복돋우는데, 날마다 점차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4. 1871년(고종 8) 6월 28일(양력 8월 14일)

統制營啓錄 3책(170b~171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07b~207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五日卯時，始雨，連仍霏灑，二十七日寅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寸六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川渠漲滿，畦塍沈墊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5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7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7치 6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차고, 밭두둑이 잠겼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5. 1871년(고종 8) 7월 4일(양력 8월 19일)

統制營啓錄 3책(174a~174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09c~209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早中稻間或胚胎，晚稻幾盡再除草，田種各穀，次第鋤培，而連爲苗茂，木花素非宜土，屢經雨水，貼着泥土，一直昂莊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알을 배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차례로 김을 매고 땅을 복돋우는데, 연이어 싹이 무성해지며, 목화는 본래 적절한 땅이 아닌 데다 여러 차례 빗물을 겪어 진흙에 딱 달라붙어서 줄곧 앙상하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6. 1871년(고종 8) 7월 14일(양력 8월 29일)

統制營啓錄 3책(174b~174b) /各司謄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09d~209d)

臣營管下固城府農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 則早中稻間或發穗, 晚稻方張青茂, 豆太·木花, 幾盡鋤培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는 한창 푸르게 무성해지고 있으며, 콩·팥과 목화는 거의 다 김을 매고 땅을 복돋웠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7. 1871년(고종 8) 7월 24일(양력 9월 8일)

統制營啓錄 3책(181b~181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14a~214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早中稻次第發穗，晚稻亦皆胚胎，豆太間或作房，木花漸次結顆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벼 또한 다 이삭을 맺으며, 콩과 팥은 간혹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점차 다래를 맺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18. 1871년(고종 8) 8월 4일(양력 9월 18일)

統制營啓錄 3책(184b~185a) /各司謄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15d~216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初三日辰時，始雨，或灑或注，初四日申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遣，卽接固城府使柳箕東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一犁，而農形段，早稻向熟，中稻垂穎，晚稻今方發穗，豆太舉皆作房，木花素非宜土，稀穎未綻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矣，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4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려인데,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익어가고 중벼는 이삭이 고개를 숙였으며 늦벼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콩과 팥은 대부분 꼬투리를 맺으며, 목화는 본래 적절한 땅이 아닌데 드문 다래가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9. 1871년(고종 8) 8월 14일(양력 9월 28일)

統制營啓錄 3책(188a~188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18a~218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早中稻幾盡黃熟，晚稻次第垂穎，豆太盡爲作房，木花稀穎，摘取無望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거의 다 누렇게 익었고 늦벼는 차례로 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콩·팥은 다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다래가 드물어서 따서 거둘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0. 1871년(고종 8) 8월 24일(양력 10월 8일)

統制營啓錄 3책(189b~190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19b~219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柳箕東所報，則早中稻間或刈取，晚稻次第向熟，田種豆太，間爲收獲，木花房囊盡落，摘取無望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고성 부사 유기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벼는 차례로 익어가며, 밭에 뿌린 콩·팥은 그사이에 수확하고, 목화는 꽃주머니가 다 떨어져서 따서 거둘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1. 1871년(고종 8) 9월 11일(양력 10월 24일)

統制營啓錄 3책(197a~197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23b~223b)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早稻方張登場，晚稻與田種各穀，既盡成熟，而霜信已至，歲功既成是白乎所，木綿段，已判慘歉，言念民情，誠甚憂悶是白乎旆，年形淺深，從當區別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올벼는 한창 타작하고 늦벼와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이미 다 성숙했는데, 서리 소식이 이미 이르렀으니, 한 해의 노력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목화는 이미 참혹한 흉작으로 판가름 났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농사 상황이 적은지 많은지는 마땅히 구별하는 대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2. 1871년(고종 8) 9월 23일(양력 11월 5일)

統制營啓錄 3책(202a~202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3책(226b~226b)

霜信已至, 歲功既成, 緣由馳啓爲白有在果. 本月二十二日夜, 霜降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서리 소식이 이미 이르렀고 한 해의 노력이 이미 이루어진 연유를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달 22일 밤에 서리가 내려 하얗게 되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3. 1873년(고종 10) 3월 13일(양력 4월 9일)

統制營啓錄 4책(41a~41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49b~249b)

臣營管下固城府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秋牟漸向青潤，春牟幾盡耕播，畓庫初翻耕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윤기가 나고 봄보리는 거의 다 갈아서 씨앗을 뿌렸으며, 논은 초벌 갈아엎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4. 1873년(고종 10) 3월 21일(양력 4월 17일)

統制營啓錄 4책(42a~42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49d~249d)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月十六日戌時始雨，間或霏灑，連仍霏微，十九日寅時乃止。臣營下測水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遣，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伊日之雨，川渠漲溢是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1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더니 19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5. 1873년(고종 10) 3월 23일(양력 4월 19일)

統制營啓錄 4책(44a~44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1a~251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秋牟漸向青茂，春牟盡爲耕播，間或出土，畚庫幾盡初翻耕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다 갈아서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흙 밖으로 싹이 나오고, 논은 거의 다 초벌 갈아엎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6. 1873년(고종 10) 4월 3일(양력 4월 29일)

統制營啓錄 4책(47a~47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1d~252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秋牟間或胚胎，春牟立苗向青，畚土既盡初翻耕，秧坂方爲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싹이 돌아 푸르러지고, 논은 임 다 초벌 갈아엎기를 했으며, 못자리는 막물을 가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7. 1873년(고종 10) 4월 5일(양력 5월 1일)

統制營啓錄 4책(47a~47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2a~252a)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初三日辰時始雨，或霏或灑，初四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遣，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一鋤許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尠，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서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8. 1873년(고종 10) 4월 13일(양력 5월 9일)

統制營啓錄 4책(48b~48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2d~252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十一日亥時始雨，或霏或灑，十二日寅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遣。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一鋤是乎旂，農形段，秋牟漸次胚胎，春牟次第立苗，畚土已爲初翻耕，秧板連爲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1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점차 알을 배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논이 흙은 이미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못자리는 연이어 물을 가둔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9. 1873년(고종 10) 4월 23일(양력 5월 19일)

統制營啓錄 4책(52b~52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5a~255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則秋牟間或發穗，春牟次第胚胎，秧坂幾盡注苗，木花今方播種，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못자리는 거의 다 물을 댔고, 목화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리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0. 1873년(고종 10) 5월 4일(양력 5월 29일)

統制營啓錄 4책(30a~30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5b~255c)

臣營管下固城府農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使金泰恒所報, 則春牟次第發穗, 秋牟幾盡垂穎, 秧苗漸次青茁, 木花已皆播種, 堤堰川防, 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김태항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모는 점차 푸르게 자라고, 목화는 이미 다 씨앗을 뿌렸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1. 1873년(고종 10) 5월 8일(양력 6월 2일)

統制營啓錄 4책(31b~32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6b~256c)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初〉六日午時始雨，或霏或霑，初七日寅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遣，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伊日之雨，所得爲一犁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6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려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2. 1873년(고종 10) 5월 14일(양력 6월 8일)

統制營啓錄 4책(32a~32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6c~256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兼任巨濟府使宋熙昇所報，則春牟漸次垂穎，秋牟次第黃熟，秧苗日漸青茂，木花已盡出土，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겸임 거제 부사 송희승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봄보리는 점차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가을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모는 날마다 점차 푸르게 무성해지고, 목화는 이미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33. 1873년(고종 10) 5월 24일(양력 6월 18일)

統制營啓錄 4책(33a~33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6d~257a)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三日辰時始雨，或霏或灑，二十四日巳時至，連仍不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所，嗣後所得多寡，待開霽，竝與邑報而更爲馳啓計料爲白乎旆。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牟麥次第刈取，早中稻間或移插，木花始爲鋤治，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사시에 이르러 연이어 그치지 않았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이후 내린 양은 개이기를 기다려 고을 보고와 아울러 다시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고, 올벼·중벼는 간혹 옮겨 심고, 목화는 비로소 김매기를 하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4. 1873년(고종 10) 5월 25일(양력 6월 19일)

統制營啓錄 4책(33b~33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57a~257b)

臣營管下固城府農形及二十三日辰時始雨，二十四日巳時至，雨澤五分緣由，纔已馳啓爲有在果。同雨勢連仍微霏，二十五日辰時乃止。臣營下測雨器前後水深，爲七分是白遣。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伊日之雨，所得爲二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 및 2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4일 사시에 이르러 우택이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위 비의 형세는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다가 25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라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5. 1873년(고종 10) 6월 4일(양력 6월 28일)

統制營啓錄 4책(64b~65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1a~261b)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三公兄文狀, 則牟麥旣盡收穫, 畚庫方爲移插, 木花始爲鋤治, 根耕豆太間或播種, 堤堰川防, 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논은 막 옮겨 심고 목화는 비로소 김을 매고 그루같이하는 콩과 팔은 간혹 씨앗을 뿌리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6. 1873년(고종 10) 6월 14일(양력 7월 8일)

統制營啓錄 4책(65a~65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1b~261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十一日卯時始雨，間或霏灑，連仍微霏，十三日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遣，即接該府三公兄文狀內，伊日之雨，所得爲一犁，而農形段，已移之稻，間或除草，未移之處。今方移插，木花鋤治而苗茂，根耕豆太次第出土，堤堰川防，連飭貯水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1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더니 13일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방금 접수한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 내용에,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려이고, 농사 상황은 이미 옮겨 심은 벼는 간혹 김매기하고 옮겨 심지 않은 곳은 지금 막 옮겨 심고 있으며, 목화는 김을 매는데 싹이 무성하고, 그루같이한 콩과 팔은 차례로 흙 밖으로 싹이 나오고,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득도록 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7. 1873년(고종 10) 6월 19일(양력 7월 13일)

統制營啓錄 4책(65b~65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1c~261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今十七日寅時始雨，或霏或灑，十八日未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遣，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伊日之雨，川渠漲溢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8. 1873년(고종 10) 6월 24일(양력 7월 18일)

統制營啓錄 4책(65b~66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1c~261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早中稻已盡初除草，晚稻托根向青，豆太木花亦爲鋤治，而次第茁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뿌리를 내리고 푸르러지고, 콩·팥 및 목화 또한 김을 매는데 차례로 싹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9. 1873년(고종 10) 윤6월 5일(양력 7월 28일)

統制營啓錄 4책(68a~68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2b~262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三公兄文狀，則早中稻間或再除草，晚稻今方初除草，豆太木花亦爲鋤治，而次第茁茂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고성부 삼공형의 공문을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 및 목화 또한 김을 매는데 차례로 썩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40. 1873년(고종 10) 윤6월 15일(양력 8월 7일)

統制營啓錄 4책(70a~70b) /各司謄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3c~263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早中稻既盡再除草，晚稻間或初除草。而去月十八日得雨之後，一直亢旱，高燥晚稻之地，舉皆有焦爛之難，枕淤汚下之處，猶未免渴急之患，而田種各穀，偏被旱惱，敷英焦枯，房囊未結，言念野事，萬萬憂悶是如。牒呈是白置有亦。跨朔旱曝，民情甚悶，故無論原濕，可以鑿淤而得水處，並與汚下引淤之地，而爲先各別申飭，貯蓄[水]灌溉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는데, 지난달 18일 비가 내린 뒤 줄곧 매우 가물어서 높고 메마른 지역의 늦벼는 대부분 타버리는 어려움이 있고, 보가 가깝거나 낮은 곳은 마찬가지로 매우 다급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매우 심한 가뭄을 당해 피었던 꽃이 타서 마르거나 꽃주머니를 맺지 못하니 들관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다고 공문을 바쳤습니다. 한 달에 걸쳐 가물고 내리쬘니 백성들의 심정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언덕이나 습한 곳을 따질 것 없이 보를 뚫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낮은 지역이나 물을 끄는 지역과 아울러 우선 각별하게 단단히 지시하여 물을 가두고 대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41. 1873년(고종 10) 윤6월 25일(양력 8월 17일)

統制營啓錄 4책(74a~74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5d~265d)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早中稻今方三除草，晚稻旣盡初除草，而過朔不雨，焦爛漸甚，豆太木花，一體惱痿，敷英穎囊，竝未得結是如。牒呈是白置有亦。朔餘不雨，一直亢旱，言念民情，誠甚憂悶，先從鑿洑得水，竝與汚下引洑之地而連加貯蓄，着實灌溉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연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중벼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아 점차 심하게 타버리고, 콩·팥 및 목화는 마찬가지로 심하게 시들고 피어난 꽃은 다래나 꽃주머니를 맺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바쳤습니다. 한 달 남짓 비가 오지 않고 줄곧 매우 가무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러워, 먼저 보를 뚫어 물을 얻는 대로 낮은 지역이나 보에서 물을 끄는 지역과 아울러 연이어 물을 가두고 착실하게 물을 대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42. 1873년(고종 10) 윤6월 28일(양력 8월 20일)

統制營啓錄 4책(74a~74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5d~266a)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二十六日巳時始雨，或霏或灑，二十七日午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遣，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一鋤是如是白乎所。今此久旱之餘，所得亦未洽足，言念田野，誠爲憂悶，鑿洑引水貯蓄灌漑[溉]等節，連加題飭爲白乎旃。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6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1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 가뭄 끝에 내린 것 또한 흡족하지 못하니, 밭과 들판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스러워, 보를 뚫고 물을 끌어서 가두고 대는 등의 사항을 연이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43. 1873년(고종 10) 7월 5일(양력 8월 27일)

統制營啓錄 4책(77b~77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7a~267b)

臣營管下固城府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去月三十日巳時始雨，或霏或灑，本月初四日卯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遣，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鋤，而農形段，汚下引洑之處，雨水所需。雖幸勃興，高燥奉天之地，溝會旋涸，尙患枯痿，而早中稻間或胚胎而發穗，晚稻偏被旱惱而減損，豆太木花，舉皆回蘇，開花作房是如。牒呈爲白有等以。堤堰川防，連加貯水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낮은 곳이나 보에서 물을 끄는 곳은 빗물로 적셔 비록 다행히 일어나지만 높고 메마르거나 하늘만 바라보는 지역은 작은 도랑이 곧바로 마르니 아직도 마르고 시들 것을 근심합니다. 올벼·중벼는 간혹 알을 배거나 이삭이 패고, 늦벼는 특히 심한 가뭄을 당해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손상되고, 콩·팥 및 목화는 대부분 되살아나서 꽃이 피고 꼬투리를 맺는다는 공문을 바쳤 습니다.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물을 가두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44. 1873년(고종 10) 7월 15일(양력 9월 6일)

統制營啓錄 4책(80a~80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8b~268c)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十三日卯時始雨，連仍微霏，間或霏灑，至十四日午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遣，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鋤，而農形段，早中稻舉皆胚胎而發穗，晚稻漸次蘇醒，田種各穀，次第作房。至於木花，素非宜土，雨暘又不調適，顆囊因此稀疎[少]是如爲白有等以。堤堰防川，連飭貯水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3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다가 간혹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4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중벼는 대부분 알을 뻗거나 이삭이 뻗고, 늦벼는 점차 되살아나고 있으며,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차례로 꼬투리를 만들고, 목화는 본래 적절한 땅인데다가 비와 햇볕이 또 조화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래나 꽃주머니는 이 때문에 드물다고 합니다. 방죽·둑과 냇둑은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145. 1873년(고종 10) 7월 21일(양력 9월 12일)

統制營啓錄 4책(82a~82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9c~269d)

###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十七日寅時始雨，或霏或灑，二十日亥時乃止。臣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遣，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伊日之雨，所得爲二犁是如爲白有等以。堤堰川防，連飭貯水之意，措辭題飭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銓次善啓向教是事。

###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1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려라고 했습니다. 제언과 시내 독의 경우 연이어 지시하여 물을 가두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결정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0146. 1873년(고종 10) 7월 25일(양력 9월 16일)

統制營啓錄 4책(82b~83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69d~269d)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 連續馳啓爲白有在果, 今二十二日午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三日乃止. 臣營下測雨器, 水深爲七分是白遣, 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 則伊日之雨, 所得爲二鋤, 而農形段, 早中稻次第垂穎, 晚稻今始胚胎, 豆太舉皆作房, 間或成實, 木花顆囊稀疎, 白綻無幾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22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내린 것은 2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중벼는 차례로 고개를 숙였고 늦벼는 지금 이삭이 배기 시작했고 콩·팥은 대부분 꼬투리가 만들어졌고 간혹 알이 만들어졌고 목화는 드문드문 다래가 맺혔으나 하얗게 터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0147. 1873년(고종 10) 7월 28일(양력 9월 19일)

統制營啓錄 4책(84a~84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70b~270c)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 連續馳啓爲白有在果. 今二十六日寅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七日戌時乃止. 臣營下測雨器水深, 爲二寸三分是白遣, 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 則伊日之雨, 川渠漲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26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내리다가 27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저의 통제영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그날의 비로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0148. 1873년(고종 10) 8월 5일(양력 9월 26일)

統制營啓錄 4책(86a~86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71c~271c)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雨澤, 連續馳啓爲白在果. 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 則早中稻次第向熟, 晚稻舉皆發穗, 豆太既盡作房, 間或刈穫, 木花顆囊稀疎, 摘取無幾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矣, 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중벼는 차례로 익어갔고 늦벼는 대부분 이삭이 패었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만들었고 간혹 베어 거두었고, 목화는 드문드문 다래가 맺혔으나 따서 거둘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주십시오.

0149. 1873년(고종 10) 8월 15일(양력 10월 6일)

統制營啓錄 4책(88a~88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72c~272c)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則早中稻旣盡黃熟，晚稻次第向熟，豆太旣爲成實，舉皆收穫，木花素非宜土，摘取無幾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矣，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은 연달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중벼는 이미 다 누렇게 익었고 늦벼는 차례로 익어갔고 콩·팥은 이미 알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수확하였고 목화는 본래 적당한 땅이 아니어서 따서 거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0150. 1873년(고종 10), 8월 25일(양력 10월 16일)

統制營啓錄 4책(89a~89b)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73a~273a)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該府使姜奎馨所報, 則早中稻間或刈取, 晚稻舉皆向熟, 豆太旣盡收穫, 木花顆囊稀疎, 採不盈筐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보고했습니다. 방금 해당 부사 강규형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중벼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늦벼는 대부분 익어갔고 콩·팥은 이미 다 수확했고 목화는 드문드문 다래가 맺혔는데 탄 것은 광주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0151. 1873년(고종 10) 9월 3일(양력 10월 23일)

統制營啓錄 4책(91b~92a) /各司臚錄 17책, 統制營啓錄 4책(273d~274a)

承政院開拆

臣營管下固城府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早稻方張登場，晚稻與田種各穀，幾盡成熟，而霜信已至，歲功既成是白乎所，木綿段，已判慘歉，言念民情，誠甚憂悶是白乎所，年形淺深，從當區別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白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승정원 열람

저의 통제영 관할 고성부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올벼는 한창 타작하고 있고 늦벼와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거의 다 익어갔는데 서리가 이미 이르렀고 한해 수확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목화의 경우,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 걱정입니다. 올해 농사 상황의 깊고 얕음은 마땅히 구별하여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잘 정리해 보고해 주십시오.

## 0152. 1897년(건양 2) 3월 31일

公文編案 66책 慶北觀察府

三十二號 報告

觀察使 嚴世永 二年三月三十一日 三十二號 報

春分已過에 課農之節을 另飭列郡하고 修完堤堰 整頓溝洫이며 官助糧種 隣借丁牛하고 雖 貧乏力綿者나 使得以及時耕作이을건과 今月二十四日亥時量 雨雪交作 二十六日卯時乃止 하고니 山野盡白에 仍即消漸이오나 當此穉牟萌芽之際에 不無受傷之慮이옵고 二十七日辰時 又雨하고 連至三十日卯時始止 하고니 府下測雨器水深 爲一寸五分이오며 連接各郡所報 則二十四日雨에 大邱軍威는 得一鋤하고 高靈은 川渠漲流이오며 二十六日之雨에 大邱 比安 慈仁 玄風 等郡은 得一犁하고 二十九日之雨에 大邱 慶山는 得一鋤하고 軍威은 川渠漲流 하고옵고 餘外各郡 待報來鱗次修報計料하고오며 農形段은 秋牟는 尙靑하고 畜庫은 初反耕伊始하고 木綿田은 方將出灰하고 春牟는 連旬陰雨에 趁未耕播하고야 田事遑悶 緣由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32호 보고

관찰사 엄세영 건양 2년 3월 31일 제32호 보고

춘분이 이미 지나 농사일의 항목을 별도로 여러 군에 지시하여 제방을 온전히 수리하고 도랑과 고랑을 정돈하였고 관아에서는 양식과 종자를 도와주고 이웃에서는 일꾼과 소를 빌려주어 비록 아주 가난하거나 힘이 없더라도 때맞춰 땅을 갈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24일 해시쯤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내 그쳐서 산과 들은 모두 하얗게 되었으나 이내 즉시 녹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 보리가 싹이 틀 즈음인데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27일 진시에 또 비가 내렸고 연이어 30일 묘시에 이르러 비로소 그쳤는데, 감영의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24일의 비로 대구·군위는 1서가 내렸고 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6일의 비로 대구·비안·자인·현풍 등의 군은 1려가 내렸고 29일의 비로 대구·경산은 1서가 내렸고 군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그밖의 각 군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르렀고 논은 처음으로 갈아엎기를 시작했고 목화밭은  
막 재를 뿌렸고 봄보리는 수확일 동안 곳은비에 제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못해  
밭일이 다급하고 걱정되어 연유를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53. 1897년(건양 2) 4월 3일

公文編案 66책 慶北觀察府

三十四號 報告

觀察使 嚴世永 二年四月三日 三十四號 報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纔已馳報이올건과 今月一日卯時量始雨 或霏或霏호야 二日亥時乃止호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五分이오며 伊日之雨에 大邱는 得一犁호읍고 各郡所得多寡는 待其報來 鱗次馳報計料호오며 去月二十四日之雨 前報外에 慶州는 得一鋤 二十六日之雨에 星州는 得二犁 義城는 川渠連流호읍고 安東은 二十日之雨에 得一鋤 仁同은 二十八日之雨에 得一犁 慶山은 三十日之雨에 得一鋤이다 一齊報來故 報告함.

觀察使 嚴世永

관찰사 엄세영 건양 2년 4월 3일 34호 보고

본 경상북도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루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는 5푼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로 대구는 1려가 내렸고 각 군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4일의 비로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경주는 1서가 내렸고, 26일의 비로 성주는 2려가 내렸고 의성은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고 안동은 20일의 비로 1서가 내렸고 인동은 28일의 비로 1려가 내렸고 경산은 30일의 비로 1서가 내렸다고 일제히 보고가 왔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54. 1897년(건양 2) 4월 13일

公文編案 66책 慶北觀察府

三十八號 報告

觀察使 嚴世永 二年四月十三日 三十八號 報

本府雨澤農形은 連續馳報이올건과 今月八日丑時量始雨 ㄹ아 雨或霏或霏 同日亥時量乃止 ㄹ니 測雨器水深爲五分이오며 同日之雨에 大邱得一鋤 ㄹ 읍고 前報外去月二十四日之雨에 順興得一犁 咸昌雨雪深爲二寸이 읍고 同月二十六日之雨 善山得二犁 義城 咸昌得一鋤 永川 溪渠漲流이 읍고 同月三十日之雨 清道得二鋤 星州得一鉏 今月二日之雨에 咸昌得二犁 仁同 慶山 比安 尙州 醴泉 等邑得一鋤 高靈得一鉏 玄風浥塵報來이오며 農形段秋牟는 連爲鉏治 ㄹ고 春牟出土萌芽事.

觀察使 嚴世永

38호 보고

관찰사 엄세영 건양 2년 4월 13일 38호 보고

본 관찰부 우택과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8일 축시 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같은 날 해시 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같은 날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달 24일의 비로 순흥은 1려가 내렸으며 함창은 진눈깨비가 내렸는데 깊이는 2치였습니다. 같은 달 26일의 비로 선산은 2려가 내렸고 의성·함창은 1서가 내렸고 영천은 계곡과 도랑이 불어나 흘렀습니다. 같은 달 30일의 비로 청도는 2서가 내렸고, 성주는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2일의 비로 함창은 2서가 내렸고, 인동·경산·비안·상주·예천 등의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령은 1서가 내렸고, 현풍은 먼지만 적실정도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봄보리는 땅밖으로 싹이 나왔습니다.

관찰사 엄세영

0155. 1897년(건양 2) 4월 16일

公文編案 67 慶尙南道

報告書

觀察使 李恒儀 建陽二年四月十六日 第十五號報告 現今管下各郡農形은 已爲馳 旱야삽거니와 今月十三戌時量에 始雨 旱야 灑雨下雨 旱야 十五日寅時量에 乃止 旱오니 測雨器水深이 爲六寸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旱야 鱗次報計料 旱오니 照亮 旱시물 伏望.

慶尙南道觀察使 李恒儀

보고서

관찰사 이항의 건양 2년 4월 16일 제15호 보고

현재 관할 각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3일 술시 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장대비가 내려서 15일 인시 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였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경상남도 관찰사 이항의

0156. 1897년(건양 2) 4월 25일

公文編案 66책 慶北觀察府

四十五號 報告

觀察使 嚴世永 二年四月二十五日 四十五號 報

今二十四日卯時始雨 亥時乃止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七分이오며 去月三十日之雨에 清河得二犁 今月四日之雨에 金山川渠漲流이옴고 九日之雨에 興海長鬐得一犁 永川 比安得一鋤이옴고 十五日之雨 尙州 星州 永川 仁同 漆谷 豐基 奉化 軍威 義興 新寧 延日 咸昌 慈仁 比安 高靈 長鬐 清道 慶山 等邑은 并川渠漲漏報來故로 報告함.

觀察使 嚴世永

45호 보고

관찰사 엄세영 건양 2년 4월 25일의 45호 보고

이번 24일의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의 비로 청하는 2려가 내렸고 이번 달 4일의 비로 김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9일의 비로 홍해·장기는 1려가 내렸고 영천·비안은 1서가 내렸고, 15일의 비로 상주·성주·영천·인동·칠곡·풍기·봉화·군위·의흥·신녕·연일·함창·자인·비안·고령·장기·청도·경산 등 고을은 모두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샐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용

## 0157. 1897년(건양 2) 5월 8일

公文編案 65책 慶尙南道觀察使

### 第二十九號 報

觀察使 李恒儀 建陽二年五月八日 第二十九號 報 本府下去月十三日 雨下 十五日寅時 所得幾許 已爲馳報 又接各郡所報 則晉州 丹城 山淸 安義 居昌 咸陽 鎭海 草溪 陝川 固城 咸安 昆陽 南海 昌原 彦陽 梁山 密陽 三嘉 泗川 等 十九邑은 川渠俱漲 이 且 河東 宜寧 漆原 等 三邑은 江川이 大漲 田畝牟麥이 多被其害 이 且 機張 熊川 東萊 蔚山 昌寧 靈山 金海 等 七邑은 二犁이 且 巨濟는 泥塵이 오며 今月六日未時에 始雨 或止或霪 七日卯時至乃霽 測雨器水深이 爲二寸六分이오며 各郡所得多 夥는 待其齊報 鱗次馳報計料 照亮 시를 望함.

觀察使 李恒儀

### 제29호 보고

관찰사 이항의 건양 2년 5월 8일 제29호 보고

본 관찰부의 지난달 13일에 비가 내려 15일 인시에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잇따라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단성·산청·안의·거창·함양·진해·초계·합천·고성·함안·곤양·남해·창원·언양·양산·밀양·삼가·사천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모두 불어났고 하동·의령·창원 등 3개 고을은 강과 시내가 크게 불어나 논밭의 보리와 밀은 입은 피해가 많았고, 기장·웅천·동래·울산·창녕·영산·김해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거제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6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그쳤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7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이항의

0158. 1897년(건양 2) 5월 11일

公文編案 65책 慶尙南道觀察使

第三十二號 報

觀察使 李恒儀 建陽二年五月十一日 第三十二號 報 本府下 今十日戌時에 始雨호야 或注或灑호야 十一日午時至호야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二分이오며 列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와 鱗次馳報計料호오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望함.

觀察使 李恒儀

제32호 보고

관찰사 이항의 건양 2년 5월 11일 제32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10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이항의

0159. 1898년(광무 2) 4월 10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三十一號 報告

光武二年四月十日 觀察使 嚴世永 三十一號 府下 得雨緣由는 前已馳報이올건과 連接各郡 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에 高靈은 溫塵이옴고 三十日之雨에 迎日玄風은 溫塵而止이오며 慈仁은 得一鋤호옴고 今月九日寅時量 始雨호야 同日戌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四分이옴고 同日之雨에 大邱은 得一鋤로 報來이오며 各郡所得多寡은 待其報來 鱗次馳 報計料事.

觀察使 嚴世永

31호 보고

광무 2년 4월 10일 관찰사 엄세영 31호

관찰부에 비가 내린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고령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30일의 비로 영일·현풍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고, 자인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9일 인시 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같은 날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관찰사 엄세영

0160. 1898년(광무 2) 4월 1일

公文編案 48책

第三十一號 報告

光武二年四月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三十一號 報 現今課農之節은 列郡에 另飭하고 俾各悉心이오며 秋牟向靑하고 春牟는 已盡耕播하고 畚庫는 連爲翻耕이옵기 茲에 報告하고오니 照亮하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제31호 보고

광무 2년, 4월 1일 관찰사 조시영 제31호 보고

현재 농사짓는 계절이어서 여러 군에 별도로 지시하여 각별히 마음을 쏟게 했습니다. 가을보리는 푸르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논은 연이어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61. 1898년(광무 2) 4월 10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第三十三號 報告

光武二年四月十日 觀察使 曹始永 第三十三號 報 現今管下各郡農形은 已爲馳報 訶야삽거니와 今月九日寅時量에 始雨 訶와 或注或霏 訶야 當日未時量에 乃止 訶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一寸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訶야 鱗次馳報計料 訶오며 茲에 報告 訶오니 照亮 訶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33호 보고

광무 2년 4월 10일 관찰사 조시영 제33호 보고

현재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9일 인시 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당일 미시쯤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0162. 1898년(광무 2) 4월 16일

公文編案 48책

第三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四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三十八號 報 管下各郡農形은 已爲馳報 ㅎ앗삽거니와  
秋牟 ㄴ 連加茁長 ㅎ고 春牟 ㄴ 向靑 ㅎ옴기 緣由을 玆에 報告 ㅎ오니 照亮 ㅎ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제38호 보고

광무 2년, 4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38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가을보리는 연이어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푸르렀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63. 1898년(광무 2) 4월 21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四十二號 報告

光武二年四月二十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四十二號報 現今管下各郡農形은 已爲馳報 訶앗삽  
거이와 本月十九日巳時量에 始雨 訶와 灑雨下雨 訶야 二十日寅時量에 乃止 訶오니 測雨器  
水深이 爲五寸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訶야 鱗次馳報計料 訶오니 照亮 訶시물 望  
흠.

觀察使 曹始永

제42호 보고

광무 2년 4월 21일 관찰사 조시영 제42호 보고

현재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9일 사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장대비가 내리다가 20일 인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였  
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0164. 1898년(광무 2) 4월 25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三十四號 報告

光武二年四月二十五日 觀察使 嚴世永 三十四號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  
을건과 今月十九日酉時量 始雨호야 或灑或霏 翌日卯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水深이 爲一寸  
五分이오며 連接各郡所報 則同日之雨에 大邱 慶山은 得一犁호읍고 前報外 今月九日之雨  
에 義城 醴泉은 得一鋤 盈德 禮安 聞慶 三郡은 得一犁 長鬐는 得二犁이다이온브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제4호 보고

광무 2년 4월 25일 관찰사 엄세영 34호 보고

본 경상북도 관찰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9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다음  
날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같은 날의 비로 대구·경산은 1려가 내렸고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이번 달 9일의 비로 의성·예천은 1서가 내렸으며, 영덕·예안·문경 3개 군은 1려가 내렸고,  
장기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65. 1898년(광무 2) 5월 9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第四十九號 報告

光武二年五月九日 觀察使 曹始永 第四十九號 報 本府下去月十九日 雨下 二十日寅時乃止 所得幾許 已爲馳報 又 連接各郡所報 則晉州 丹城 山淸 固城 泗川 河東 巨濟 昌寧 漆原 靈山 等十郡은 爲一犁이 濕고 東萊 金海 梁山 蔚山 機張 居昌 咸陽 安義 等八郡은 爲一鋤이 濕고 密陽 咸安 宜寧 熊川 鎭海 昌原 彦陽 三嘉 陝川 草溪 昆陽 南海 等十二郡은 川渠漲滿이오며 今月七日未時에 始雨 或止或霪 八日卯時에 乃止 니 測雨器水深이 爲一寸五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 待其齊報 鱗次馳報計料오니 照亮히 시를 伏望.

觀察使 曹始永

### 제49호 보고

광무 2년 5월 9일 관찰사 조시영 제49호 보고

본 관찰부의 지난달 19일에 비가 내려 20일 인시에 이내 그쳤고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군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진주·단성·산청·고성·사천·하동·거제·창녕·칠원·영산 등 10개 군은 1려이고, 동래·김해·양산·울산·기장·거창·함양·안의 등 8개 군은 1서이고, 밀양·함안·의령·웅천·진해·창원·언양·삼가·합천·초계·곤양·남해 등 1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이번 달 7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그쳤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8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66. 1898년(광무 2) 5월 30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三十八號 報告

光武二年五月三十日 觀察使 嚴世永 三十八號 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今十七日未時量 始雨호야 或霏或灑 當日亥時 乃止호니 所得沍塵이옴고 二十七日寅時量  
始雨호야 府下 測雨器水深이 三分이오며 尙州 仁同 盈德 新寧 延日 聞慶 知禮 咸昌 比安  
等 九郡은 得一鋤 長鬐는 得一犁 大邱 星州 義城 永川 淸道 軍威 英陽 慶山 慈仁 高靈  
等 十郡은 沍塵而止호옴고 農形짜은 跨朔靳需호와 秋牟已盡向熟 春牟는 未及垂穎 而萎黃  
貼地 木綿은 立苗이다이온브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제38호 보고

광무 2년 5월 30일 관찰사 엄세영 38호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17일 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  
데, 내린 것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27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상주·인동·영덕·신녕·연일·문경·지례·함창·비안 등  
9개 군은 1서가 내렸고 장기는 1려가 내렸고 대구·성주·의성·영천·청도·군위·영양·경산·  
자인·고령 등 10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로 그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한 달 넘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 않았고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갔고  
봄보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누렇게 시들어 땅에 붙었고 목화는 싹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여 보고했습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67. 1898년(광무 2) 6월 1일

公文編案 48책

### 第五十二號 報告

光武二年六月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二號 報 本府下去月十六日 雨下 十七日戌時止 所得幾許 已爲馳報 晉州 山淸 居昌 安義 咸陽 泗川 固城 巨濟 宜寧 靈山 密陽 昌原 鎭海 金海 熊川 梁山 漆原 蔚山 東萊 草溪 陝川 等 二十一郡은 泥塵이오며 丹城 三嘉 南海 河東 昆陽 咸安 昌寧 彦陽 機張 等 九郡은 一鋤이옴고 農形畓은 秋牟는 間或刈取 春牟는 向熟 麻桑木綿은 茁長 早秧은 漸長 晚秧은 出水向靑 早豆太은 已盡出土 早漆粟은 始播이옴기 茲에 報告오니 照亮하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52호 보고

광무 2년, 6월 1일 관찰사 조시영 제52호 보고

본 관찰부에 지난 달 16일에 비가 내려 17일 술시에 그쳤는데,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산청·거창·안의·함양·사천·고성·거제·의령·영산·밀양·창원·진해·김해·웅천·양산·칠원·울산·동래·초계·합천 등 21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단성·삼가·남해·하동·곤양·함안·창녕·언양·기장 등 9개 군은 1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베었고 봄보리는 익어갔고, 삼모시와 목화는 짝이 자랐고 올벼는 점차 자랐고 늦벼는 이삭이 나와 푸르렀고 올콩·올팥은 이미 다 땅에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0168. 1898년(광무 2) 6월 4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五十三號 報告

光武二年六月四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三號 報 本府下本月三日申時에 始雨 ㄱ야 或霪或  
灑 ㄱ야 四日寅時至 ㄱ야 開霽 ㄱ오니 測雨器水深이 爲四寸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  
報 ㄱ야 鱗次馳報計料 ㄱ오며 茲에 報告 ㄱ오니 照亮 ㄱ시믈 望함.

觀察使 曹始永

제53호 보고

광무 2년 6월 4일 관찰사 조시영 제53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3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4일 인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였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  
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69. 1898년(광무 2) 6월 7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三十九號 報告

光武二年六月七日 觀察使 嚴世永 三十九號 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去月二十九日未時 始雨 亥時乃止 ㅎ니 所得이 纔爲 沍塵이옴고 今月三日酉時 始雨 翌日寅  
時 乃止 ㅎ니 府下 測雨器水深爲七分이옴며 今月六日酉時 始雨 翌日子時 乃止 ㅎ니 府下  
測雨器水深五分이옴고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月十七日之雨에 醴泉 金山 善山은 得一  
鋤 寧海 清河 禮安 興海는 得一犁 榮川은 沍塵而止 二十日之雨에 青松 聞慶은 沍塵而止  
二十七日之雨에 永川 順興 眞寶 開寧 聞慶은 得一鋤 慶州는 得一犁 安東 清道 河陽 慶山  
高靈은 沍塵而止 二十九日之雨에 仁同 義興 慈仁 比安은 得一鋤 星州 永川 興海는 得一犁  
大邱 義城 河陽은 沍塵而止 今月三日之雨에 大邱는 得一犁이다이온브 玆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39호 보고

광무 2년 6월 7일 관찰사 엄세영 39호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  
습니다. 이번 달 3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날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날 자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달 17일의 비로 예천·김  
산·선산은 1서가 내렸고 영해·청하·예안·홍해는 1려가 내렸고 영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20일의 비로 청송·문경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27일의 비로 영천·순  
흥·진보·개령·문경은 1서가 내렸고 경주는 1려가 내렸고 안동·청도·하양·경산·고령은 먼  
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29일의 비로 인동·의흥·자인·비안은 1서가 내렸고, 성주·영천·  
홍해는 1려가 내렸고 대구·의성·하양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이번 달 3일의 비로

대구는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0170. 1898년(광무 2) 6월 11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五十五號 報告

光武二年六月十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五號 報 本府下今月九日卯時에 始雨 ㄱ야 或灑  
或注 ㄱ야 十日寅時至 ㄱ야 開霽 ㄱ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三寸五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ㄱ야 鱗次馳報計料 ㄱ오며 茲에 報告 ㄱ오니 照亮 ㄱ시믈 伏望.

觀察使 曹始永

제55호 보고

광무 2년 6월 11일 관찰사 조시영 제55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0일 인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71. 1898년(광무 2) 6월 16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第五十六號 報告

光武二年六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六號 報 管下各郡農形雨澤은 連續馳報호엿삽거니와 本府下今月十三日辰時에 始雨호야 或霏或灑호야 乍陽乍陰호야 十五日卯時至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一寸一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야 鱗次馳報計料호오며 本月三日雨澤은 連接各郡所報즉 晉州 丹城 昆陽 河東 固城 南海 三嘉 居昌 鎭海 咸安 機張 蔚山 東萊 等 十三郡은 一犁이오며 熊川 彦陽 昌原 漆原 泗川 密陽 靈山 昌寧 宜寧 巨濟 安義 山淸 咸陽 金海 陝川 等 十五郡은 一鋤이오며 梁山 草溪 等 二郡은 泥塵이 업고 農形은 秋牟는 次第刈取호고 春牟는 已盡黃熟호고 麻桑木綿은 連加茁長호고 早秧은 次第移插호고 晚秧은 漸長호고 早豆太은 方始除草호고 早漆粟은 出土이읍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 제56호 보고

광무 2년 6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56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본 관찰부의 이번 달 1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였고 잠깐 별이 나거나 잠깐 흐리다가 15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3일의 우택은 연이어 각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단성·곤양·하동·고성·남해·삼가·거창·진해·함안·기장·울산·동래 등 13개 군은 1려이고, 웅천·언양·창원·칠원·사천·밀양·영산·창녕·의령·거제·안의·산청·함양·김해·합천 등 15개 군은 1서이고, 양산·초계 등 2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누렇게 익었고 삼과 목화는 연이어 싹이 자랐고 올모는 차례로 옮겨 심었고 늦모는 점차 자랐고 올콩·올

팔은 막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챙이는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72. 1898년(광무 2) 6월 17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四十一號 報告

光武二年六月十七日 觀察使 嚴世永 四十一號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  
견과 今月九日酉時量 始雨 或灑或霏 翌日丑時 乃止 하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一寸二分이  
오며 連接各郡所報 則伊日之雨에 大邱 清道 義興 軍威는 川渠連流 河陽는 得一鋤 尙州  
永川 清河 玄風 英陽 慶山은 得一犁호 읍고 前報外 去月十七日之雨에 豊基는 浥塵而止  
二十七日之雨에 醴泉는 浥塵而止 二十九日之雨에 善山 迎日 奉化 清河는 得一鋤 今月三日  
之雨에 尙州 安東 金山은 浥塵而止 永川 清道 仁同 迎日 聞慶 玄風 高靈 清河 慶山은  
得一鋤 六日之雨에 大邱는 浥塵而止 英陽은 得一鋤이오며 農形은 秋牟는 刈穫登場 春牟  
는 已盡向熟 木綿麻桑間耕各穀은 連加鋤治 早秧은 間或移插 晚秧은 姑俟大霈이다이온브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41호

광무 2년 6월 17일 관찰사 엄세영 41호

본 경상북도 관찰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9일 유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다음날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면 그날의 비로 대구·청도·의흥·군위는 시내와 도랑이 이어져 흘렀  
고, 하양은 1서가 내렸고, 상주·영천·청하·현풍·영양·경산은 1려가 내렸으며,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 달 17일의 비로 풍기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27일의 비로 예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29일의 비로 선산·영일·봉화·청하는 1서가 내렸고, 이번  
달 3일의 비로 상주·안동·김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영천·청도·인동·영일·문경·  
현풍·고령·청하·경산은 1서가 내렸고, 6일의 비로 대구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영양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베어 수확하여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익어갔고  
목화·삼과 사이짓기하는 각종 곡식은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올모는 간혹 옮겨 심었고  
늦모는 일단 비가 크게 퍼붓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0173. 1898년(광무 2) 6월 26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五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六月二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八號 本府下本月二十三日戌時에 始雨 ㄸ야 或  
霏或灑타가 仍爲滂沱 ㄸ야 二十五日午時至 開霽 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九寸三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난 待其齊報 ㄸ야 鱗次馳報計料 ㄸ오며 茲에 報告 ㄸ오니 照亮 ㄸ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제58호 보고

광무 2년, 6월 26일 관찰사 조시영 제58호 보고

본 관찰부의 이번 달 2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내 짹짹 쏟아졌고 25일 오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3푼이었  
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74. 1898년(광무 2) 6월 27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四十九號 報告

光武二年六月二十七日 觀察使 嚴世永 四十九號 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今月十七日戌時量 始雨호야 或霏或灑 同日亥時 乃止호니 所得이 纔爲沍塵이오며 今月二十四  
日寅時量 始雨호야 或霏或灑 翌日辰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二寸六分이 옴고 前報  
外 今月三日之雨에 慶州 寧海 盈德 眞寶 禮安은 得一鋤 長鬐는 得一犁 九日之雨에 星州 金山  
豐基 龍宮 新寧 聞慶 高靈은 川渠漲流 義城 青松 仁同 奉化 眞寶 延日 禮安 知禮 興海 慈仁  
比安 長鬐는 得一犁 醴泉 善山 開寧은 得一鋤 十三日之雨에 義城은 得一鋤 咸昌은 川渠漲流  
十七日之雨에 大邱 永川은 沍塵而止 淸道는 得一鋤이다 一齊報來이온바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49호 보고

광무 2년 6월 27일 관찰사 엄세영 49호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적으로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같은 날 해시  
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양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24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더러 뿌리다가 다음날 진시에 이내 그쳤는  
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이번 달 3일의  
비로 경주·영해·영덕·진보·예안은 1서가 내렸고 장기는 1려가 내렸습니다. 9일의 비로  
성주·김산·풍기·용궁·신녕·문경·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의성·청송·인동·봉  
화·진보·영일·예안·지례·홍해·자인·비안·장기는 1려가 내렸고 예천·선산·개령은 1서가 내  
렸고, 13일의 비로 의성은 1서가 내렸고, 함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17일의  
비로 대구·영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청도는 1서가 내렸다고 일제히 보고가  
왔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75. 1898년(광무 2) 7월 2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五十五號 報告

光武二年七月二日 觀察吏 嚴世永 五十五號 報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  
올견과 去月二十八日丑時量 始雨호야 或灑或霑 同日辰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七分이오며 今月一日卯時量 始雨호야 一直霑下 同日酉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爲  
三寸五分이온바 以府下近郊로 觀之호은즉 江川이 汎濫 防築이 潰缺 田畚이 沈墊호오니  
待其水退에 更爲摘奸馳報計料호오며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月九日之雨에 慶州는 得一  
犁 順興은 川渠漲流 十七日之雨에 安東은 得一鋤 十九日之雨에 安東은 得一鋤 二十四日之  
雨에 尙州 龍宮 軍威 聞慶 比安 玄風은 得一犁 慶州 大邱 星州 清道 仁同 義興 知禮  
興海 高靈은 川渠漲流 開寧 英陽은 得一鋤 二十八日之雨에 大邱 義城은 得一犁 清道은  
川渠漲流 七月二日之雨에 大邱 玄風은 川渠漲溢호옴고 農形자은 秋牟는 已盡收穫 春牟는  
舉皆登場 早晚秧은 幾盡移插 木綿麻桑間種各穀은 連加鋤治 豆太는 已爲出土이다이옴기  
茲에 報告事.

觀察吏 嚴世永

55호 보고

광무 2년 7월 2일 관찰사 엄세영 55호 보고

본 경상북도 관찰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로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 달 28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이번 달 1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관찰부 근교를 보건대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방축이  
터져 논밭이 물에 잠겼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캐내어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 달 9일의 비로 경주는  
1려가 내렸고 순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17일의 비로 안동은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안동은 1서가 내렸고, 24일의 비로 상주·용궁·군위·문경·비안·현풍은 1려가 내렸고, 경주·대구·성주·청도·인동·의흥·지례·홍해·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개령·영양은 1서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대구·의성은 1려가 내렸고, 청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7월 2일의 비로 대구·현풍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봄보리는 대부분 타작하였고, 올벼·늦벼는 거의 다 옮겨 심었고, 목화·삼모시,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은 이미 싹이 땅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76. 1898년(광무 2) 7월 3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報告

光武二年七月三日 觀察使 曹始永 報 管下各郡農形雨澤은 連續馳報 ㅎ앗습거니와 本府下 上月二十七日亥時에 始雨 ㅎ야 或霏灑或滂沱 ㅎ며 乍陽乍陰 ㅎ야 本月二日申時至 開霽 ㅎ 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一尺二寸三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ㅎ와 鱗次馳報計料 ㅎ 오며 上月九日雨澤은 連接各郡所報즉 晉州 丹城 山淸 咸安 河東 咸陽 安義 居昌 宜寧 昌原 三嘉 陝川 草溪 泗川 固城 鎭海 熊川 昆陽 南海 彦陽 東萊 等 二十一郡은 川渠漲滿이 오며 昌寧 靈山 漆原 密陽 金海 梁山 蔚山 機張 巨濟 等 九郡은 一犁이옴고 農形畓은 秋牟는 舉皆登場 ㅎ고 春牟은 次第刈取 ㅎ고 麻桑木綿은 連加茁長 ㅎ고 早秧은 托根向青 ㅎ고 中晚秧은 次第移秧 ㅎ고 早豆太는 間或播種이옴기 玆에 報告 ㅎ오니 照亮 ㅎ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 보고

광무 2년 7월 3일 관찰사 조시영 보고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본 관찰부의 지난달 27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콕콕 쏟아지기도 하면서 언뜻 별이 나거나 언뜻 흐리면서 이번 달 2일 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2치 3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9일의 우택은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단성·산청·함안·하동·함양·안의·거창·의령·창원·삼가·합천·초계·사천·고성·진해·웅천·곤양·남해·언양·동래 등 21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창녕·영산·칠원·밀양·김해·양산·울산·기장·거제 등 9개 군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대부분 타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삼모시·목화는 연이어 싹이 자랐고 올벼는 뿌리를 내려 푸르러지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모내

기를 하였고 올콩·올팔은 간혹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77. 1898년(광무 2) 7월 13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五十七號 報告

光武二年七月十三日 觀察使 嚴世永 五十七號 今月一日 府下 得雨二寸五分緣由는 前已馳報  
이올건과 自今月三日爲始 無日不雨<sup>호야</sup> 或終日霪下 或乍灑旋晴 至十三日辰時 乃止<sup>이오나</sup>  
濃雲未散 雨意尙存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五寸一分<sup>이오며</sup> 連接各郡所報 則去月九日之雨에  
尙州는 川渠漲溢 清河는 得一鋤 十七日之雨에 寧海는 得一鋤 二十四日之雨에 永川 靑松  
寧海 盈德 河陽 新寧 迎日 慶山 慈仁 長鬐는 川渠漲流 安東 順興 豐基 奉化 眞寶 禮安은  
得一犁 醴泉 榮川은 得一鋤 二十八日之雨에 永川 安東 比安은 得一犁 順興 豐基 榮川은  
得一鋤 金山 新寧은 川渠漲流 今月一日之雨에 尙州 星州 義城 永川 安東 醴泉 金山 淸道  
河陽 清河 軍威 義興 新寧 開寧 知禮 比安 高靈은 川渠漲溢 三日之雨에 大邱 安東 玄風은  
得一鋤 淸道은 川渠漲流 六日之雨에 大邱은 得一犁 七日之雨에 尙州 大邱 義興은 川渠漲溢  
이옴고 江溪近處에 人家漂頽 人命渰死와 防築潰缺<sup>호야</sup> 田畝之汰覆이 邑邑皆然<sup>이오며</sup> 農  
形<sup>사</sup>는 早稻는 初鋤幾畢 晚稻는 已盡移插 木綿豆太間耕各穀은 長霖不霽에 鋤治失時<sup>호야</sup>  
頗多損苗 麻泉는 連爲苗長이다<sup>이온바</sup> 玆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57호 보고

광무 2년 7월 13일 관찰사 엄세영 57호

이번 달 1일 관찰부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3일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더러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언듯 뿌리다가도 바로 맑아졌다가 13일 진시에 이내 그쳤으나 짙은 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아직 있습니다.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5치 1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9일의 비로 상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청하는 1서가 내렸고, 17일의 비로 영해는 1서가 내렸고, 24일의 비로 영천·청송·영해·영덕·하양·신녕·영일·경산·자인·장기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안동·순흥·풍

기·봉화·진보·예안은 1려가 내렸고 예천·영천은 1서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영천·안동·비안은 1려가 내렸고, 순흥·풍기·영천은 1서가 내렸고, 김산·신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이번 달 1일의 비로 상주·성주·의성·영천·안동·예천·김산·청도·하양·청하·군위·의흥·신녕·개령·지례·비안·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3일의 비로 대구·안동·현풍은 1서가 내렸고, 청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6일의 비로 대구는 1려가 내렸고, 7일의 비로 상주·대구·의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강과 계곡 근처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고 사람은 빠져 죽었고, 방축이 터져 논밭은 사태가 나 뒤덮인 것이 고을마다 모두 그러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이미 다 옮겨 심었고, 목화·콩·팥과 사이짓기한 각종 곡식은 장마가 개이지 않아 김매기 시기를 놓쳐 자못 손상 입은 싹이 많고 삼모시는 연이어 싹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78. 1898년(광무 2) 7월 28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第六十四號 報告

光武二年七月二十八日 觀察使 曹始永 第六十四號 報 本府下本月二十五日酉時에 始雨호야 或霏或霏호며 乍陽乍陰호야 二十八日未時至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四寸七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야 鱗次馳報計料호오며 上月二十七日雨澤은 連接各郡所報즉 晉州 丹城 山淸 安義 泗川 南海 熊川 鎭海 漆原 昆陽 草溪 靈山 固城 咸陽 河東 巨濟 居昌 宜寧 昌原 咸安 密陽 金海 蔚山 等 二十三郡산은 田畝과 堤堰이 多有汰覆潰缺호며 人家도 或有顛覆이다이옴고 彦陽郡산은 邑部防築數千巴 缺陷無痕이다이옴고 三嘉 陝川 昌寧 機張 梁山 東萊 等 六郡산은 川渠漲滿이다이온바 沿江汎濫處에 大水沈墊호야 趁卽未 收獲호는 牟麥은 或腐傷或漂失호고 田畝新種各穀은 亦多消融호야 已判全棄이다이오니 言 念民情에 極爲悶然이옴고 田畝汰覆斗數와 堤堰潰缺等處는 待各該郡摘奸報來호야 鱗次馳 報計料호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望흠.

觀察使 曹始永

### 제64호 보고

광무 2년 7월 28일 관찰사 조시영 제64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25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면서 언뜻 별이 나거나 언뜻 흐리다가 28일 미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우택은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단양·산청·안의·사천·남해·웅천·진해·칠원·곤양·초계·영산·고성·함양·하동·거제·거창·의령·창원·함안·밀양·김해·울산 등 23개 군의 경우, 논밭과 제언은 사태가 뒤덮이거나 터진 곳이 많으며 백성 집도 더러 무너졌다고 합니다. 언양의 경우, 고을 방축 수 천 발이 흔적 없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삼가·합천·창녕·기장·동래 등 6개 군의 경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강 주변 범람한 곳에는 큰물에 잠겨서 제 때 수확하지 못한 보리와 밀은 더러 썩거나 더러 떠내려갔고, 논밭에 새로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또한 녹아내린 것이 많아서 이미 전부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논밭 중 사태가 나서 뒤덮인 마지기와 제언 중 터진 곳은 해당 각 군에서 캐내어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79. 1898년(광무 2) 7월 29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五十九號 報告

光武二年七月二十九日 觀察使 嚴世永 五十九號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  
을견과 今月二十四日巳時量 始雨호야 或霏或灑 斷續無常호옵다가 二十八日寅時 乃止호  
니 府下測雨器水深이 一寸八分이오며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月二十八日之雨에 奉化  
聞慶 慶山은 川渠漲溢 今月一日之雨에 仁同 順興 豐基 盈德 英陽 榮川 眞寶 咸昌 慈仁  
長鬐는 川渠漲溢 三日之雨에 慶州 醴泉 青松 豐基 奉化 迎日 禮安은 川渠漲溢 六日之雨에  
義城 永川 仁同 寧海 河陽 知禮 咸昌 玄風은 川渠漲溢 九日之雨에 尙州 永川 淸道 青松  
順興 豐基 龍宮 奉化 禮安 開寧 聞慶 咸昌 比安 川渠漲溢 榮川은 得一犁 十二日之雨에  
安東 豐基 高靈은 川渠漲流이오며 農形은 早稻는 再鋤伊始 晚稻는 初鋤幾畢 麻稔는  
漚熟 木綿豆太는 連加鋤治이다이온바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59호 보고

광무 2년 7월 29일 관찰사 엄세영 59호

본 경상북도 관찰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24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끊어  
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일정치 않다가 28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  
달 28일 비로 봉화·문경·경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이번 달 1일의 비로  
인동·순흥·풍기·영덕·영양·영천·진보·함창·자인·장기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3일  
의 비로 경주·예천·청송·풍기·봉화·영일·예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6일의 비로  
의성·영천·인동·영해·하양·지례·함창·현풍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9일의 비로  
상주·영천·청도·청송·순흥·풍기·용궁·봉화·예안·개령·문경·함창·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  
어나 넘쳤고, 영천은 1려가 내렸고, 12일의 비로 안동·풍기·고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가 거의 마쳤고  
삼모시는 잘 삶았고 목화·콩·팥은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0180. 1898년(광무 2) 8월 2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六十六號 報告

管下各郡農形과 雨澤는 連續馳報 ्ह 엿습거니와 本府下上月二十九日午時에 始雨 ्ह야 或瀑 或霪 或霏或灑 ्ह야 本月二日卯時至 開霽 ्ह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七寸三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ह야 鱗次馳報計料 ्ह오며 農形은 早稻는 再除草 ्ह고 中晚稻는 或初除草再除草 ्ह고 麻稗은 刈熟已畢 ्ह고 木綿는 連加鋤治 ्ह고 豆太漆粟은 日漸茁長이옴기 玆에 報告 ्ह오니 照亮 ्ह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제66호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본 관찰부에 지난달 29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쏟아지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렸고,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2일 묘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3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중벼·늦벼는 더러 초벌 김매기나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삼모시는 베어 삶기는 이미 마쳤고,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찰조는 날로 점차 자랐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81. 1898년(광무 2) 8월 3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六十號 報告

光武二年八月三日 觀察使 嚴世永 六十號 管下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自去月二十八日巳時量으로 至三十一日無日不雨호야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一分이오며 今月一日酉時量始雨호야 終夜連霖勢如覆盆 翌日卯時乃止호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三寸五分이온바 以府下近郊로 觀之則東南大川十里防築이 中間潰破호야 汎濫二水가 奔激四野호야 田畦가 變爲滄桑호고 家屋은 漂若槎筏호오니 田畝廢棄와 人命受傷이 難保必無故로 待水退更爲摘奸馳報計料호옵고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月二十四日之雨에 淸道 河陽 豐基 榮川 知禮는 得一鋤 二十七日之雨에 大邱 永川 慈仁은 得一犁 寧海 義興 長鬐는 得一鋤 新寧은 川渠漲流 二十八日之雨에 大邱 河陽 高靈 玄風은 得一犁 星州는 得一鋤 二十九日之雨에 大邱는 浥塵而止 三十日之雨에 大邱는 川渠漲流 三十一日之雨에 大邱는 浥塵而止 今月一日之雨에 大邱는 川渠漲溢이다이온바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60호 보고

광무 2년 8월 3일 관찰사 엄세영 60호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시쯤부터 31일까지 하루도 비오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였습니다. 이번 달 1일 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연이어 주룩주룩 내린 것이 형세가 마치 물둥이를 얹어놓은 듯 했고, 다음날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였습니다.

관찰부의 근교를 보건대 동남쪽 큰 시내의 10리나 방축이 중간에 터졌는데 범람한 두 물줄기가 사방의 들을 휩쓸어서 밭은 물바다가 되었고 집들은 뗏목처럼 떠내려가 갔고, 논밭이 폐기되거나 사람이 입은 피해가 결코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캐내어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달 24일의 비로 청도·하양·풍기·영천·지레는 1서가 내렸고, 27일의 비로 대구·영천·자인은 1려가 내렸고, 영해·의흥·장기는 1서가 내렸고, 신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8일의 비로 대구·하양·고령·현풍은 1려가 내렸고, 성주는 1서가 내렸고, 29일의 비로 대구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30일의 비로 대구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31일의 비로 대구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이번 달 1일의 비로 대구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82. 1898년(광무 2) 8월 11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六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八月十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六十八號 報 本府下本月八日戌時에 始雨 ㄱ야 或霪 或灑 ㄱ야 九日辰時至 開霽 ㄱ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五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 齊報 ㄱ야 鱗次馳報計料 ㄱ오며 茲에 報告 ㄱ오니 照亮 ㄱ시믈 望함.

觀察使 曹始永

제68호 보고

광무 2년 8월 11일 관찰사 조시영 제68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8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9일 진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83. 1898년(광무 2) 8월 15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六十三號 報告

光武二年八月十五日 觀察使 嚴世永 六十三號 今月一日府下得雨三寸五分緣由는 纔已馳報  
이옵건과 今月二日卯時量始雨호야 或霏或灑 同日辰時乃止호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七分  
이오며 三日에 又雨浥塵 四日에 又雨浥塵 十一日戌時量始雨호야 或霏或灑 翌日卯時乃止  
호니 府下測雨器水深이 爲一寸 十二日에 又雨浥塵而止이옵고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  
月二十二日之雨에 靑松은 得一鋤 二十四日之雨에 醴泉은 川渠漲流 慶山은 得一犁 二十六  
日之雨에 義興 開寧은 得一鋤 順興 禮安은 川渠漲流 新寧은 得一犁 二十八日之雨에 軍威는  
川渠漲流 二十九日之雨에 奉化 開寧은 川渠漲流 三十日之雨에 星州 善山 比安은 川渠漲流  
三十一日之雨에 義興 聞慶 玄風은 川渠漲流 八月一日之雨에 尙州 慶州 星州 義城 永川  
安東 清道 豐基 河陽 清河 義興 迎日 知禮 慶山 慈仁 高靈 長鬐는 川渠漲溢 三日之雨에  
豐基 開寧은 川渠漲流 十一日之雨에 大邱 清道는 川渠漲流 河陽은 得一鋤 農形싸는 早晚  
稻之高燥處所種는 一望茁長에 再鋤已畢 而汚下處는 連沈大水가 閱月不退에 偃臥消濺호고  
枕溪處는 堤堰이 在在潰缺호야 奔波所及에 舉皆掘破覆沙 豆太木綿은 方張開花 而長霖不  
霽에 未暇耘耔호야 雜草萎黃이다이온바 田畝災傷은 使宰로 親審摘奸호고 防築潰缺은 另  
飭該作人 不日完葺之意로 指令申飭호옵고 人命渰死와 人家漂頽는 合有恤典減布之澤故로  
待各郡齊報호야 卽爲馳報計호오며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63호 보고

광무 2년 8월 15일 관찰사 엄세영 63호 보고

이번 달 1일 관찰부에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3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먼지를 적실 정도였고 4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먼지를 적실 정도였습니다. 11일 술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다음날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12일에 또 비가 내렸는데, 먼지를 적실 정도에 그쳤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달 22일의 비로 청송은 1서가 내렸고, 24일의 비로 예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경산은 1려가 내렸고, 26일의 비로 의흥·개령은 1서가 내렸고, 순흥·예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신녕은 1려가 내렸고, 28일의 비로 군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9일의 비로 봉화·개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30일의 비로 성주·선산·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31일의 비로 의흥·문경·현풍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8월 1일의 비로 상주·경주·성주·의성·영천·안동·청도·풍기·하양·청하·의흥·영일·지례·경산·자인·고령·장기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3일의 비로 풍기·개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11일의 비로 대구·청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하양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늦벼 중 높고 메마른 곳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한눈에 봐도 싹이 자라서 두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낮은 곳은 연이어 큰물에 잠겨서 한 달이 넘도록 물이 빠지지 않아 쓰러지고 녹았고, 시냇가는 독이 곳곳마다 터져서 빠른 물결이 닥친 곳은 대부분 파이거나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콩·팥·목화는 한창 꽃이 피었으나 장마가 개이지 않아 김매기 할 겨를이 없어 잡초가 우거져 시들어 누령다고 합니다. 재해입은 논밭은 수령에게 직접 살피고 캐보게 하고 터진 방축은 별도로 해당 작인에게 지시해 하루빨리 완전히 수리하라는 뜻으로 지령으로 단단히 지시하였고 빠져 죽은 사람과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은 모두 구호하는데 포를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야 합당합니다. 때문에 각 군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즉시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84. 1898년(광무 2) 8월 16일

公文編案 48책

### 第六十九號 報告

光武二年八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六十九號 報 管下各郡農形과 雨澤은 連續馳報호엿 거니와 連接各郡報告書 則早稻는 三除草已畢에 方始胚胎호고 中晚稻는 次第三除草호고 木花는 連加鋤治에 開花結囊호고 春耕豆太는 開花結實호고 根耕豆太와 漆粟은 連加苗長 이온바 開夏以後로 大雨頻仍에 洪濤屢沈호와 晉州 金海 密陽 蔚山 宜寧 昌寧 昌原 河東 陝川 咸安 靈山 機張 草溪 泗川 鎭海 梁山 東萊 漆原 固城 等 十九郡안은 汚下處田畝各穀이 舉皆消融호야 無望蘇醒이다이오며 巨濟 昆陽 三嘉 南海 熊川 等 五郡段은 連被水害호온中 에 蟲蟲이 隨熾이다이오며 居昌 咸陽 安義 山淸 丹城 彦陽 等 六郡段은 川反汰覆處田畝各 穀은 已判永棄이다이온바 水災之靡穀이 各郡同然호오니 言念農情에 極爲悶然이옵기 茲 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믈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69호 보고

광무 2년 8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69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세벌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막 이삭이 배기 시작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봄갈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팥과 찰조는 연이어 싹이 자랐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이후로 큰 비가 빈번하여 홍수가 나 여러 차례 잠겼고 진주·김해·밀양·울산·의령·창녕·창원·하동·합천·함안·영산·기장·초계·사천·진해·양산·동래·칠원·고성 등 19개 군의 경우, 낮은 곳의 논밭 각종 곡식은 대부분 녹아서 되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거제·곤양·삼가·남해·웅천 등 5개 군의 경우, 연이어 수해를 입었는데 벼멸구가 따라서 번졌다고 합니다. 거창·함양·안의·산청·단성·언양 등 6개 군의 경우, 시내에 사태가 나 모래로 뒤덮인 곳의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미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 했다고 하였습니다. 수재로 없어진 곡식은 각 군이 똑같았으니 농사 상황을 생각  
하면 걱정이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85. 1898년(광무 2) 8월 25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六十六號 報告

光武二年八月二十五日 觀察使 嚴世永 六十六號 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  
과 今月十七日午時量 始雨 ㅎ야 霏灑無常 ㅎ 읍다가 二十一日酉時 乃止 ㅎ니 府下 測雨器水  
深이 爲一寸五分이 읍고 二十三日巳時量 又雨 或霏或灑 同日未時 乃止 ㅎ니 爲七分이오며  
連接各郡所報 則去月二十四日之雨에 盈德 榮川 眞寶 英陽은 川渠漲溢 今月一日之雨에  
咸昌은 川渠漲流 二十九日之雨에 仁同은 川渠漲溢 今月一日之雨에 青松 興海는 川渠漲溢  
四日之雨에 寧海 榮川 奉化 聞慶은 川渠漲溢 六日之雨에 順興 新寧은 川渠漲溢 十一日之雨  
에 慶州 永川 金山 善山 寧海 開寧 興海는 川渠漲溢 迎日 英陽 玄風은 得一犁 十七日之雨에  
玄風은 得一鋤 大邱는 得一犁 十八日之雨에 大邱는 得一鋤 十九日之雨에 大邱는 得一鋤  
二十日之雨에 大邱는 浥塵而止 永川 淸道는 川渠漲流 二十三日之雨에 大邱는 得一鋤 ㅎ 읍  
고 農形싸는 早稻早黍粟은 間或發穗 晚稻晚黍粟은 已盡胚胎 豆太는 結殼 木綿은 開花以後  
에 長霖不霽 ㅎ와 顆囊이 腐落 ㅎ야 料量來頭拾白에 必致空筐이다이온바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66호 보고

광무 2년 8월 25일 관찰사 엄세영 66호 보고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7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고 21일  
유시에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23일 사시쯤 또 비가 내렸는  
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24일의 비로 영덕·영천·진보·영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이번 달 1일의 비로 함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9일의  
비로 인동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이번 달 1일의 비로 청송·홍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4일의 비로 영해·영천·봉화·문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6일의

비로 순흥·신녕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11일의 비로 경주·영천·김산·선산·영해·개령·홍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영일·영양·현풍은 1려가 내렸고, 17일의 비로 현풍은 1서가 내렸고 대구는 1려가 내렸고, 18일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고, 20일의 비로 대구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그쳤고, 영천·청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3일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배었으며, 콩·팥은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꽃이 핀 이후에 장마가 개이지 않아 다래가 썩어 떨어져서 짐작건대 앞으로 흰 솜을 모아도 분명 광주리가 비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86. 1898년(광무 2) 8월 27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第七十一號 報告

光武二年八月二十七日 觀察使 曹始永 第七十一號 報 本府下本月二十六日辰時에 始雨호야  
或霏或灑호야 同日戌時至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二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야 鱗次馳報計料호오며 上月二十九日雨澤는 連接各郡所報 則屢經巨浸之餘의  
又有此罕有之大水호야 川渠汎濫에 畦隴을 不辨호야 堤堰潰缺과 田畓汰覆과 人家漂頽之  
患이 有甚於六月二十七日之水害이다 各郡告悶이 舉皆同然이옵기 汰覆호 田畓斗數와 漂  
頽호 人家間數을 一一從實摘奸호야 修成冊報來호 意로 申飭各郡호옵고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望호.

觀察使 曹始永

제71호 보고

광무 2년, 8월 27일 관찰사 조시영 제71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26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29일 우택의 경우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여러 번 크게 잠긴 나머지  
또 이렇게 전에 없던 큰물이 있게 되어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여 밭두둑을 정비하지 않아  
제언이 터지고 논밭이 모래로 뒤덮이고 백성 집이 떠내려가는 걱정이 27일의 수해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각 군에서 아뢴 근심이 대부분 똑같기에 모래로 뒤덮인 논밭의 말수와  
떠내려간 백성 집의 칸수를 하나하나 사실대로 캐보고 성책으로 작성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각 군에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조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87. 1898년(광무 2) 9월 2일

公文編案 48책

### 第七十二號 報告

光武二年九月二日 觀察使 曹始永 第七十二號報 管下各郡農形과 雨澤은 連續馳報 ्ह얏삽거니와 連接各郡所報즉 早稻는 垂穗向熟 ्ह고 中晚稻는 三除草已畢에 次第胚胎 ्ह고 木花는 長霖之餘에 風日陰翳 ्ह야 零落無常 ्ह고 春耕豆太는 舉皆結實 ्ह고 根耕豆太는 開花結實 ्ह고 漆粟은 連爲茁長이오나 汚下處田畝各穀은 大水屢沈 ्ह야 痿黃者尙未蘇醒 ्ह고 消融者已判永棄이다이오니 言念農情에 誠爲悶然이옵기 茲에 報告 ्ह오니 照亮 ्ह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 제72호 보고

광무 2년, 9월 2일 관찰사 조시영 제72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이삭이 수그리고 익어갔고 중벼·늦벼는 세 차례 제초작업을 이미 마쳤고 차례로 알이 배었고 목화는 장마진 나머지 날씨는 질은 구름이 끼어서 시들고 떨어져 변화무쌍하고 봄같이한 콩·팥은 대부분 열매가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고 찰조는 연이어 싹이 자랐으나 낮은 곳의 논밭의 각종 곡식은 큰 물에 여러 번 잠겨서 시들어 누렇게 되어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녹아난 것은 이미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88. 1898년(광무 2) 9월 7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七十六號 報告

光武二年九月七日 觀察使 嚴世永 七十六號 管下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去月二十七日午時量 始雨호야 當日未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五分이오며 連接各郡所報 則前報外 去月十一日之雨에 安東 順興 豐基 龍宮 聞慶은 川渠漲溢 十七日之雨에 義城 安東 醴泉 青松 仁同 比安은 川渠漲溢 十八日之雨에 豐基 龍宮 軍威 禮安은 川渠漲溢 二十日之雨에 金山 奉化 開寧 咸昌 英陽은 川渠漲溢 二十六日之雨에 義城 豐基 迎日 慶山은 川渠漲溢 二十七日之雨에 大邱은 得一鋤 奉化 興海는 川渠漲流이옴고 農形차는 早稻早黍粟은 間或垂穎 晚稻晚黍粟은 舉皆發穗 木綿은 現無拾白이다이온보 茲에 報告事.

觀察使 嚴世永

76호 보고

광무 2년, 9월 7일 관찰사 엄세영 76호 보고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당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앞서 보고한 것 이외에 지난 달 11일의 비로 안동·순흥·풍기·용궁·문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17일의 비로 의성·안동·예천·청송·인동·비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18일의 비로 풍기·용궁·군위·예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20일의 비로 김산·봉화·개령·함창·영양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27일의 비로 대구는 1서가 내렸고 봉화·홍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습니다. 농사 상황은 올벼·올기장·올조는 간혹 고개를 숙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대부분 이삭이 패고 목화는 하얀 솜을 거둘게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관찰사 엄세영



## 0189. 1898년(광무 2) 9월 9일

公文編案 48책

### 第七十四號 報告

光武二年九月九日 觀察使 曹始永 第七十四 號 今年開春以後로 農形과 雨澤은 連續修報이  
읍 건과 連接管下沿邊各郡所報즉 今五六月之間에 雨水頻仍호야 長霖不霽이다가 逮夫七晦  
八初에 大雨가 連日瀑霪호와 全坪浸墊호고 田畚이 隨處川反而浦落호고 堤堰이 間多潰缺  
而無形호야 浸水各穀이 舉皆腐損에 多有永棄호고 人家之頽壓과 人命之滄死가 無處無之  
이다이오니 言念民情에 不勝悶隘호와 田畚反川覆沙와 頽壓戶之間數와 滄死人之姓名을  
一一摘奸報來호야 以爲轉報之意로 已爲指飭于各該郡이오니 待其齊報호야 修成冊馳報計  
料호오며 茲先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74호 보고

광무 2년, 9월 9일 관찰사 조시영 제74호

올해 봄 이후로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관할 주변  
각 군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이번 5, 6월 사이에 빗물이 빈번하여 장마가 개이지  
않다가 7월 그믐 8월 에 이르러 큰 비가 연일 폭포처럼 주룩주룩 쏟아져 온 들판이  
잠겼고 논밭은 곳곳이 시내가 되어 떨어져 나갔고 제언은 사이사이 터진 곳이 많아 형체  
가 없어서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기어 대부분 썩어서 영원히 포기한 것이 많았고, 백성  
집이 무너진 것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없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보니 답답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이 시내로 변하고 모래로  
덮혔고 무너진 가구의 칸수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성명을 하나하나 캐보고 보고해  
오면 전달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각 해당 군에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니 일제히 보고하  
기를 기다려 성책을 작성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  
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0190. 1898년(광무 2) 9월 16일

公文編案 48책

第八十號 報告

光武二年九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八十號 報 管下各郡農形은 連續馳報 ㅎ얏습거니와 連接各郡所報즉 早稻는 日漸登熟에 間或刈取 ㅎ고 中晚稻는 已盡發穗에 方爲入實 ㅎ고 木花는 經夏長霖에 顆囊이 零落 ㅎ야 取摘이 無幾 ㅎ고 豆太는 次第成實 ㅎ고 漆粟은 發穗垂穎이다이옵기 茲에 報告 ㅎ오니 照亮 ㅎ시믈 要함.

觀察使 曹始永

제80호 보고

광무 2년, 9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80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날로 점차 익어서 간혹 베었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싹이 패어 막 알이 들었고 목화는 여름을 지나 장마에 다래가 떨어져서 딸 것이 거의 없었고 콩·팥은 차례로 열매가 만들어졌고 찰조는 싹이 패어 고개를 수그렸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91. 1898년(광무 2) 9월 20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北道觀察府

### 報告

光武二年九月二十日 觀察使 嚴世永 報 本道管下 各郡雨澤農形은 前已連續馳報이올건과  
今月十四日卯時量 始雨호야 或霏或霏 當日酉時 乃止호니 府下 測雨器水深이 爲八分이오  
며 連接各郡所報 則去月十八日之雨에 順興은 川渠漲流 二十六日之雨에 榮川 清河는 川渠  
漲溢 二十九日之雨 英陽은 川渠漲流 今月十四日之雨에 大邱 星州 漆谷은 得一犁호읍고  
農形은 早稻早黍粟은 舉皆向熟 晚稻晚黍粟은 已盡垂穎 木綿은 拾白이득이온보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물 伏望.

觀察使 嚴世永

### 보고

광무 2년, 9월 20일 관찰사 엄세영 보고

본 경상북도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묘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  
다가 당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관찰부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지난달 18일의 비로 순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26일의  
비로 영천·청하 등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29일의 비로 영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이번 달 14일의 비로 대구·성주·칠곡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익어갔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고개  
를 숙였고 목화는 흰 꽃이 피었가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  
다.

관찰사 엄세영

## 0192. 1898년(광무 2) 10월 1일

公文編案 48책 慶尙南道觀察府

### 第八十五號 報告

光武二年十月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八十五號 報 管下各郡農形과 雨澤은 連續馳報호얏습거니와 本府下本月二十九日卯時에 始雨호야 或霖或灑호야 三十日寅時至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一分이오며 各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야 鱗次馳報計料호오며 農形은 連接各郡所報즉 早稻는 次第刈取호고 中晚稻는 舉皆黃熟호고 木花는 連加摘取호고 旱豆太는 間或收打호고 根耕豆太는 已盡黃熟호고 漆粟稷糠는 次第向熟이오나 已經水災호 許多田畝은 更無餘望이다이옵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 제85호 보고

광무 2년, 10월 1일 관찰사 조시영 제85호 보고

관할 각 군의 우택과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본 관찰부에 이번 달 2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장마지다가 더러 뿌리면서 30일 인시에 이르러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차례로 베어 거두었고 중벼·늦벼는 모두 다 누렇게 익었고, 목화는 연이어 땅고, 올콩·올팥은 간혹 거둬 타작했고 그루같이 콩·팥은 이미 다 누렇게 익었고 찰조·옥수수수는 차례로 익어갔습니다. 이미 수재를 입은 술한 논밭은 다시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93. 1898년(광무 2) 10월 24일

公文編案 48책

八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十月二十四日 觀察使 曹始永 八十八號報 本道管下各郡農形은 連續馳報호얏습거  
니와 各郡報告書를 連接호온즉 旱中晩稻난 次第登場호고 木花는 所摘이 無幾호고 豆太  
는 太平 虛穀에 全不成樣호고 漆粟稷糖은 方爲刈取호고 今月二十三日夜에 霜降이온브  
今年穡事가 移插之後 大雨過中호야 川反水沈에 全庫永棄之患이 各郡同然이옴기 訓飭各  
郡호야 使之從實抄災호야 待其齊報호야 年分文書를 修上計料호옴고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88호 보고

광무 2년, 10월 24일 관찰사 조시영 88호 보고

본 도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각 군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보니, 가뭄 속에서 늦벼는 차례로 타작하였고 목화는 따서 거둔 것이 거의 없고  
콩·팥은 태평 허곡에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했고 찰조·옥수수는 막 베었고 이번 달 23일  
밤에 서리가 내렸는데 올해 농사는 옮겨 심은 후 큰 비가 지나치게 내려 시내와 도랑은  
물에 잠겨서 모든 곳이 영원히 폐기될 걱정이 각 군이 같았기에 각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  
여 사실대로 재해를 정리하도록 했고,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올해 농사 등급 문서를  
작성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194. 1900년(광무 4) 4월 14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十七號 報告

光武四年四月十四日 觀察使 李垠鎔 十七號報 本府下今八日申時에 始雨 ㄱ야 或灑或霪 ㄱ야 九日寅時에 乃止 ㄱ오니 測雨器水深이 四寸五分이 옴고 十一日辰時에 更雨 ㄱ야 或霏或灑 ㄱ야 十二日戌時에 乃止 ㄱ니 測雨器水深이 一寸五分이오며 各府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ㄱ야 鱗次馳報計料 ㄱ오니 查照 ㄱ시믈 伏望.

觀察使 李垠鎔

17호 보고

광무 4년 4월 14일 관찰사 이은용 제17호 보고

본 관찰부 이번 8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9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11일 진시쯤에 다시 비가 왔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각 부와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0195. 1900년(광무 4) 4월 21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二十一號 報告

光武四年四月二十一日 觀察使 李垠鎔 二十一號報 本府下今月十七日酉時에 始雨 ㄱ야 二十日巳時에 乃止 ㄱ니 測雨器水深이 爲一寸이오며 列郡所得幾許는 待其齊報 鱗次馳報計料 ㄱ오니 查照 ㄱ시믈 伏望.

觀察使 李垠鎔.

21호 보고

광무 4년 4월 21일 관찰사 이은용 21호 보고

본 관찰부 이번 달 1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0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각 군에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196. 1900년(광무 4) 4월 30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二十三號 報告

光武四年四月三十日 觀察使 李垠鎔 二十三號報 今府下今八日之雨와 十二日之雨 所得幾許  
는 業已報告 ㅎ얏습거니와 連接各郡所報즉 霏灑之雨가 或止旋作 ㅎ야 彌至四五日예 晉州  
丹城 山淸 安義 咸陽 河東 南海 昆陽 泗川 固城 草溪 宜寧 咸安 鎭海 熊川 金海 梁山  
靈山 昌寧 密陽 等二十郡과 昌原東萊等兩府는 二犁이 ㅅ고 三嘉 彦陽等 兩郡는 川渠漲流이  
ㅅ고 蔚山 巨濟 兩郡은 一犁이 ㅅ고 居昌 陝川 漆原 機張等 四郡는 沍塵이 ㅅ기 茲에 報告  
ㅎ오니 查照 ㅎ시믈 伏望.

觀察使 李垠鎔

23호 보고

광무 4년 4월 30일 관찰사 이은용 23호 보고

이번 관찰부에 이번 8일의 비와 12일의 비로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달아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던 비가 더러 그치다가 바로  
내리다가 4~5일에 이르렀는데, 진주·단성·산청·안의·함양·하동·남해·곤양·사천·고성·초  
계·의령·함안·진해·웅천·김해·양산·영산·창녕·밀양 등 20개 군과 창원·동래 등 두 부는  
2려이고 삼가·언양 등 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울산·거제 2개 군은 1려이고  
거창·합천·칠원·기장 등 4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사해주시  
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197. 1900년(광무 4) 5월 2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二十七號 報告

光武四年五月二日 觀察使 李垠鎔 二十七號報 本府下去月十七日之雨 所得幾許 業已報告  
하야습거니와 連接各府郡所報즉 晉州 丹城 山淸 居昌 南海 河東 泗川 巨濟 金海 昌原  
東萊 機張 蔚山 彦陽 昌寧 密陽等 兩府十四郡는 一犁이옴고 草溪安義咸陽 固城等 四郡는  
浥塵이옴고 漆原 三嘉等 兩郡은 川渠微漲이옴고 昆陽陝川宜寧咸安鎭海熊川梁山 靈山等  
八郡는 初無所報이옴기 茲에 報告하오니 查照하시를 望함.

觀察使 李垠鎔

27호 보고

광무 4년 5월 2일 관찰사 이은용 27호 보고

본 관찰부에 지난 달 17일의 비로 내린 것이 얼마인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부와 군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진주·단성·산청·거창·남해·하동·사천·거제·김해·창원·동  
래·기장·울산·언양·창녕·밀양 등 2부 14개 군은 1려이고 초계·안의·함양·고성 등 4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이고 칠원·삼가 등 2개 군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곤양·합천·의  
령·함안·진해·웅천·양산·영산 등 8개 군은 애당초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198. 1900년(광무 4) 5월 2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二十六號 報告

光武四年五月二日 觀察使 李垠鎔 二十六號報 本府下今日申時始雨 ㄹ야 或霏或霑 ㄹ고 風雨大作 ㄹ야 二日辰時에 乃霽 ㄹ오니 所得이 爲三寸五分이오며 列郡所得幾許는 待其齊報 ㄹ야 續報計料 ㄹ오며 農形段는 連接各府郡所報즉 畓庫는 連爲翻耕 ㄹ고 秋牟는 茂茁 ㄹ고 春牟는 向青 ㄹ고 麻臬는 盡播 ㄹ고 豆黍粟木花는 始播 ㄹ고 秧坂는 間或注種 ㄹ고 堤堰川防는 連加修築이라 ㄹ읍기 玆에 報告 ㄹ오니 查照 ㄹ시물 伏望.

觀察使 李垠鎔

26호 보고

광무 4년 5월 2일 관찰사 이은용 26호 보고

본 관찰부 이번 1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면서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2일 진시에 이내 개었는데 내린 것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군에서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달아 각 부,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논은 연달이 땅을 뒤집고 갈고 가을보리는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푸르렀고 삼모시는 모두 싹을 뿌렸고 콩·팥·기장·조·목화는 비로소 씨앗을 뿌렸고 모판은 간혹 범씨를 뿌렸고 제언과 천방은 연달아 수선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0199. 1900년(광무 4) 5월 8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二十八號 報告

光武四年五月八日 觀察使 李垠鎔 二十八號報 本府下今六日酉時에 始雨 ㄹ야 或灑或霏 ㄹ야 七日午時에 開霽 ㄹ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五寸五分이오며 各府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 ㄹ야 鱗次馳報計料 ㄹ오며 茲에 報告 ㄹ오니 查照 ㄹ시믈 望함.

觀察使 李垠鎔

28호 보고

광무 4년 5월 8일 관찰사 이은용 28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7일 오시에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각 부와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200. 1900년(광무 4) 5월 16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三十號 報告

光武四年五月十六日 觀察使 李垠鎔 三十號報 管下各府郡農形은 業已連續馳報 ㅎ얏습거니와 連接各郡所報즉 畚庫는 已盡反耕 ㅎ고 秋牟는 或胚胎 ㅎ며 或發穗 ㅎ고 麻臬는 向靑 ㅎ고 豆太黍粟木花은 已盡播耕 ㅎ고 秧坂는 已盡注種 ㅎ고 堤堰川防은 連加申飭이라 ㅎ읍기 茲에 報告 ㅎ오니 査照 ㅎ시믈 伏望.

觀察使 李垠鎔

30호 보고

광무 4년 5월 16일 관찰사 이은용 20호 보고

관할 각 부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논은 이미 다 갈아엎고 가을보리는 더러 싹을 배고 더러 이삭이 뻗으며, 삼모시는 푸르렀고 콩·팥·기장·조·목화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모판은 이미 다 법씨를 뿌렸고 제언과 천방은 연달아 단단히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201. 1900년(광무 4) 5월 20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三十七號 報告

光武四年六月二十日 觀察使 李垠鎔 三十七號報 本府下上月二十六日得雨幾許는 業已報告  
하엿습거니와 連接各府郡所報즉 晉州 丹城 山淸 三嘉 陝川 河東 昆陽 南海 泗川 宜寧  
咸安 鎭海 昌原 東萊 蔚山 彦陽 密陽 靈山 昌寧 安義等 二十一郡은 一犁이옴 居昌은  
川渠漲滿이옴고 草溪 固城巨濟等 三郡은 浥塵이옴고 咸陽 金海熊川機張梁山等 五郡은  
尙無所報이오며 農形은 秋牟은 次第刈取하고 春牟는 向熟하고 麻臬는 連加茁長 木花은  
就長하고 豆太黍粟早耕者는 茂靑하고 晚耕者는 向靑하고 秧苗는 次次移插하고 堤堰川防  
은 連加修築貯水라하고 옴기 茲에 報告하오니 查照하시를 伏望.

觀察使 李垠鎔

37호 보고

광무 4년 6월 20일 관찰사 이은용 37호 보고

본 관찰부에 지난달 26일의 비가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달아  
각 부,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단성·산청·삼가·합천·하동·곤양·남해·사천·의령·함  
안·진해·창원·동래·울산·언양·밀양·영산·창녕·안의 등 21개 군은 1려이고 거창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초계·고성·거제 등 3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함양·김해·웅  
천·기장·양산 등 5개 군은 아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었고, 봄보리는 익어갔고 삼모시는 연달아 싹이 자랐고 목화는 자랐고 콩·팥·기  
장·조 중 일찍 간 것은 무성하게 푸르렀고 늦게 간 것은 푸르렀고 모는 차례로 옮겨  
심었고 제언·천방은 연달아 수선했어 쌓고 물을 저장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202. 1900년(광무 4) 6월 1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三十三號 報告

光武四年六月一日 觀察使 李垠鎔 三十三號報 本府本月二十六日申時에 始雨호야 或霖或灑호야 二十七日午時에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五分이오며 各府郡所得幾許는 待其齊報호와 鱗次馳報計料호옵고 玆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믈 伏望.

觀察使 李垠鎔

33호 보고

광무 4년 6월 1일 관찰사 이은용 33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26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오시에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각 부와 군에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觀察使 李垠鎔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각 부와 군이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가을 보리는 이미 다 베었고 봄보리는 차례로 베었고 삼모시·목화는 연달아 싹이 자랐고 콩·팥·기장·조는 이르든 늦든 따질 것 없이 갈았고 차근차근 자랐고 모는 가뭄 1달에 낮은 곳은 이미 싹없다가 곧바로 마른 것이 대부분이었고 높고 마른 곳은 한 눈에 거북등처럼 터져 보이

는 것은 참혹했습니다. 남해 일대는 더욱 위태로워 바야흐로 우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이은용



## 0204. 1900년(광무 4) 8월 4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四十七號 報告

光武四年八月四日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四十七號報 本府下上月十四日得雨幾許와 昌原等 九邑所得多寡는 前已報告호 앞職니와 連接各郡所報즉 一省이 均洽이오며 農形은 麻稗는 間間埋漚호고 木花豆太黍粟은 連加茁長호고 早稻는 或胚胎호고 晚稻는 或就苗호고 堤堰川防은 另加修築貯水라호 읍기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를 伏望.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47호 보고

광무 4년 8월 2일 관찰사서리 사천군수 민기호 47호 보고

본 관찰부에 지난 달 14일 내린 비가 얼마인지와 창원 등 9개 고을에 내린 양은 앞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모든 지역이 골고루 적셨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삼모시는 간간이 매호(埋漚)하였고, 목화·콩·팥·기장·조는 연이어 싹이 자랐고 올벼는 더러 알이 배었고 늦벼는 더러 싹이 나고 제언 천방은 별도로 수리해 쌓고 물을 저장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 0205. 1900년(광무 4) 8월 9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四十八號 報告

光武四年八月九日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四十八號報 本府下今五日酉時에 始雨호야  
或止或霏或灑타가 八日午時에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五寸五分이오며 各郡所得幾許  
는 待其齊報호야 鱗次馳報計料호옵고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믈 伏望.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48호 보고

광무 4년 8월 9일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48호 보고

본 관찰부 이번 5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그치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더러 뿌리다가 8일 오시에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 0206. 1900년(광무 4) 8월 17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五十一號 報告

光武四年八月十七日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五十一號報 管下各府郡農形은 連續馳報  
하야습거니와 連接所報즉 麻稗은 已盡埋漚하고 木花豆太는 方張結顆하고 早稻은 間間發  
穗하고 晚稻黍粟은 次次胚胎하고 堤堰川防은 另加修築이오되 間因日旱하야 未免斷流라  
하와 巨濟郡즉 螟螣이 大熾하야 秉界无效키로 方設止虫祭이다이옵기 茲에 報告하오니  
査照하시를 伏望.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51호 보고

광무 4년 8월 17일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51호 보고

관할 각 부, 군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  
니, 삼모시는 이미 다 매호하였고 목화·콩·팥은 한창 열매가 맺었고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꿰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근차근 알이 배었고, 제언, 천방은 별도로 수리하고 쌓았는데  
그 사이 날이 가물어서 흐름이 끊긴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거제군(巨濟  
郡)은 배추벌레·등사가 크게 발생하여 병계(秉界) 효과가 없어서 막 지충제(止虫祭)를  
시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0207. 1900년(광무 4) 8월 27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五十四號 報告

光武四年八月二十七日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五十四號報 本府下今月二十四日辰時  
에 始雨호야 大霈霏下호와 二十五日寅時에 開霽호오니 測雨器水深이 爲八寸이오며 各府  
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와 鱗次馳報計料호옵고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믈 伏望.  
觀察使署理泗川郡守 閔箕鎬

54호 보고

광무 4년 8월 27일 관찰사서리 사천군수 민기호 54호 보고

본 관찰부 이번 달 2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크게 퍼부으며 주룩주룩 내다가  
25일 인시에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였습니다. 각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거  
를 기다려 바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서리 사천 군수 민기호

## 0208. 1900년(광무 4) 9월 1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五十五號 報告

光武四年九月一日 觀察使署理晉州郡守 尹寓善 五十五號報 管下各府郡農形은 業已陸續報告  
하여습거니와 連接所報즉 木花는 間間摘取하고 豆太는 向熟하고 早稻는 連加發穗하고  
晚稻는 連加胚胎하고 蝗虫이 大熾하여 其爲被害가 列郡이 攸同이읍기 憂悶緣由을 茲에  
報告하오니 查照하시를 伏望.

觀察使署理晉州郡守 尹寓善

제55호 보고

광무 4년 9월 1일 관찰사서리 진주군수 윤우선 55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계속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목화는 간간히 났고 콩·팥은 익어갔고 올벼는 연이어 이삭이 났고 늦벼는 연이어 알이  
배었고 누리 벌레가 크게 일어나 입은 피해는 여러 군이 같기에 걱정 근심하는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서리 진주군수 윤우선

## 0209. 1900년(광무 4) 9월 15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 四號 報告

光武四年九月十五日 觀察使 金永惠 四號報告 本府下今月十四日卯時에 始雨<sup>호야</sup> 或灑或霏<sup>호야</sup> 當日酉時에 乃止<sup>호오니</sup> 測雨器水深이 爲五分이오며 各府郡所得幾許<sup>는</sup> 待其齊報<sup>호</sup> 와 鱗次馳報計料<sup>호오며</sup> 茲에 報告<sup>호오니</sup> 查照<sup>호심을</sup> 伏望.

觀察使 金永惠

### 4호 보고

광무 4년 9월 15일 관찰사 김영덕 4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14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부, 군에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김영덕

## 0210. 1900년(광무 4) 9월 15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 五號 報告

光武四年九月十五日 觀察使 金永惠 五號報告 本府下去月二十四日得雨幾許 業已馳報 〇  
얏습거니와 連接各府郡所報 즉 晉州 三嘉 居昌 密陽 宜寧 陝川 彦陽 蔚山 梁山 咸安漆原等  
十一郡은 川渠漲流이 〇고 泗川 昆陽 丹城 山淸 巨濟 咸陽 機張 靈山 昌寧 固城等 十郡은  
二犁이 〇고 草溪 南海 金海 東萊 昌原等 二府三郡은 一犁이 〇고 安義 河東 鎭海 熊川等  
四郡은 二鋤이 〇고 農形은 連接所報 즉 木花 〇 間間摘取 〇 〇고 豆太黍粟은 向熟 〇고 早  
稻 〇 間或刈取 〇고 中稻 〇 垂穎 〇고 晚稻는 次第發穗이온바 水沈이 間多 〇고 虫患이  
不息이라 〇오니 言念農情에 誠甚愁悶이 〇기 玆에 報告 〇오니 查照 〇시를 伏望.

觀察使 金永惠

### 5호 보고

광무 4년 9월 15일 관찰사 김영덕 5호 보고

본 관찰부의 지난달 24일 내린 비가 얼마인지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부,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삼가·거창·밀양·의령·합천·언양·울산·양산·함안·칠원  
등 11개 군은 시내와 더랑이 불어나 흘렀고, 사천·곤양·단성·산청·거제·함양·기장·영산·창  
녕·고성 등 10개 군은 2려이고, 초계·남해·김해·동래·창원 등 2개 부와 3개 군은 1려이고  
안의·하동·진해·웅천 등 4개 군은 2서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연이어 보고를 접수해보니, 목화는 간간이 땀고 콩·팥·기장·조는 익어갔  
고 올벼는 간혹 베었고 중벼는 고개를 숙였고 늦벼는 차례로 싹이 났습니다. 물에 잠긴  
것이 사이에 많았고 벌레 걱정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 걱정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김영덕

## 0211. 1900년(광무 4) 9월 19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六號 報告

光武四年九月十九日 觀察使 金永惠 六號報告 本府下今月十四日得雨幾許는 陸續馳報호엿  
습거니와 今十七日未時에 又乃雨호야 大霏霏下호야 十八日亥時에 開霽호오니 測雨器水  
深이 爲八寸餘이오며 各府郡所得多寡는 待其齊報호와 連續馳報計料호오며 茲의 報告호  
오니 查照호시믈 伏望.

觀察使 金永惠

6호 보고

광무 4년 9월 19일 관찰사 김영덕 6호 보고

본 관찰부에 이번 달 14일에 내린 비가 얼마인지는 계속해서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17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는데 크게 퍼부으며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해시에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였습니다. 각 부, 군에 내린 양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연달아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김영덕



## 0212. 1900년(광무 4) 10월 1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七號 報告

光武四年十月一日 觀察使 金永惠 七號報告 本府下去月十七日雨澤과 中旬農形은 業已馳報  
호얏습거니와 連接各府郡所報즉 雨澤은 晉州 丹城 山淸 金海 三嘉 機張 熊川 密陽 陝川  
河東 咸安 泗川 昌寧 鎭海 蔚山 梁山 草溪 南海 昆陽漆原 固城 宜寧 東萊 昌原等 二府二十二  
郡은 江川이 漲溢에 陵谷이 懷襄이옵고 居昌 安義 咸陽 巨濟等 四郡은 一犁이옵고 彦陽靈  
山等 二郡은 姑無所報이옵고 農形은 早稻는 間間刈取호고 中稻晚稻는 已盡發穗이옵고  
木花는 連加摘取이옵고 豆太는 方爲刈打호고 黍粟은 次第向熟이온바 前者蠱虫이 猶尙不  
息호온디 今番雨水가 加以懷襄호와 人命湔死와 村家漂頽之患이 亦多有之호오니 民情穡  
事가 極爲可悶이옵기 玆의 報告호오니 查照호시를 伏望.

觀察使 金永惠

7호 보고

광무 4년 10월 1일 관찰사 김영덕 7호 보고

본 관찰부의 지난달 17일 우택과 중순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부·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우택의 경우,

진주·단성·산청·김해·삼가·기장·웅천·밀양·함천·하동·함안·사천·창녕·진해·울산·양산·초  
계·남해·곤양·칠원·고성·의령·동래·창원等 등 2부, 22개 군은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쳤고  
언덕과 골짜기는 산을 넘고 언덕을 덮을 만큼 비가 내렸고 거창·안의·함양·거제 등 4개  
군은 1려이고 언양·영산 등 2개 군은 아직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는 간간이 베었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싹이 났고 목화는 연이어  
났고 콩·팥은 막 베어 타작했고 기장·조는 차례로 익어갔고, 앞서의 해충은 오히려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빗물은 산을 넘고 언덕을 덮을 만큼 내려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고 마을의 집이 떠내려 갈 근심이 또한 많아서 백성들의 사정과 농사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관찰사 김영덕

### 0213. 1900년(광무 4) 12월 3일

公文編案 90책 慶尙南道觀察府 報告

報告

光武四年十二月三日 觀察使 金永惠 報 管下 宜寧 咸安密陽 三郡郡守의 報告를 連接호은즉  
內開에 本年陰曆八月 日雨水에 人家漂頽의 人命滄死를 郡守親自摘奸호야 成冊修上호오  
니 轉報京部호와 俾蒙處分事等因이옵기 準查(以下缺).

觀察使 金永惠

光武四年十二月三日

보고

광무 4년 12월 3일 관찰사 김영덕 보고

관할 의령·함안·밀양 3개 군수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올해 음력 8월 일 빗물로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군수가 직접 캐보고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니 서울 관아에 전달 보고하여 처분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이하 빠짐).

관찰사 김영덕

광무 4년 12월 3일

0214. 1898년(광무 2) 4월 1일

公文編案 48책

第三十一號 報告

光武二年四月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三十一號 報 現今課農之節은 列郡에 另飭하고 俾各悉心이오며 秋牟向靑하고 春牟는 已盡耕播하고 畚庫는 連爲翻耕이옵기 茲에 報告하고오니 照亮하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제31호 보고

광무 2년, 4월 1일 관찰사 조시영 제31호 보고

현재 농사짓는 계절이어서 여러 군에 별도로 지시하여 각별히 마음을 쏟게 했습니다. 가을보리는 푸르렀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논은 연이어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0215. 1898년(광무 2) 4월 16일

公文編案 48책

第三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四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三十八號 報 管下各郡農形은 已爲馳報 ㅎ앗삽거니와  
秋牟 ㄴ 連加茁長 ㅎ고 春牟 ㄴ 向靑 ㅎ옴기 緣由을 茲에 報告 ㅎ오니 照亮 ㅎ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제38호 보고

광무 2년, 4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38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가을보리는 연이어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푸르렀습니다.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16. 1898년(광무 2) 6월 1일

公文編案 48책

### 第五十二號 報告

光武二年六月一日 觀察使 曹始永 第五十二號 報 本府下去月十六日 雨下 十七日戌時止 所得幾許 已爲馳報 晉州 山淸 居昌 安義 咸陽 泗川 固城 巨濟 宜寧 靈山 密陽 昌原 鎭海 金海 熊川 梁山 漆原 蔚山 東萊 草溪 陝川 等 二十一郡은 泥塵이오며 丹城 三嘉 南海 河東 昆陽 咸安 昌寧 彦陽 機張 等 九郡은 一鋤이옴고 農形畓은 秋牟는 間或刈取 春牟는 向熟 麻桑木綿은 茁長 早秧은 漸長 晚秧은 出水向靑 早豆太은 已盡出土 早漆粟은 始播이옴기 茲에 報告오니 照亮하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52호 보고

광무 2년, 6월 1일 관찰사 조시영 제52호 보고

본 관찰부에 지난 달 16일에 비가 내려 17일 술시에 그쳤는데, 내린 것이 얼마인지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진주·산청·거창·안의·함양·사천·고성·거제·의령·영산·밀양·창원·진해·김해·웅천·양산·칠원·울산·동래·초계·합천 등 21개 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단성·삼가·남해·하동·곤양·함안·창녕·언양·기장 등 9개 군은 1서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베었고 봄보리는 익어갔고, 삼모시와 목화는 짝이 자랐고 올벼는 점차 자랐고 늦벼는 이삭이 나와 푸르렀고 올콩·올팥은 이미 다 땅에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17. 1898년(광무 2) 8월 16일

公文編案 48책

### 第六十九號 報告

光武二年八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六十九號 報 管下各郡農形과 雨澤은 連續馳報호엿거니와 連接各郡報告書 則早稻는 三除草已畢에 方始胚胎호고 中晚稻는 次第三除草호고 木花는 連加鋤治에 開花結囊호고 春耕豆太는 開花結實호고 根耕豆太와 漆粟은 連加苗長이온바 開夏以後로 大雨頻仍에 洪濤屢沈호와 晉州 金海 密陽 蔚山 宜寧 昌寧 昌原 河東 陝川 咸安 靈山 機張 草溪 泗川 鎭海 梁山 東萊 漆原 固城 等 十九郡안은 汚下處田畝各穀이 舉皆消融호야 無望蘇醒이다이오며 巨濟 昆陽 三嘉 南海 熊川 等 五郡段은 連被水害호온中에 蟲蟲이 隨熾이다이오며 居昌 咸陽 安義 山淸 丹城 彦陽 等 六郡段은 川反汰覆處田畝各穀은 已判永棄이다이온바 水災之靡穀이 各郡同然호오니 言念農情에 極爲悶然이옵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믄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69호 보고

광무 2년, 8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69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세 차례 제초 작업을 이미 끝내고 막 비로소 알이 배었고, 중벼·늦벼는 차례로 세 차례 제초 작업을 하였고, 목화는 연이어 김매기를 하여 꽃이 피고 다래가 맺었고, 봄갈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고, 그루갈이한 콩·팥과 찰조는 연이어 싹이 자랐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이후로 큰 비가 빈번하여 홍수가 나 여러 차례 잠겼고 진주·김해·밀양·울산·의령·창녕·창원·하동·합천·함안·영산·기장·초계·사천·진해·양산·동래·칠원·고성 등 19개 군의 경우, 낮은 곳의 논밭 각 곡식은 대부분 녹아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거제·곤양·삼가·남해·웅천 등 5개 군의 경우, 연이어 수해를 입었는데 벼멸구가 따라서 번졌다고 합니다. 거창·함양·안의·산청·단성·언양 등 6개 군의 경우 시내로 변해 모래로 뒤덮인 곳의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미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판가름났다

고 하였습니다. 수재로 곡식이 없어진 것은 각 군이 같았으니 농사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이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18. 1898년(광무 2) 9월 2일

公文編案 48책

### 第七十二號 報告

光武二年九月二日 觀察使 曹始永 第七十二號報 管下各郡農形과 雨澤은 連續馳報 ्ह얏삽거  
니와 連接各郡所報즉 早稻는 垂穗向熟 ्ह고 中晚稻는 三除草已畢에 次第胚胎 ्ह고 木花는  
長霖之餘에 風日陰翳 ्ह야 零落無常 ्ह고 春耕豆太는 舉皆結實 ्ह고 根耕豆太는 開花結實  
्ह고 漆粟은 連爲茁長이오나 汚下處田畝各穀은 大水屢沈 ्ह야 痿黃者尙未蘇醒 ्ह고 消融  
者已判永棄이다이오니 言念農情에 誠爲悶然이옵기 茲에 報告 ्ह오니 照亮 ्ह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 제72호 보고

광무 2년, 9월 2일 관찰사 조시영 제72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이삭이 수그리고 익어갔고 중벼·늦벼는 세 차례 제초작업을 이미  
마쳤고 차례로 알이 배었고 목화는 장마진 나머지 날씨는 짙은 구름이 끼어서 시들고  
떨어져 변화무쌍하고 봄같이한 콩·팥은 대부분 열매가 맺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고 찰조는 연이어 싹이 자랐으나 낮은 곳의 논밭의 각종 곡식은 큰  
물에 여러번 잠겨서 시들어 누렇게 되어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녹아난 것은 이미 영원히  
포기한 것으로 관가름났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19. 1898년(광무 2) 9월 9일

公文編案 48책

### 第七十四號 報告

光武二年九月九日 觀察使 曹始永 第七十四 號 今年開春以後로 農形과 雨澤은 連續修報이  
읍 건과 連接管下沿邊各郡所報즉 今五六月之間에 雨水頻仍호야 長霖不霽이다가 逮夫七晦  
八初에 大雨가 連日瀑霪호와 全坪浸墊호고 田畝이 隨處川反而浦落호고 堤堰이 間多潰缺  
而無形호야 浸水各穀이 舉皆腐損에 多有永棄호고 人家之頽壓과 人命之滄死가 無處無之  
이다이오니 言念民情에 不勝悶隘호와 田畝反川覆沙와 頽壓戶之間數와 滄死人之姓名을  
一一摘奸報來호야 以爲轉報之意로 已爲指飭于各該郡이오니 待其齊報호야 修成冊馳報計  
料호오며 茲先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望함.

觀察使 曹始永

### 제74호 보고

광무 2년, 9월 9일 관찰사 조시영 제74호

올해 봄 이후로 농사 상황과 우택은 연달아 작성해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관할 주변  
각 군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해보니, 이번 5, 6월 사이에 빗물이 빈번하여 장마가 개이지  
않다가 7월 그믐 8월 초에 이르러 큰 비가 연일 폭포처럼 주룩주룩 쏟아져 온 들판이  
잠겼고 논밭은 곳곳이 시내가 되어 떨어져 나갔고 제언은 사이사이 터진 곳이 많아 형체  
가 없어서 각종 곡식이 물에 잠기어 대부분 썩어서 영원히 포기한 것이 많았고, 백성  
집이 무너진 것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없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해보니 답답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밭이 시내로 변하고 모래로  
덮혔고 무너진 가구의 칸수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성명을 하나하나 캐보고 보고해  
오면 전달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각 해당 군에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니 일제히 보고하  
기를 기다려 성책을 작성하여 긴급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먼저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  
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20. 1898년(광무 2) 9월 16일

公文編案 48책

第八十號 報告

光武二年九月十六日 觀察使 曹始永 第八十號 報 管下各郡農形은 連續馳報 ㅎ얏습거니와 連接各郡所報즉 早稻는 日漸登熟에 間或刈取 ㅎ고 中晚稻는 已盡發穗에 方爲入實 ㅎ고 木花는 經夏長霖에 顆囊이 零落 ㅎ야 取摘이 無幾 ㅎ고 豆太는 次第成實 ㅎ고 漆粟은 發穗垂穎이다이옵기 茲에 報告 ㅎ오니 照亮 ㅎ시믈 要함.

觀察使 曹始永

제80호 보고

광무 2년, 9월 16일 관찰사 조시영 제80호 보고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군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올벼는 날로 점차 익어서 간혹 베었고 중벼·늦벼는 이미 다 싹이 패어 막 알이 들었고 목화는 여름을 지나 장마에 다래가 떨어져서 딸 것이 거의 없었고 콩·팥은 차례로 열매가 만들어졌고 찰조는 싹이 패어 고개를 수그렸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관찰사 조시영

## 0221. 1898년(광무 2) 10월 24일

公文編案 48책

八十八號 報告

光武二年十月二十四日 觀察使 曹始永 八十八號報 本道管下各郡農形은 連續馳報호얏습거니와 各郡報告書를 連接호온즉 旱中晩稻난 次第登場호고 木花는 所摘이 無幾호고 豆太는 太平 虛穀에 全不成樣호고 漆粟稷糖은 方爲刈取호고 今月二十三日夜에 霜降이온브 今年穡事가 移插之後 大雨過中호야 川反水沈에 全庫永棄之患이 各郡同然이옴기 訓飭各郡호야 使之從實抄災호야 待其齊報호야 年分文書를 修上計料호옴고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믈 望흠.

觀察使 曹始永

88호 보고

광무 2년, 10월 24일 관찰사 조시영 88호 보고

본 도 관할 각 군의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했습니다. 각 군의 보고서를 연이어 접수해보니, 가뭄 속에서 늦벼는 차례로 타작하였고 목화는 따서 거둔 것이 거의 없고 콩·팥은 태평 허곡에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했고 찰조·옥수수는 막 베었고 이번 달 23일 밤에 서리가 내렸는데 올해 농사는 옮겨 심은 후 큰 비가 지나치게 내려 시내와 도랑은 물에 잠겨서 모든 곳이 영원히 폐기될 걱정이 각 군이 같았기에 각 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여 사실대로 재해를 정리하도록 했고,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올해 농사 등급 문서를 작성하여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사 조시영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3-01
ISBN	979-11-6988-372-6(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a href="https://science.kma.go.kr/museum">https://science.kma.go.kr/museum</a>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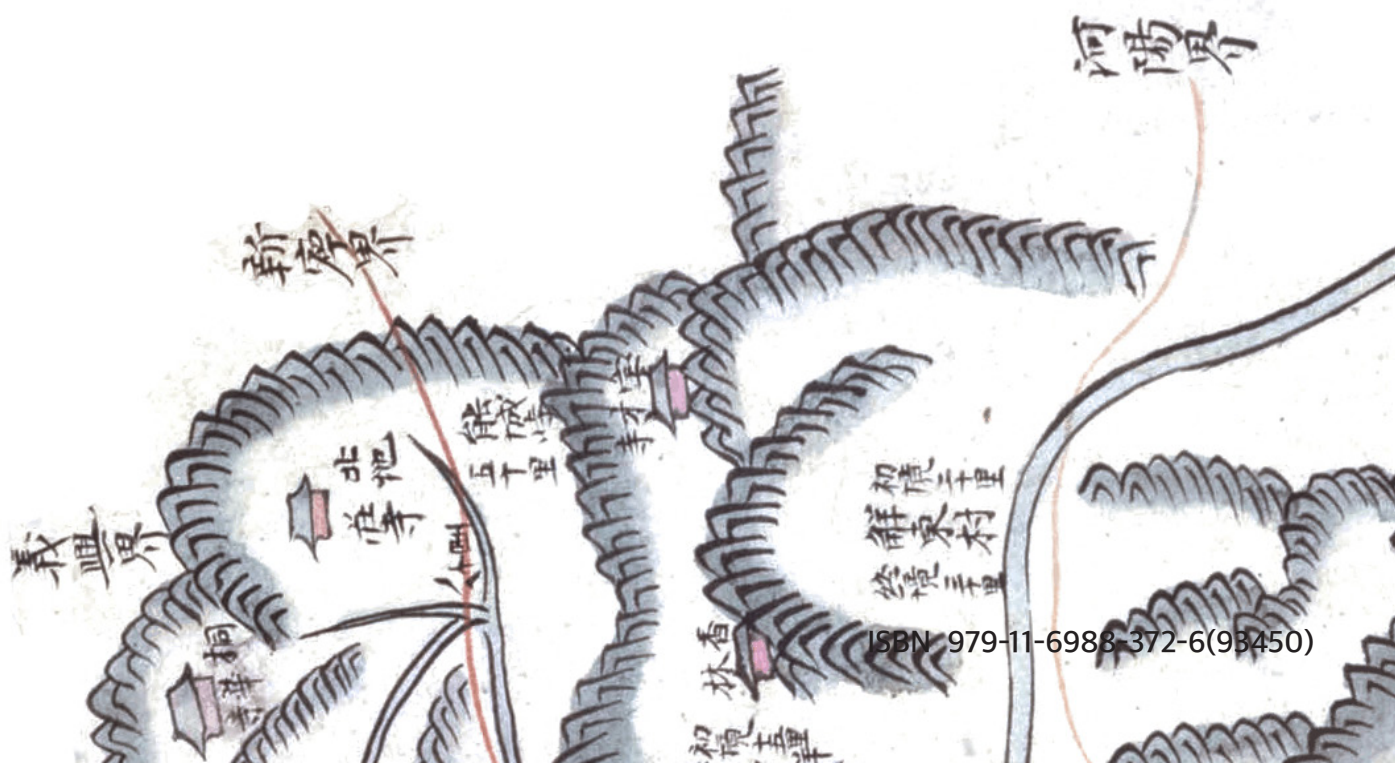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ISBN 979-11-6988-372-6(93450)